

‘밀라노먹거리협약’과 서울시 먹거리정책

문은숙 손창우 문진영

‘밀라노먹거리협약’과 서울시 먹거리정책

연구책임

문은숙	도시사회연구실 초빙선임연구위원
손창우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연구진

문진영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원
-----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서울시 먹거리정책, 사회정책적 형평성 높이고 먹거리문제 대응형에서 원인해소형으로 전환

시민 기본권인 먹거리, 사회·경제·환경적 측면에서 위협요인에 노출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이 여러 측면에서 위협받고 있다. 먹거리가 충분하지 않아 배고픈 시민이 발생하고, 거둬드는 사회적·자연적 재난으로 먹거리 취약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시민이 늘고 있다. 잘못된 식생활로 인해 비만과 같은 생활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시민도 급증하고 있다. 안전하지 못한 먹거리의 유통으로 식중독 등의 식품기인성 질환은 물론 농약, 화학식품첨가물 등에 대한 시민의 불안은 여전하다. 먹거리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정확하지 않은 상업적 건강영양정보가 난무해 건강먹거리를 고민하는 시민들은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위협요인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먹거리정책의 목적이다.

먹거리는 여러 복합적 문제가 섞여 시민 건강 해치고 삶의 질 훼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먹거리 문제는 곧바로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실제 부족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먹거리로 많은 시민들은 만성적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먹거리 문제는 시민 건강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WHO를 비롯해 여러 국가들이 먹거리를 건강 결정요인으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

모든 시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충분하게 공급하고, 먹거리가 충분하지 않은 시민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부의 의무이다.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도록 시민을 돕고,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되도록 먹거리 시장을 관리하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다. 먹거리정책이 시장 논리에 치우쳐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과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정부의 책무이다.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시민 기본권·건강권·환경책임 동시달성 가능

시급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시민들의 먹거리 기본권, 건강권, 환경책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이다.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란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고 안전하고 다양한 먹거리체계, 인권에 기초하여 모든 시민에게 제공되는 건강하고 적절한 가격의 먹거리체계, 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응하는 동시에 이를 완화시키면서 낭비를 최소화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먹거리체계를 말한다(FAO, Milan Pact).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는 국가 단위보다 도시 단위 추진이 효과적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는 국가 단위에서보다 도시 단위에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개발국가라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부유한 도시에서는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먹거리 문제를 고스란히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진국의 먹거리양식은 저개발국가에서도 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도시는 먹거리생산체계에서 배제되어 있어 지속가능한 먹거리공급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도시와 농촌의 생태적 연결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밀라노먹거리협약,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요구하는 첫 국제의정서

밀라노 도시먹거리정책협약(이하 밀라노먹거리협약)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개발을 요구하는 최초의 국제 의정서라고 할 수 있다. 협약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발전과 건강한 먹거리 촉진을 목표로 한다.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는 모든 시민에게 접근 가능한 건강먹거리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먹거리 폐기를 줄이는 생태적 먹거리를 양 축으로 한다.

밀라노먹거리협약은 최대 규모의 도시 간 협약으로 2016년 12월 현재 모두 13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밀라노먹거리협약에는 두 가지 주요 프로그램이 있는데, 밀라노협약어워드(Milan Pact

Award)와 모니터링 프로그램이다. 밀라노협약어워드의 목적은 먹거리정책에 대한 시장의 참여를 독려하고 협약도시 간에 경험을 교류하기 위한 것이다.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에 대한 경험이 많은 도시 사례를 새로이 진압하는 도시가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건강먹거리 확보·생태적 먹거리시스템 확립 전략 제시해야

서울시의 최우선 과제는 서울시민 먹거리 현장을 통해 서울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밀라노 협약의 양 축인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확보’와 ‘생태적인 먹거리시스템 확립’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민의 건강먹거리 확보와 생태적 먹거리시스템 확립이 서울시 먹거리정책의 핵심과제이다.

‘밀라노협약’에 따라 서울시 먹거리정책 취약점 분석해 6개 개선과제 도출

밀라노먹거리협약이 제시한 먹거리정책 프레임에 기초해 서울시 먹거리정책의 특성과 취약점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① 시민·지역·현장 주도 ‘먹거리 정책거버넌스’로 발전

식거버넌스 구성을 통해 먹거리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건강과 먹거리정책의 연계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먹거리거버넌스체계는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먹거리정책 목표와 전략에 대한 시민사회의 합의와 지역사회 먹거리생태계 분석을 기반으로 먹거리마스터플랜이 출발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미흡함이 있었다. 특히 시민의 부분적 참여에서 벗어나 ‘시민, 지역, 현장이 주도하는 서울먹거리정책거버넌스’로 발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또 다양하고 빈번한 재난 위험으로부터 ‘시민 건강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먹거리위기대응전략 강화, 다부처시민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다부문 먹거리정보체계’ 개발도 시급한 개선과제이다.

② 지속가능한 식생활 정책수단 개발

지속가능한 식생활영역에는 시민체감형, 사회문제형 사업이 가장 많다. 서울시는 이 영역에서

나트륨 저감화 사업, 건강체중 프로젝트, 음식점 위생등급제, 아동 및 청소년 식생활 교육사업 등 60여 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예산 투입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앞으로 행정 규제 외에 민간의 참여와 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국제 규범과의 조화를 꾀하려는 실질적인(형식적·일회적이지 아닌) 노력이 필요하다.

③ 먹거리 형평성 증진하는 기본계획 수립

사회경제적 형평성 영역은 서울시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먹거리정책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취약층 대상 먹거리정책은 실행주체별, 수혜대상별로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고, 먹거리 취약층 산정 방식, 지원 규모나 방법 등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먹거리격차와 먹거리 취약층 증가 문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성과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본계획과 중장기적 목표 마련이 필요하다. ‘먹거리 형평성 제고’라는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고 목표를 달성해가는 로드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④ 먹거리사막 해소 등이 서울의 건강먹거리 비전

먹거리생산, 공급, 유통 영역의 서울시 정책은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서울시 산하의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 귀촌귀농 등),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공영시장시설 현대화, 전자경매시스템, 원산지관리, 유통정보 등)가 이 영역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도시·근교농업과 도시회복력 계획의 통합, 기후변화대응·생태보전·에코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위한 서울토지이용계획의 강화, 건강먹거리시장 형성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확대 등 서울의 건강먹거리 비전을 더 강력하게 견지해야 한다. 또한 먹거리유통흐름에 대한 과학적 파악을 통해 사회경제적 취약층, 나아가 모든 시민의 건강먹거리 접근성(먹거리사막의 해소)을 높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⑤ 재사용·재유통 등 선순환 먹거리 지원정책 시행

먹거리낭비 영역은 서울시가 기본계획에 따라 모두 4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인프라 구축 및 감량화, 음식문화 개선사업, 음식물쓰레기 원천감량화 사업,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등이다. 다만, 음식물쓰레기 처리에만 집중하기보다 재사용, 재유통 등 근본적으로 자원 손실을 줄이려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또 가공산업, 외식산업 등 다양한 시장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⑥ 먹거리 문제, 대응형에서 원인해소형으로 전환

그동안 식품위생, 안전, 영양정책 범주에 머물러왔던 서울시 먹거리정책은 먹거리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를 포괄하는 먹거리공급망관리체계를 먹거리정책의 범위로 확대하여야 한다.

먹거리문제 대응형에서 먹거리문제 원인해소형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서울시 먹거리정책 사업은 범위 설정이나 사업 규모 분류에 따라 사업 수 산정에 차이가 있겠으나 모두 90여 개에 달한다. 기본계획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9개 정도이다. 먹거리정책추진체계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시민건강국의 식품안전과가 주축이다. 부처 간 협력체계나 먹거리정책거버넌스가 강조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아직 정착되지도 않았다.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과 단일과제 사업이 혼재되어 있어 정책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성격, 구성, 규모, 방법의 적절성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먹거리문제(안전, 영양) 대응형에서 먹거리문제 원인해소형으로 전환해나가야 한다.



목차

01 연구개요	2
1_연구 배경	2
2_연구 목적	2
3_연구 구성과 방법	3
02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6
1_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배경과 목적	6
2_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현황	7
3_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특징과 의미	13
4_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구조와 내용	16
03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의 주요 도시 사례	24
1_2015년 도시먹거리정책 우수사례	24
2_2016년 밀라노 먹거리협약 어워드 도시	44
04 밀라노협약에 기초한 서울시 먹거리정책 평가 및 개선과제	50
1_협약에 따른 서울시 먹거리정책 현황	50
2_밀라노협약 영역별 서울시 먹거리정책 내용 및 평가	55
3_서울시 먹거리정책의 특성과 한계	65
05 결론 및 제언	68
1_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은 무엇인가?	68

2_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의 특징과 정책적 함의	70
3_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에 따른 서울시 먹거리정책 진단	72
4_서울시 먹거리정책 개선방향	75
 참고문헌	 81
 부록	 82
1_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영문 전문)	82
2_2015년 해외 도시먹거리정책 우수사례 도시별 특징	85
3_2016년 밀라노 먹거리협약 어워드 도시별 특징	141
4_서울시 먹거리정책의 영역별 세부 내용	144



표

[표 2-1] 협약 가입 도시	9
[표 2-2] 협약 가입 도시의 지역적 분포	10
[표 2-3]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운영위원회(2016년~2018년)	13
[표 2-4]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실행체계	21
[표 3-1] 거버넌스(효과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보장) 영역의 해외 도시 사례	25
[표 3-2] 지속가능 식생활과 영양 영역의 해외 도시 사례	29
[표 3-3] 사회경제적 형평성 영역의 해외 도시 사례	33
[표 3-4] 먹거리 생산 영역의 해외 도시 사례	35
[표 3-5] 먹거리 공급과 유통 영역의 해외 도시 사례	39
[표 3-6] 먹거리 폐기 영역의 해외 도시 사례	42
[표 3-7] 밀라노협약 어워드 수상도시	45
[표 4-1] 거버넌스 영역의 서울시 먹거리정책	55
[표 4-2] 밀라노 협약 거버넌스 실행전략과 서울시 먹거리 거버넌스 관련 정책	56
[표 4-3] 지속가능 식생활과 영양 영역의 서울시 먹거리정책	57
[표 4-4] 사회경제적 형평성 영역의 서울시 먹거리정책	60
[표 4-5] 먹거리 생산 영역의 서울시 먹거리정책	62
[표 4-6] 먹거리 공급과 유통 영역의 서울시 먹거리정책	63
[표 4-7] 먹거리 폐기 영역의 서울시 먹거리정책	64

그림

[그림 1-1] 연구 구성 및 방법	4
[그림 2-1]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구조와 핵심 내용	16
[그림 4-1]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영역별 서울시 먹거리정책(2015~2016년)	51
[그림 4-2] 영역별 정책사업 분포	52
[그림 4-3] 영역별 예산 분포	52
[그림 4-4] 영역별 사업 수와 예산 규모 비교	52
[그림 4-5] 밀라노 먹거리협약 영역별 서울시 먹거리정책 중 기본계획 사업 분포	53
[그림 4-6] 밀라노 협약 영역별 서울시 먹거리정책 중 예산규모 10대 사업 분포	54
[그림 4-7] 예산규모 10대 사업과 예산 비중	54
[그림 4-8]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영역과 실행과제 중 서울시 정책 미흡 분야	65
[그림 4-9]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에 따른 서울시 먹거리정책 특성과 한계	65

01

연구개요

- 1_연구 배경
- 2_연구 목적
- 3_연구 구성과 방법

01 | 연구개요

1_연구 배경

- 2015년 10월 15일 '지구 식량 공급과 생명 에너지'를 주제로 한 밀라노 국제엑스포를 계기로 지속가능한 식량정책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서약하는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Milan Urban Food Policy Pact)]을 채택함.
- 먹거리정책의 공동 원칙과 과제를 담은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에는 2016년 현재 133개 도시가 참여함. 협약은 6개 부문의 37개 실행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음. 협약 사무국은 도시먹거리정책 우수사례를 제시하고 참여한 도시들이 추진한 내용과 경험을 모니터링하여 보고하고 공유하도록 제안함.
- 서울시는 “서울시 먹거리종합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하여 민간자원, 지역사회, 시민과 함께 먹거리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기반을 마련하며, 세계 여러 도시와 먹거리 관련 가치, 정책, 사업 등을 협업 및 공유하기 위해”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에 참여한다고 밝힘.
- 앞으로 서울시는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을 이행하고 이를 보고, 공유해야 함.

2_연구 목적

- 이 연구는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에서 제시하는 먹거리정책 틀과 실행전략에 비추어 서울시의 먹거리정책을 진단하고 특성과 개선사항을 파악하는 것임.
-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광범위한 합의를 통해 도출된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을 서울시 먹거리정책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함. 특히 현재 수립 중인 '서울시 먹거리마스터플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의 내용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에 따라 서울시 먹거리정책을 조명해야만 하는 이유는 식품

안전위생관리가 주요 축이던 서울시 먹거리정책을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로 변모시키고 먹거리정책을 글로벌 스탠더드화하는 데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의 원칙과 내용이 매우 유용하기 때문임.

- 이 과정을 통해 국제사회에 제시할 수 있는 서울시 먹거리정책 브랜드를 발굴하고자 함. 특히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의 권장 사항인 국제적 파트너십을 통한 서울시의 사회책임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3_연구 구성과 방법

1)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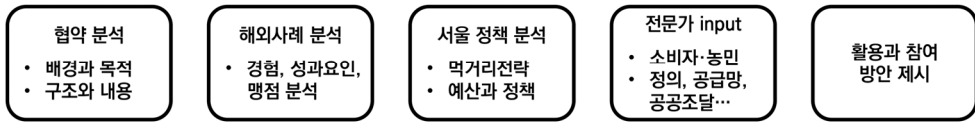
-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의 배경과 목적, 내용을 분석하였음.

2) 해외 도시 먹거리정책 우수사례 분석

-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추진실무단에서 추천하는 도시의 먹거리정책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특징, 성공 요인 등을 분석하여 서울시가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제시함.
- 2015년도 해외 26개 도시의 49개 우수사례, 2016년도 밀라노 먹거리 협약 어워드를 수상한 8개 도시의 8개 사례를 분석하였음.

3)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과 서울시 먹거리정책 비교

-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이 제시한 먹거리정책 틀과 실행전략에 비추어 서울시 먹거리정책을 조명해보고자 함. 이를 통해 서울시 먹거리정책의 특징과 취약 분야, 맹점(blind spot) 등을 파악하였음.
- 이를 위해 서울시가 2015~2016년 동안 ‘시행’ 또는 ‘계획’한 먹거리 관련 정책을 분석 대상으로 함. 분석 자료는 2015년, 2016년 서울시 식품안전과의 ‘서울시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자료(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예산 포함)와 서울시 정보공개자료(<http://www.seoul.go.kr/>)를 활용하였음.



[그림 1-1] 연구 구성 및 방법

02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 1_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배경과 목적
- 2_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현황
- 3_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특징과 의미
- 4_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구조와 내용

02.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1.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배경과 목적

1) 전 세계에 닥친 먹거리 위기와 공동대응의 필요성

- 먹거리로 인한 건강문제가 도시에서 더욱 확산되고 있음. 도시에서 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과 같은 식품 기인성 질환에서부터 잘못된 도시 먹거리 습관으로 발생하는 비만, 비전염성 질환(Non Communicable Diseases, NCD)은 특히 도시 소비자의 주요 사망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도시 소비자의 영양부족과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 세계적으로 먹거리 소비가 공급을 초과하기 시작하면서 먹거리 분배 문제와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문제가 더욱 심각해짐. 이 때문에 식량의 지나친 독점화와 상업화를 경계하고, 글로벌 차원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2) 지속가능한 도시 먹거리 체계 필요성

- 2050년이면 세계인구의 70%가 도시에 거주하게 되고 도시 간 연결성은 증대하며 도시와 농촌의 생태적 연결성 역시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먹거리 생산체계에서 배제되어 가는 도시들은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임. 토지와 자원의 다국적 기업 독점화로 인해 지역의 빈곤과 기아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지는 “No land, No life”, “Fight For Rights, Land And Resources” 먹거리 운동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3)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세계 약 30억 인구가 기아 혹은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음. 이는 세계인구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규모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생산된 식품의 1/3은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음. 한편 약 15억 인구는 영양 과잉이나 불균형으로 비전염성 질환이 급증하고 있으며, 물식품 기인성 질환도 줄지 않고 있음. 그야말로 ‘글로벌 먹거리위기’에 직면한 상태임.

- 먹거리공급과 소비의 균형을 상실한 먹거리위기,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먹거리문제의 확산으로 인해 글로벌 차원의 지속가능먹거리 체계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공조 분위기가 형성되어가고 있음.
- 2차례에 걸친 세계정상급회담(World Summit), 교황의 식량 분배위기 강조, UN/FAO/WHO 등의 국제기구 활동, 유럽 정부들의 지속가능 먹거리정책 노력 등 국제적인 먹거리운동의 성과가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등장의 배경이 되었음.

2_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현황

1) 2015년 10월 15일 밀라노 국제엑스포에서 협약 채택

- 2014년 2월 밀라노시장(Giuliano Pisapia)은 C40 시장단 정상회의(the Summit of the C40 Cities)에서 도시먹거리협약을 2015년 밀라노 국제엑스포를 계기로 채택할 것을 제안함.
- 2014년 7월, 밀라노시와 이탈리아 비영리단체인 카리플로재단(Fondazione Cariplo)은 도시먹거리정책에 관한 혁신적인 5개년 사업 개발을 목표로 협약에 서명함.
- 2014년 9월부터 밀라노시와 46개 도시는 구체적인 도시먹거리정책 내용에 대한 협의를 시작함. 2015년 2월 런던 회의에서 그동안의 논의를 토대로 도시먹거리정책 협약의 기준과 지표 등을 협의함.
-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지구 식량 공급, 생명 에너지(Feeding the Planet, Energy for Life)’를 주제로 ‘2015 밀라노 국제엑스포’가 열림.
- 2015년 10월 15일 100개 도시가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Milan Urban Food Policy Pact)’에 서약함.
- EU·FAO·WHO 등 국제기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 2015년 10월 16일 서약한 협약서를 UN 사무총장에 제출함.
- 서울시는 2015년 10월 초 내부 논의를 거쳐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에 참여하기로 결정함.
- 2016년 2차 시장 정상회의 개최,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우수사례 선정 및 모니터 링체계 도입을 논의함.

2) 참여 규모

- 런던, 뉴욕, 토론토, 파리 등 세계 133개 도시가 참여함(2016년 10월 현재).



[표 2-1] 협약 가입 도시

연번	도시명	국가명	연번	도시명	국가명	연번	도시명	국가명
1	겐트	벨기에	46	밀라노	이탈리아	91	엔자메나	차드공화국
2	과테말라시티	과테말라	47	바르샤바	폴란드	92	여수	한국
3	광저우	중국	48	바르셀로나	스페인	93	오비에도	스페인
4	교토	일본	49	바리	이탈리아	94	오사카	일본
5	구아룰류스	브라질	50	바젤	스위스	95	오스틴	미국
6	그르노블	프랑스	51	반줄	감비아	96	요하네스버그	남아공
7	나이로비	케냐	52	발렌시아	스페인	97	우디네	이탈리아
8	낭트	프랑스	53	버밍엄	영국	98	위트레흐트	네덜란드
9	누악쇼트	모리타니아	54	베네치아	이탈리아	99	자그레브	크로아티아
10	뉴욕	미국	55	베를레헴	이스라엘	100	제네바	스위스
11	니아메	니제르	56	베를린	독일	101	제노아	이탈리아
12	다카르	세네갈	57	베이징	중국	102	찬차마요	페루
13	대구	한국	58	밴쿠버	캐나다	103	충칭	중국
14	도야마	일본	59	벨루오리존치	브라질	104	취리히	스위스
15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60	보고타	콜롬비아	105	카르마르카	아르헨티나
16	두알라	카메룬	61	보르도	프랑스	106	카타니아	이탈리아
17	라스팔마스	스페인	62	볼로냐	이탈리아	107	칼리아리	이탈리아
18	라스훈타스	아르헨티나	63	볼티모어	미국	108	코르도바	아르헨티나
19	라파스	볼리비아	64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109	코펜하겐	덴마크
20	런던	영국	65	부쿠레슈티	루마니아	110	콜롬보	스리랑카
21	로마	이탈리아	66	브라자빌	콩고공화국	111	콰르도	소말리아
22	로테르담	네덜란드	67	브뤼셀	벨기에	112	퀵른	독일
23	로프트알레그리	브라질	68	브뤼헤	벨기에	113	쿠리치바	브라질
24	루가노	이탈리아	69	비아누에바데라카냐나	스페인	114	퀴토	에콰도르
25	루사카	잠비아	70	비엔나	오스트리아	115	테구시갈파	온두라스
26	루안다	앙골라	71	빈트후크	나미비아	116	테살로니키	그리스
27	류블랴나	슬로베니아	72	빌바오	스페인	117	텔아비브	이스라엘
28	리가	라트비아	73	사라고사	스페인	118	토론토	캐나다
29	리옹	프랑스	74	사칠레	이탈리아	119	토리노	이탈리아
30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	75	상파울루	브라질	120	튀니스	튀니지
31	마드리드	스페인	76	상하이	중국	121	티라나	알바니아
32	마르델플라타	아르헨티나	77	서울	한국	122	파르마	이탈리아
33	마르세유	프랑스	78	샌프란시스코	미국	123	파리	프랑스
34	마이애미	미국	79	수크레	볼리비아	124	팔레르모	이탈리아
35	마푸토	모잠비크	80	스헤르토헨보스	네덜란드	125	팜플로나	스페인
36	말라가	스페인	81	시카고	미국	126	포자	이탈리아
37	매델린	콜롬비아	82	아루샤	탄자니아	127	프라이아	카보베르데
38	멕시코시티	멕시코	83	아비장	코트디부아르	128	프랑크푸르트	독일
39	멘도사	아르헨티나	84	아스타나	카자흐스탄	129	플로렌스	이탈리아
40	멜버른	호주	85	아테네	그리스	130	피츠버그	미국
41	모데나	이탈리아	86	안코나	이탈리아	131	합살루	에스토니아
42	모스크바	러시아	87	알메르	네덜란드	132	헤이그	네덜란드
43	몬트리올	캐나다	88	알제	알제리	133	히브론	이스라엘
44	몰페타	이탈리아	89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45	몽펠리에	프랑스	90	아운데	카메룬			

[표 2-2] 협약 가입 도시의 지역적 분포

지역	국가	도시
아프리카(20)	감비아	반줄
	나미비아	빈트후크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니제르	니아메
	모리타니아	누악쇼트
	모잠비크	마푸토
	세네갈	다카르
	소말리아	콰르도
	알제리	알제
	앙골라	루안다
	잠비아	루사카
	차드공화국	엔자메나
	카메룬	두알라, 야운데
	카보베르데	프라이아
	케냐	나이로비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콩고공화국	브라자빌
	탄자니아	아루샤
	튀니지	튀니스
유럽(65)	그리스	아테네, 테살로니키
	네덜란드	로테르담, 스테르토헨보스, 위트레흐트, 헤이그, 알메르, 암스테르담
	덴마크	코펜하겐
	독일	베를린, 쾰른, 프랑크푸르트
	라트비아	리가
	러시아	모스크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벨기에	겐트, 브뤼셀, 브뤼헤
	스위스	바젤, 제네바, 취리히
	스페인	라스팔마스, 마드리드, 말라가,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비야누에바데라카냐다, 빌바오, 사라고사, 오비에도, 팜플로나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알바니아	티라나
	에스토니아	합살루
	영국	런던, 버밍엄
	오스트리아	비엔나
	이탈리아	로마, 루가노, 모데나, 몰페타, 밀라노, 바리, 베네치아, 볼로냐, 사칠레, 안코나, 우디네, 제노아, 카타니아, 칼리ारी, 토리노, 파르마, 팔레르모, 포자, 플로렌스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폴란드	바르샤바
	프랑스	그르노블, 낭트, 리옹, 마르세유, 몽펠리에, 보르도, 파리

[표 2-2 계속] 협약 가입 도시의 지역적 분포

지역	국가	도시
북미(11)	멕시코	멕시코시티
	미국	뉴욕, 마이애미, 볼티모어,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오스틴, 피츠버그
	캐나다	몬트리올, 밴쿠버, 토론토
아시아(16)	스리랑카	콜롬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이스라엘	히브론, 베들레헴, 텔아비브
	일본	교토, 도야마, 오사카
	중국	광저우, 베이징, 상하이, 충칭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한국	대구, 서울, 여수
중남미(20)	고테말라	고테말라시티
	볼리비아	라파스, 수크레
	브라질	구아룰루스, 로프트알레그리, 리우데자네이루, 벨루오리존치, 상파울루, 쿠리치바
	아르헨티나	멘도사, 부에노스아이레스, 라스훈타스, 마르델플라타, 카르마르카, 코르도바
	에콰도르	QUITO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콜롬비아	메델린, 보고타
	페루	치차마요
오세아니아(1)	호주	멜버른

3) 주요 프로그램

○ 밀라노 먹거리협약 어워드(Milan Pact Award)

- 밀라노 먹거리협약 어워드는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MUFPP) 참여 도시들의 협약 실행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밀라노 먹거리협약 어워드는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을 통해 먹거리정책 발전 단계와 상황이 각기 다른 도시들이 상호 지지하고 사례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모니터링 체계 개발 및 시범사업

-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사무국은 협약 이행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로의 개선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개발하고 있으며, 협약 이행 과정과 성과를 측정할 지표 개발에는 밀라노시와 국제식량농업기구(FAO)가 참여하고 있음.

- 지표체계와 정량화가 가능한 목표를 담은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개발은 2016년 3월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2016년 11월부터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적용할 시범도시 접수를 받음.

4) 추진체계

-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의 거버넌스 체계는 운영위원회(MUFPP Steering Committee)와 협약 가입 도시들의 총회(the Assembly of signatory cities)이며, 11개 도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초위원회가 있음.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거버넌스는 비공식적인 규정에 기초하며, 운영위원회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 운영위원회
 -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년 임기로 총회에서 세계 6개 지역의 균형 있는 분포를 고려하여 선출됨.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함.
 - 운영위원회는 파트너십, 네트워크와의 협력, 협약 어워드와 내부 규칙 등에 대해 의결하며 다수결 투표로 결정함. 위원장과 위원들의 활동은 밀라노에 본사를 둔 사무국에서 지원함.
- 기초위원회
 - 2016년 4월 11개 도시(볼티모어, 벨루오리존치, 베를레헴, 다카르, 두알라, 메델린, 밀라노, 스테르토헨보스, 상파울루, 텔아비브, 토리노)가 자발적으로 기초위원회(the Drafting Committee)를 구성하였으며, 첫 번째 회의에서 향후 시행될 거버넌스 유형을 설계하였음.
- 사무국(Secretariat)
 -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사무국은 밀라노 시장실에 있으며, 협약 가입 도시 간의 연결과 협약 가입에 관심 있는 도시, 협력 파트너와 네트워크 간의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
- 총회에서는 운영위원과 총회 개최 도시를 결정함.

5) 이니셔티브와 파트너십

- 도시 간 최대 규모의 국제 의정서인 협약에는 국제기구가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음. 밀라노시가 일종의 의장 도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요 협의 과정에서는 유럽 도시들이 주도하는 경향임.
- 이탈리아(밀라노), 벨기에(겐트), 네덜란드(암스테르담), 프랑스(파리), 미국(뉴욕), 캐나다(토론토), 브라질(쿠리치바) 등

[표 2-3]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운영위원회(2016년~2018년)

아프리카	유럽	라틴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서남아시아
아비장(Abidjan) 다카르(Dakar) 나이로비(Nairobi)	아테네(Athens) 밀라노(Milan) 발렌시아(Valencia)	벨루오리존치 (Belo Horizonte) 부에노스아이레스 (Buenos Aires) 상파울루 (Sao Paulo)	볼티모어(Baltimore) 토론토(Toronto)	아스타나(Astana) 텔아비브(Tel Aviv)

3_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특징과 의미

1) 특징

- 규범적 선언을 넘는 먹거리정책들
 -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은 먹거리정책과 관련한 최초의 국제 의정서로서 규범적 선언을 넘어 도시먹거리정책의 구조적 틀과 통합적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과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은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Rio+20)를 통해 UN 사무총장이 제안한 “The Zero Hunger Challenge”, 즉 모든 시민의 배고픔을 없애고, 모든 형태의 영양 결핍을 없애고,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을 만들자는 먹거리에 대한 비전을 함께 하고 있음.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은 2015년 9월 유엔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위

한 2030 의제를 위한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를 기반으로 함. 17개 목표 중 “제2 목표: 배고픔 종식, 먹거리 보장과 나은 영양 상태의 달성, 지속가능한 농업의 증진(Goal 2: 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을 도시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먹거리정책의 전략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이라고 볼 수 있음.

○ 먹거리정책 개념의 제시

-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은 먹거리정책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지속가능 먹거리 체계(sustainable food system)와 지속가능 식생활(sustainable diet)에 대한 정책적 개념을 정의, 제시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란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고 안전하고 다양한 먹거리 체계, 인권에 기초하여 모든 시민에게 제공되는 건강하고 적절한 가격의 먹거리 체계, 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응하는 동시에 이를 완화시키면서 낭비를 최소화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먹거리 체계를 말함(FAO, Milan Pact).
- 지속가능 식생활이란 건강하고 안전하며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환경적으로 친화적이며 인권에 기반한(healthy, safe, culturally appropriate,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rights-based) 식생활을 말함.

○ 활용도 높은 먹거리정책 실행전략

-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은 도시먹거리정책에 대한 합의적 협약문(Milan Urban Food Policy Pact), 실행을 위한 도시먹거리정책 프레임(Urban Food Policy Framework for Action), 밀라노 도시먹거리정책 협약 우수 도시 사례(Milan Urban Food Policy Pact. Selected Good Practices from Cities) 등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해 협약 가입 도시들이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 6개 영역 37개 전략과제, 45개 Good practices

- [실행을 위한 도시먹거리정책 프레임]은 특히 먹거리정책 거버넌스, 지속가능 식생활과 영양, 사회경제적 형평성, 먹거리 생산, 먹거리 공급과 유통, 먹거리 폐기 등 모두 6개 영역 37개 분야의 권장 실행과제로 구성되어 일종의

먹거리정책을 위한 지침이자 체크리스트로서 활용할 수 있음.

- 지역·국가·글로벌 조화와 협력을 위한 먹거리정책의 국제 표준화
 -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은 도시먹거리정책의 국제적 표준화, 지역·국가·글로벌 먹거리정책의 일관성을 피하고자 하였음.
- 협치를 위한 주요 행위자 제시
 - 먹거리정책에 있어서 협치를 강조하고 부문 간 협력체계(inter-sectoral collaboration) 유형을 제시하고 있음. 특히 먹거리정책의 계획, 실행, 평가에 참여할 주요 행위자(actors)를 제시하고 있어 참고할 만함.
- 도시 간 네트워킹 플랫폼
 -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은 먹거리정책을 내용으로 한 도시 간 협력네트워킹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개도국 도시들의 참여와 선진국 도시들의 사회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

2) 정책적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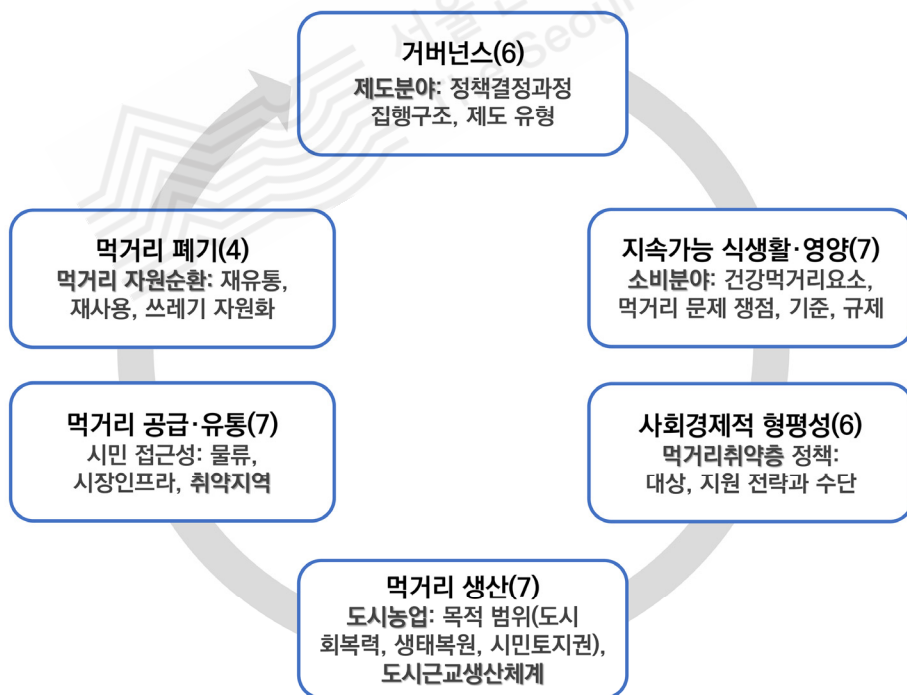
- 먹거리 공공성 강조, 정책적 개입 근거와 영역 제시
 -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은 먹거리에 대한 시민의 권리(right to food)를 넘어 모든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healthy and safe food for all)를 강조하고 있음. 이는 먹거리에 대한 공공성을 강조하고 먹거리 기본권과 먹거리 정의(형평성)를 위한 정책적 개입 당위성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 먹거리정책의 목표 제시
 -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은 먹거리 보장에 초점을 두고, 배고픔과 비만에 대응하고, 먹거리 낭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실행계획을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특히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은 도시먹거리정책의 세 가지 목표인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시민의 권리(the right to healthy and safe food for all) 확보, 모든 시민의 건강한 영양(Healthy nutrition), 먹거리

낭비를 피하기 위한 자원관리를 강조하고 있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시민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가용성(availability)과 접근성(accessability)이 보장되어야 함.

- 그 밖에 철저한 지역 이니셔티브와 시민사회단체 주도를 강조하고 있으며, 먹거리 취약층, 취약지역 해소 방안 등 먹거리 정의에 가치 기반을 두고 있음. 건강, 환경, 경제정책 등 통합과 연계를 강조하고 대안먹거리 산업, 순환 먹거리(생산, 분배, 소비) 체계, 먹거리 취약층 운영 마켓, 공공상점, 취약지역 도시농업 단지화, 쓰레기처리장 농지 활용 등을 제안하고 있음.

4_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구조와 내용

1) 협약의 구조와 핵심 내용



[그림 2-1]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구조와 핵심 내용

(1)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번역문 전문)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도시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sustainable urban food system)를 발전시키고 건강한 식생활을 증진해야 할 전략적 역할을 갖고 있음을 확인한다. 왜냐하면 모든 도시는 서로 다르고, 경제적·정치적·문화적 혁신의 중심지이며, 광대한 공공자원, 인프라, 투자 및 전문지식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먹거리체계는 적절하고 안전하고 지역적이고 다양하고 공정하고 건강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모든 사람에게 영속적이고 믿을만하게 보장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처럼 도시를 먹여 살리는 일은 불균형적인 분배와 접근, 환경악화, 자원의 희소성과 기후변화, 지속가능하지 못한 생산과 소비 패턴, 먹거리 손실과 폐기물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가속화되고 있는 도시화가 경제, 사회, 환경적 차원에서 전 세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한다. 그래서 도시가 여타 필수재와 서비스뿐만 아니라 먹거리와 물을 공급하는 방법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기아와 영양실조가 모든 도시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개인의 건강과 웰빙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는 가구, 지역사회, 지자체, 국가 수준에서 커다란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창출하고 있다. 가족농과 소농(특히 많은 국가에서는 여성)이 도시와 지역을 먹여 살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이들은 회복력 있고 공정하며 문화적으로 적절한 먹거리 체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위해 먹거리 체계와 가치사슬의 방향성을 재설정하는 것은 농촌과 도시의 생산자들과 소비자를 서로 연결하는 수단임을 인정한다.

도시농업과 근교농업이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이를 도시지역 경관과 먹거리 체계로 통합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는 먹거리 보장 및 영양 보장, 생태계 서비스와 인간의 웰빙을 넘나드는 시너지 효과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먹거리정책은 빈곤, 건강, 사회보장, 위생, 토지이용계획, 교통, 상업, 에너지, 교육, 재난대비 등의 여러 도시문제 및 정책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포괄적이고 학제적이며 기관 간 접근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확인한다.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이 도시를 먹여 살리고, 더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위한 경험 혁신캠페인을 활용하며, 도시 먹거리정책에 있어 사회 포용적이고 인권 기반의 접근방식을 주류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확인한다.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도시가 기여해 왔음을 상기한다(가령, 글로벌도시 기후협약(Global Cities Covenant on Climate), 세계시장협약(Global Compact of Mayors), 대륙 수준의 시장협약(Covenant of Mayors) 등). 그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을 경감시키고 기후변화가 도시 먹거리 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도시의 적응을 위한 전략과 실천을 증진하고(가령, 세계도시 포럼(World Urban Forum),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유엔 해비타트 III 회의), 생물 다양성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생물다양성 협약의 일환인 도시 생물 다양성 이니셔티브)들이 그것이다.

도시 및 인접 지역은 포스트-2015 개발어젠다로서의 지속가능 개발목표(SDG) 같은 국제적 프로세스를 제도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이는 향후 협상이 진행될 유엔 기후변화회의(COP21)에서 다루어질 것이며, 유엔의 기아제로 프로그램(Zero Hunger Challenge)에도 기여하며, 제2차 유엔 국제영양 회의에서도 지속가능한 도시의 식생활을 다룰 것이고, 포스트-2015 재난위험 경감계획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 서약문

지금 우리는 여기 밀라노 엑스포가 열리는 밀라노에 모여 다음을 서약한다.

우리 시장들과 지방정부 대표단은 도시먹거리정책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다음의 내용을 따를 것이다.

- 우리는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고 안전하고 다양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일할 것이다. 이는 인권에 기초하여 건강하고 적당한 가격의 먹거리를 모든 주민들에게 제공하며, 먹거리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면서도 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응하는 동시에 이를 완화시킬 것이다.
- 우리는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 수준에서 부서 간, 부문 간 조정을 장려함으로써, 도시먹거리정책·사업의 내용을 사회·경제·환경정책에 통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는 먹거리 공급과 유통, 사회보장, 영양, 형평성, 먹거리 생산, 교육, 식품안전, 먹거리 낭비 저감 등이다.
- 우리는 지방정부의 먹거리 관련 정책·사업을 이와 관련되는 광역, 국가, 대륙, 국제적 정책 및 프로세스와 부합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 우리는 먹거리 관련 모든 정책·사업의 구상, 시행, 평가 시에 먹거리 체계 내의 모든 부문(인접 지방정부, 기술단체 및 학술단체, 시민사회, 소농, 민간부문 등)을 참여시킬 것이다.
- 우리는 공정하고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의 확립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의 도시 정책, 계획, 규제를 재검토하여 개정할 것이다.
- 우리는 실천계획(Framework for Action)을 출발점으로 삼아 각 도시들이 자신의 도시먹거리 체계를 발전시키도록 할 것이며, 필요하면 협약참여 도시, 중앙정부, 국제기구들과 발전상황을 공유할 것이다.
- 우리는 다른 도시들도 우리의 먹거리정책 실천에 참여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2) 협약의 실행체계

-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실행체계는 모두 6개 영역의 3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거버넌스 영역은 현장과 시민 중심의 먹거리 거버넌스, 효과적 실행체계, 먹거리 기본계획, 먹거리 정보시스템, 위기대응체계 등을 강조하고 있음.
- 지속가능 식생활과 영양 영역에서는 비전염성 질환(NCD) 예방에 주목하고, 건강과 먹거리 부문의 공동대응을 강조하고 있음.
- 사회경제적 형평성 영역은 취약층의 먹거리 지원과 공공급식서비스 증대, 먹거리·농업부문 고용증진 등을 강조하고 있음.
- 먹거리 생산 영역은 도시회복력과 먹거리 생산 계획의 연계, 이를 위한 도시·근교 농업 활성화가 핵심임.
- 먹거리 공급과 유통 영역은 먹거리 취약층의 접근성, 지속가능한 물류시스템, 소비자·근교판매자가 연계된 시장, 공공조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먹거리 폐기 영역은 먹거리의 손실·낭비 통합계획, 정책·규제·민간협력 등이 핵심임.

[표 2-4]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실행체계

영역	주요 정책의제	실행과제
거버넌스	- 효과적 실행 보장 - 먹거리정책, 계획	- 부처 간 협력 먹거리 체계 - 이해관계자 참여 증진(위원회) - 도시 먹거리 계획, 정책발전 - 지역 주도, 시민사회 먹거리 운동 - 다부문 먹거리 정보시스템 개발 - 재난위험 경감 전략 개발
지속가능 식생활과 영양	- 비전염성 질환 - 건강과 먹거리 부문 공동대응	- 지속가능한 식생활 증진 - 영양부족, 비만 등 비전염성 질환(NCD) - 지속가능 식생활 지침 개발 - 공공시설의 지속가능 먹거리, 식수 접근성 규제 - 경제적 인센티브와 자발적 수단 검토 - 보건과 먹거리 부문 통합 전략 - 안전한 식수와 위생 보편적 접근성 제고
사회경제적 형평성	- 먹거리 지원 - 공공급식서비스와 고용증진	- 취약층의 건강먹거리 접근성(인권) -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정책 방향 검토 - 여성 등 먹거리와 농업부문 고용증진 - 취약층 중심 사회 연대 경제 활동 장려 - 텃밭, 키친 등 풀뿌리 지역공동체 지원 - 참여형 교육, 훈련, 연구 장려
먹거리 생산	- 도시회복력 계획에 포함 - 도시농업, 근교농업 먹거리 생산	- 근교 먹거리 생산과 가공 증진 - 먹거리 생산에 소농, 가족농, 여성, 청년 강조 - 생태적 토지이용 접근 - 농지에 대한 안정적 접근과 이용권 보호 - 먹거리 생산자에 기술, 재정지원 등 서비스 제공 - 짧은 먹거리 유통망 지원 - 농수 관리와 재활용
먹거리 공급·유통	- 접근성 중심 지속가능 유통/물류 - 도시근교 농촌 먹거리 가공 등 산업 지원	- 먹거리 흐름 평가, 취약층 접근성, 지속가능 물류 - 먹거리 저장, 가공, 운송, 유통 기술 인프라 지원 - 먹거리 관리체계 평가, 재검토, 강화 - 공공조달과 무역 정책 검토 - 공공시장 지원 정책과 사업 - 도시 소비자, 근교판매자 연계 시장시스템 - 일자리, 전통 식문화, 환경 등 기여
먹거리 폐기	- 손실과 낭비 감소 - 재생, 재유통 촉진	- 먹거리 손실, 낭비 평가 등 통합계획 - 사회인식 전환 - 정책·규제 개발 및 민간부문 협력 - 안전 영양 식품의 재생, 재유통

03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의 주요 도시 사례

- 1_2015년 도시먹거리정책 우수사례
- 2_2016년 밀라노 먹거리협약 어워드 도시

03.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의 주요 도시 사례

1_2015년 도시먹거리정책 우수사례

1) 우수사례 제안 취지

-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사무국은 2015년 모두 45개 도시먹거리정책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음. 중요성 면에서 모든 도시의 사례가 동등하지만, 협약 실행전략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히고 있으며, 특히 다음 세 가지 취지를 덧붙여 설명하고 있음.
- 첫째, 여러 도시(전 세계 대도시권과 다양한 크기의 도시권을 포함)에서 추진 중인 먹거리정책과 사업의 범위를 보여주기 위함임.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과 실행전략은 이러한 도시 사례를 바탕으로 도출됨.
- 둘째, 시장들과 공무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우수사례 목록을 제공하기 위함임. 자세한 세부내용과 따라 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자 했음. 먹거리정책의 개발을 이제 막 시작한 도시들이나 기존의 먹거리정책을 확대하려는 도시들이 개별 사례나 여러 사례들로부터 영감을 얻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변용하도록 하는 것임.
- 셋째, 각 도시의 경험은 도시먹거리정책 실행에 필요한 실천적 지침이 될 것임.
- 많은 도시들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장애 등을 극복하는 방법, 먹거리정책의 맹점(blind spots), 개별 도시와 도시권의 새로운 트렌드, 미래에 주력할 영역에 대한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자 함.

2) 도시별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1) 거버넌스

- 거버넌스 사례들은 정책 결정 구조, 정책집행체계 그리고 정책 유형 등 정책 결정 구조에 있어 계획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이 어떻게 주도하였는지(밀라노), 먹거리 체계 행위자의 참여 중시, 소비자·산업체 등의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토론토) 등의 전략이 제시되고 있음.

[표 3-1] 거버넌스(효과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보장) 영역의 해외 도시 사례

도시명	국가명	주요 사업내용	시사점
밀라노	이탈리아	도시먹거리정책 개발에 대한 참여적 접근법	시민 주도, 이해관계자 참여
몽펠리에	프랑스	정책형성을 위한 연대: 정책결정자들과 연구자들의 파트너십	자치구, 마을 공동 정책목표 설정 및 추진
겐트	벨기에	기후변화 정책과 먹거리정책 통합, 정책위원회의 설립	다부문, 이해관계자 조율 내부작업반
토리노	이탈리아	먹거리 대도시권을 위한 사업	지역 사례 발굴 및 확산
토론토	캐나다	먹거리정책위원회와 먹거리 전략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및 민관, 도농 연결 통합먹거리정책 추진
뉴욕	미국	영양기준과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 조달의 통합	다부처 통합 먹거리정책, 규제 개발, 도농 공동이해 증진
알메러	네덜란드	상향식 도시계획과 먹거리정책 통합	시민 창의성 주도 건축, 농지, 농업 방식 선택
멜버른	호주	먹거리 도시(Food City) 멜버른시의 먹거리정책	지역공동체 주도 먹거리 보장 도시, 지역 먹거리 경제 발전 추진
벨루오리존치	브라질	지속가능 먹거리영양보장 정보센터	먹거리 보장 목표의 직거래, 장터, 시민식당, 대안유통경로 등 연결
빈드후크	나미비아	도시 간 먹거리 보장 정책 협력 및 지식교환	벨루오리존치(브라질)와 협약 체결

○ 먹거리정책 개발의 참여적 접근법 - 밀라노(이탈리아)

- 특징: 밀라노의 먹거리정책 채택 과정은 먹거리 체계 분석 후 시민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의견 수렴을 거쳐 정책 주제와 우선순위 선정, 이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토론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기업, 지역

공동체, 국제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먹거리정책을 수립함.

- 시사점: 모든 과정은 밀라노시 정부 및 시장실의 주도와 조율에 의해 진행되며, 시민사회단체, 자치구, 기업, 스타트업, 외국인 공동체, 대학, 연구자, 국제전문가들이 참여함. 이런 노력을 통해 밀라노 먹거리정책이 설계, 개발, 실행될 수 있었고, 효율적인 먹거리정책 설계가 가능하였음.
- 정책형성을 위한 연대 - 몽펠리에(프랑스)
 - 특징: 2014년 몽펠리에 대도시권은 인근 31개 도시, 마을과 공동으로 먹거리정책을 개발하기로 함. 공통 의제를 중심으로 지자체들을 결집, 목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냄.
 - 시사점: 대도시권이 여러 도시와 공동으로 먹거리정책을 개발하였고 연대를 위해 도시 간 협력에 필요한 공동의 목적과 비전을 정립하였다는 것이 주요 시사점임. 또한 먼저 공동의 목적을 정립하고 난 후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다분야 연구팀과 파트너십을 맺었음.
- 기후변화정책과 먹거리정책의 통합 - 겐트(벨기에)
 - 특징: 겐트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정책은 2050년까지 기후변화 중립 도시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된 요소임. 겐트시의 먹거리정책은 공급망 단축과 투명성 향상, 먹거리 생산·소비의 지속가능성 향상, 먹거리 이니셔티브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조, 음식물쓰레기 감소와 재사용 능력 극대화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 시사점: 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한 겐트의 먹거리정책위원회, 시 내부작업반, 이해관계자 집단으로 이루어진 정책추진체계는 먹거리정책의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먹거리 관련 정책 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부서 간 다양한 입장과 정책을 조율하는 내부작업반 역할은 매우 중요함.
- 메트로 도시의 먹거리정책 - 토리노(이탈리아)
 - 특징: 2015년 3월 토리노시와 대도시권(metropolis)은 “Nutrire Torino Metropolitana”라는 프로젝트를 출범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를 결집하는 참여 과정을 설계하기 위해 3번의 세미나를 개최함. 이를 통해 먹거리 체계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에 기여하는 지역의 사례들을 식별하여 토리노 대도시권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함.

- 시사점: 지역의 실제 사례를 토대로 하여 이를 대도시권으로 확대하는 접근법을 사용, 실제 사례의 확대가 가능함을 보여줌. 이 과정을 통해 먹거리 품질 및 접근성, 여러 부문과 이해관계자들을 아우르는 프레임워크의 필요성, 문화의 중요성 사이의 연결고리가 부각된 사례임.
- 먹거리정책위원회와 먹거리 전략 - 토론토(캐나다)
 - 특징: 1991년에 출범한 토론토 먹거리정책위원회(TFPC)는 농민, 소매업체 대표, 지역사회 활동가, 연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로, 먹거리정책에 관해 시 당국에 조언을 제공하고 이해관계자 간 대화를 촉진하는 등을 목적으로 함. 이 위원회는 정부, 시민사회, 민간부문을 아우르고 농촌과 도시 행위자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제도적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임.
 - 시사점: 정부와 민간부문,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포괄적인 먹거리정책을 통해 도시에서의 먹거리 생산과 농촌 먹거리 생산을 통합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해 먹거리 전략팀을 구성하고, 의료인, 교육자, 시민사회 활동가, 공무원 등 폭넓은 범주의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제도를 정착시켰음.
- 지역 건강먹거리 조달의 통합 - 뉴욕(미국)
 - 특징: 2008년 시행된 뉴욕시 식품 기준(NYC Food Standards)은 시 소속 기관과 시 부지의 자판기, 병원 구내식당 등에 적용되는 증거 기반의 영양 기준으로 식사나 간식에 대한 높은 수준의 영양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또한 2011년 시 소속기관과 조직들이 뉴욕산 식재료와 가공식품을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조례를 통과시켜(지역조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 시사점: 트랜스지방, 소금, 당 등 증거 기반의 영양 기준을 개발하여 도시 내 기관 등 적용 가능한 범위를 찾아 적용하였으며, 뉴욕산 로컬푸드 구매 시 가격 우대 등으로 뉴욕산 로컬푸드 사용을 장려하는 실천사례를 정립하였음. 조례 제정, 법규화와 자발적인 실천까지 통합적으로 접근하였음.

○ 상향식 도시계획과 먹거리정책 통합 - 알메러(네덜란드)

- 특징: 알메러시의 우스터월드 지역에서 진행되는 자가건축 및 상향식 도시계획으로 최소한의 규칙하에 주민들이 협력을 통해 직접 개발하고 참여하는 상향식 접근법을 통해 사람들의 창의력이 발휘되고 건조농업과 녹지 간에 적절한 균형이 맞춰질 것이라 기대되고 있음.
- 시사점: 관할 지자체인 알메러와 지볼데가 수십 년간 지역의 생활환경, 직장 환경 등의 결정에 참여를 유도해왔으며 그 결과 시민 주도의 상향식 도시계획을 실천할 수 있었음. 시민 주도로 결정하되, 도시개발 설계에 관여하며 시민들의 창의력을 활용하는 사례임.

○ 먹거리도시(Food City) 멜버른 구축 - 멜버른(호주)

- 특징: 멜버른의 먹거리정책은 먹거리 보장이 되는 튼튼한 공동체, 모두를 위한 건강한 먹거리 선택,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먹거리 체계, 반영하는 지역 먹거리 경제, 먹거리를 즐기는 도시의 5개 테마로 구성됨. 멜버른 시의회는 'Food City'를 채택했음. Food City는 멜버른시의 먹거리 체계 향상을 위한 행동과 의사결정을 이끄는 전체적인 비전과 프레임워크를 제공함.
- 시사점: 2011년 식품의 도시 멜버른의 먹거리정책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어, 계획단계에서 공동체를 참여시키고 의견수렴과 소통계획을 포함시켜 추진하였음. 지역사회 참여가 종합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먹거리 체계 개선을 위한 행동이 기획될 수 있었음.

○ 지속가능 먹거리·영양·보장 정보센터 - 벨루오리존치(브라질)

- 특징: 1993년 벨루오리존치는 먹거리·영양·보장 담당관직을 신설하여 먹거리 공급·생산·소비 간의 연결성을 향상시키는 먹거리 보장 정책을 추진함. 2015년에는 먹거리정책의 개발과 통합 증진을 위해 관련 정보, 지식, 법적 도구들을 하나로 결집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영양·보장 정보센터'¹⁾를 설립함.
- 시사점: 도시 먹거리 보장과 영양 보장을 목표로, 농촌 직거래, 도농 연결,

¹⁾ Reference Centre for Sustainable Food and Nutrition Security

농민 장터, 시민식당 지원, 학교급식 프로그램, 취약계층 지원과 함께 식생활교육, 대안 유통경로 마련 등 다각도의 방안을 실행함. 도시 내 유기적인 연결과 협력을 조율하는 담당관의 역할이 성과를 거두는 데 기여함.

○ 도시 간 먹거리 보장 정책 협력 및 지식교환 - 빈드후크(나미비아)

- 특징: 브라질 벨루오리존치와 나미비아 여러 도시들 간의 지식교환을 통해 먹거리영양 보장 프로그램이 출범함. 벨루오리존치 견학, 실무 워크숍, 실무자 교환 등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양국 간의 협력협약 체결, 푸드뱅크 설립, 정책 및 프로그램 실행 등이 이루어짐.
- 시사점: 먹거리 보장을 위한 지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시 차원의 행동에 있어서 시장의 지원이 핵심이지만, 시의 관련 부서 실무자 참여가 사업 이행에 매우 중요함. 먹거리 보장 사업 프로그램의 진전을 주도하는 태스크포스의 역할을 통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임.

(2) 지속가능 식생활과 영양

[표 3-2] 지속가능 식생활과 영양 영역의 해외 도시 사례

도시명	국가명	주요 사업내용	시사점
겐트	벨기에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의 식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체 기반 개입	지역사회 기반 전략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상하이	중국	먹거리 이력 정보 관리 시스템	다각도의 소비자 먹거리 안전방안 마련 및 소비자 먹거리 안전 확보
대구	한국	식생활교육	식품선택, 안전식품에 대한 인식 제고
밀라노	이탈리아	학교와 기타 공공기관에서의 공동급식 : Milano Ristorazione 사례	공기업을 통한 건강 증진 실천 및 시민 참여 증진
토리노	이탈리아	학교식당을 위한 공공조달	아동 영양개선, 건강과 생태 통합 교육 기회 제공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겐트	벨기에	채소 먹는 목요일(Veggie Thursday)	시민참여 증가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비만, 비전염성 질환과의 싸움	공공건물 디자인 개선, 연구소 설립 및 다부문 협력 유도 통한 비만아동 수 감소
뉴욕	미국	과일채소 등 건강한 먹거리 소비 진흥	건강한 먹거리 선택기회 증진
메데인	콜롬비아	먹거리 불안정 위험 노년층에 대한 통합적 접근법	시민단체와 시의 협력을 통한 통합적 운영

- 취약, 사회 소외계층 위한 지속가능한 식생활 - 겐트(벨기에)
 - 특징: 겐트는 건강한 아침 식사 제공, 건강한 도시락 장려, 리셉션과 파티 지원, 푸드뱅크에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 제공, 사회적 식당과 식품점 설립, 스스로 먹거리를 재배하도록 도시농업활동 상호 연계 등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더 쉽게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건강한 먹거리가 보편적인 행동이 되게 한다는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음.
 - 시사점: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건강한 먹거리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전략을 구축함. 또한 각 부문 구성원들의 파트너십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을 이끌어 성과를 도출하였음.
- 먹거리 이력 정보 관리 시스템 - 상하이(중국)
 - 특징: 상하이시는 2015년 방대한 양의 먹거리 유통정보를 관리하고, 식품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하이 식품안전정보 추적관리 규제 프로그램'을 구축 및 가동함.
 - 시사점: 먹거리 이력 추적관리체계에 필수적인 기업의 식품정보 제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등 규제와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한 식품안전신용시스템 구축 등 소비자 먹거리 안전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여 실제적인 소비자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였음.
- 식생활교육 - 대구(한국)
 - 특징: 대구시는 2014년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초·중·고 학생들에게 식생활교육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출범함. 교육의 주요 내용은 에너지자원 사용 감소, 한식 소비 촉진, 자연과 인간 존중 등임.
 - 시사점: 영양사회를 포함하는 단체들의 연대기구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식생활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식품선택, 안전식품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춤. 전문가들이 학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 외에 학교 텃밭 운영으로 교육 효과를 높였음.
- 학교와 기타 공공기관에서의 공공급식: Ristorazione 사례 - 밀라노(이탈리아)
 - 특징: Milano Ristorazione는 밀라노시가 99%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으로

어린이들에게 건강하고 영양가 많은 식사를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을 실시함.

- 시사점: 시가 공기업을 설립하여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 유기농 재료, 지역산 재료 사용 등 지속가능성과 건강증진을 위한 실천사례를 만들었음. 건강급식 제공뿐 아니라 식생활교육, 식품폐기물 감소에 관한 교육 등을 병행하여 도시 전체 시민들의 참여를 늘리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학교식당을 위한 공공조달 - 토리노(이탈리아)

- 특징: 토리노의 학교식당은 어린이의 영양 차원뿐만 아니라 교육 차원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하며 환경과 경제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
- 시사점: 학교식당의 급식 관련 입찰에서 유기농, 공정무역, 탄소배출량 등 환경영향을 고려하는 등 개선함으로써 아동 영양개선과 함께 아동, 청소년이 건강과 생태를 통합하는 교육기회를 제공하였음. 학교식당의 조달을 개선하는 데 공무원, 농민, 학교, 기업 등 다부문 대표들이 참여하여 성과를 거두었음.

○ 채소 먹는 목요일(Veggie Thursday) - 겐트(벨기에)

- 특징: Thursday Veggieday는 벨기에 최대의 채식단체인 EVA(Ethical Vegetarian Alternative)가 시작한 캠페인으로, 2009년 이래 겐트시의 공식 지원을 받고 있음. 이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최소 1주일에 하루(목요일 등) 이상 채식을 하도록 권장하고 목요일에는 학교급식과 모든 공공급식에서 채식 식사가 제공됨.
- 시사점: 시의회와 행정부가 학교 등을 통해 채식 증진을 위한 캠페인 등을 조율하며 적극적으로 시민참여를 유도하였음. 소규모 축제, 요리강습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여 학교 아동, 시민들이 식생활 개선에 참여하도록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시민참여 증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

○ 비만과의 싸움 및 비감염성 질병 예방 - 암스테르담(네덜란드)

- 특징: 암스테르담은 청소년의 과체중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 2033년까지 모든 암스테르담 어린이가 건강체중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암스테르담 건

강체중 접근법”의 통합적인 접근법에 따라 계획을 실시함.

- 시사점: 암스테르담 아동의 건강체중을 위해 도시의 건강한 환경 조성 and 건강한 행동에 초점을 맞춰, 공공의 건물디자인 개선과 비만 문제를 다루는 의료연구소 설립뿐 아니라 정부·학계·산업계의 협력을 유도하여 구체적인 비만 아동 수 감소 성과를 실현함.
- 과일채소 등 건강한 먹거리 선택 증진 - 뉴욕(미국)
 - 특징: 뉴욕시는 향후 20년 동안 뉴욕 성인이 먹는 끼니의 수를 현재의 평균 2.4끼에서 3끼로 25% 늘린다는 목표를 수립함. 목표 달성을 위해 영양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지역에 공동텃밭, 학교 텃밭 지원과 지역산 농산물 구입 무료쿠폰 제공으로 건강한 먹거리 선택기회를 늘렸음.
 - 시사점: 지역사업과 국가의 저소득층 영양 보조사업의 시너지를 창출한 좋은 사례임.
- 먹거리 불안정 위험 노년층에 대한 통합적 접근법 - 메데인(콜롬비아)
 - 특징: 소득이 낮거나 그 밖의 이유로 먹거리 불안정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는 60세 이상의 주민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교육 기회도 제공함.
 - 시사점: 취약계층인 60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먹거리 불안정 요인을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구체화하고 지역사회급식센터를 운영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메데인시가 협력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한 것이 성공 요인임.

(3) 사회경제적 형평성

[표 3-3] 사회경제적 형평성 영역의 해외 도시 사례

도시명	국가명	주요 사업내용	시사점
아테네	그리스	공동부엌	아테네의 문화생활공간 형성과 사회결속 증진 및 실업자의 고용창출 기여
벨루오리존치	브라질	시민식당	취약계층의 영양개선, 지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뉴욕	미국	비상 식품과 만성 먹거리 불안정 관련 개입의 통합	효율적인 자원 배분체계 구축
겐트	벨기에	사회형평성 증진을 위한 도시텃밭	주민과의 공동창조과정 도출
브뤼헤	벨기에	공정무역도시 캠페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네트워크 구축 및 다각도의 공정무역 증진활동 전개
빌바우	스페인	공정무역주간	시민 인식제고 및 시민참여 촉진

○ 공동부엌 - 아테네(그리스)

- 특징: 아테네시에서 중요한 문화생활공간으로 자리한 공동부엌은 시민들의 먹거리 필요 충족을 위해 시민사회가 전개하는 활동임. 함께 요리하고 식사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고, 식생활 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종적 이질성을 통합하고,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을 증진함.
- 시사점: 아테네시, NGO,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참여 행위자들로 운영됨. 실업자들의 고용을 창출하고, 전통적 소비시스템을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추구하며, 사람·아이디어·실천을 결합해 사람과 먹거리 간의 더 풍성한 관계를 발견하고 창조하고, 그것을 통해 지구 및 생태계와의 관계도 증진함.

○ 시민식당 People's restaurants - 벨루오리존치(브라질)

- 특징: 벨루오리존치시 영양먹거리 보장정책의 중요전략 중 하나인 시민식당은 저렴한 비용의 건강한 먹거리를 취약계층의 시민들이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임.
- 시사점: 적당한 가격에 건강한 먹거리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영양개선과 함

께 가족농 지원 등 도시와 농촌의 취약계층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시 행정부, 정책담당, 시민사회, 농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먹거리를 보장하는 모범사례임.

○ 비상 식품과 만성 먹거리 불안정 관련 개입의 통합 - 뉴욕(미국)

- 특징: 뉴욕시는 시민의 먹거리 불안정 해소를 위해 먹거리 나눔 공간, 커뮤니티 키친 지원, 취약계층 대상 영양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먹거리 지원은 저소득 임산부와 아동 영양보충식품 제공,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점심, 아침 급식비 지원, 돌봄시설 아동과 성인 대상 먹거리 지원 등을 전개함.
- 시사점: 시장실, 의회, NGO 등이 연대하여 대도시 전역에서 자금지원과 먹거리 나눔공간과 커뮤니티 키친에 먹거리를 배달하는 중간조직을 확보함으로써 제한된 자원을 배분하는 체계를 갖추어 먹거리 불안정을 효율적으로 해소하는 사례임.

○ De Site: 사회경제적 형평성 증진을 위한 도시텃밭 - 겐트(벨기에)

- 특징: 도심 빈곤지역의 비어있던 부지에서 출범한 'De Site' 사업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창조를 목표로 주민들이 텃밭을 임차하여 채소를 재배하고, 재배한 채소를 사회적 식료품점에서 할인가격으로 판매하고, 남은 채소와 허브로 가공품을 만들어 판매하여 지역 수입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임.
- 시사점: 도시농업이 빈곤지역에 가치를 부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가격할인 등 경제적 혜택 외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지역활동에 참여시키고 주민과의 공동창조과정을 통해 즐거운 참여를 이끈 것이 성공 요인임.

○ 공정무역도시 캠페인 - 브뤼헤(벨기에)

- 특징: 2008년부터 브뤼헤는 농민과 노동자의 생계와 노동조건 향상이라는 비전을 갖고 공정무역도시 운동에 참여함. 공정무역 매장, 공정무역 학교뿐만 아니라 대중 행사에도 공정무역 관련 캠페인 등을 시행함.
- 시사점: 시가 학교, 기업, 지역사회, 공정무역을 지지하는 시민들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의회가 공정무역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다각도의 공정무역 증진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공정무역을 활성화함.

○ 공정무역주간 - 빌바오(스페인)

- 특징: 빌바오 시의회는 매년 공정무역주간(Fair Trade Week)을 조직하여 공정무역 제품의 구매와 책임 있는 소비가 국제 무역, 특히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며, 인간과 노동권을 존중하고 사회정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무역시스템에 관한 인식을 제고함.
- 시사점: 공정무역주간은 지속가능한 방식의 책임 있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시의회가 주도하여 공정무역 상점, NGO, 민간기관과 함께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전개하여 시민참여를 이끌고 있음.

(4) 먹거리 생산

[표 3-4] 먹거리 생산 영역의 해외 도시 사례

도시명	국가명	주요 사업내용	시사점
대구	한국	도시농업을 이용한 기후변화 완화 도시 내 버 재배공간 조성사업	도시농업을 이용한 기후변화 완화 및 지역 공동체 유대인식 강화
퀴토	에콰도르	참여형 도시농업 프로그램	도시농업 증진을 위한 광범위한 정책목표 제시 및 먹거리생산과 유통의 시너지 창출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도시농업 사업과 가용장소의 지도화	시민들의 도시농업 참여 유도, 활성화와 다 양한 이해관계자 협력체계 구축
토론토	캐나다	골든호슈 먹거리농업연대와 Foodstarter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먹거리 체계 개혁을 위한 실질적 지원
위트레흐트	네덜란드	다양한 지역공동체 텃밭	사회적 결속력 증진과 시민 주도적인 활동 증진
시카고	미국	시카고 내에서 더 많은 먹거리 기르기	생산적인 도시토지 이용계획 체계 창조와 공동체 차원의 편익 창출
런던	영국	먹거리 재배하는 지역사회	도시 먹거리재배와 유통에 대한 인식제고
메델린	콜롬비아	자가소비용 도시 가족텃밭	통합적인 방식의 먹거리 접근성 증진
다카르	세네갈	미니텃밭	취약계층의 고용 및 소득 창출과 공정하고 새로운 도시 먹거리 생산체계 구축
파리	프랑스	시 상수원 보호를 위한 유기농업	유기농업 장려와 지속가능한 먹거리공급
파리	프랑스	벽과 지붕을 이용한 도시농업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 주민 간의 연대 강화, 폐기물 재용도화에 기여

- 도시농업을 이용한 기후변화 완화 - 대구(한국)
 - 특징: 2012년 대구시가 출범시킨 도시 내 벼 재배공간 조성사업으로 녹지공간 확충과 여름철 열섬효과 감소, 취약계층에의 쌀 기부 등의 결과를 얻음.
 - 시사점: 도심에서의 벼 재배를 통해 지표면 온도 하강으로 인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벼 수확에 시민들이 참여하여 도시농업의 중요성과 지역공동체 유대의식을 갖도록 한 사례임.
- 참여형 도시농업(AGRUPAR) 프로그램 - 키토(에콰도르)
 - 특징: 키토는 2002년 이래 먹거리 불안정 및 빈곤 문제 극복, 소득 증대, 고용창출, 주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 시 환경관리에 대한 기여 등을 목표로 도시농업 정책을 시행함. 시 면적의 83%에 해당하는 2,500개 도시 텃밭을 조성했으며 생산품의 절반은 자가소비용으로, 나머지는 판매됨.
 - 시사점: 도시농업 증진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법과 사회적생태적경제적 목표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먹거리 생산과 유통활동 사이에 시너지를 창출하는 성과를 도출하였음.
- 도시농업 사업과 가용장소의 지도화 - 암스테르담(네덜란드)
 - 특징: 2014년 암스테르담에 있는 다양한 도시농업 이니셔티브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도시농업이 가능한 장소를 표시하는 쌍방향 지도(interactive map)를 작성함.
 - 시사점: 기존의 도시농업 사업 정보와 새로운 도시농업 장소 정보를 지도화함으로써 시민들의 도시농업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였음. 시의회, 시 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해 성과를 도출함.
- 골든호슈 먹거리농업연대와 Foodstarter - 토론토대도시권(캐나다)
 - 특징: 골든호슈 먹거리농업연대는 선도적인 농식품 클러스터의 하나로서 기존 역할을 유지하고 향상할 수 있도록 결성한 연대로, 이 연대가 추진하는 이니셔티브의 하나가 토론토대도시권의 식품 생산시설인 “Foodstarter”임.

- 시사점: 먹거리 체계 개혁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와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 공식적인 정책개발 과정, 토지이용계획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 지원이 사업 활성화에 기여함.
- 다양한 지역공동체 텃밭 - 위트레흐트(네덜란드)
 - 특징: 지역공동체 텃밭은 주로 시민들과 사회조직들의 주도로 시작되고 지자체, 민간기금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텃밭은 어린이와 노인이 함께 일하는 텃밭, 부자/가난한 동네 텃밭, 예술 텃밭 등 그 유형이 다양함.
 - 시사점: 위트레흐트의 다양한 지역공동체 텃밭은 사회적 결속을 이루는 데 중요하며, 시민과 시민사회 조직이 주도하고 지자체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함.
- 시카고 내에서 더 많은 먹거리 기르기: 생산적인 도시토지 이용계획 체계 창조와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유통하는 사업체 지원 - 시카고(미국)
 - 특징: 시카고시의 도시 내 먹거리 생산을 늘리기 위하여 비영리 파트너십을 이용해 개발한 옥상 텃밭·살내 텃밭 등 다양한 형태의 텃밭, 도시농장, 먹거리 생산 센터 사업임. 도시농장 개발을 위해 도시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업체 지원을 위한 공적 인센티브를 늘림.
 - 시사점: 시카고시와 비영리기업민간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옥상텃밭 등 새로운 방식의 도시농장 창조를 실현함으로써 먹거리 재배와 함께 공동체 차원의 편익 창출을 이룬 사례임.
- 먹거리재배 지역사회(Growing Communities) - 런던(영국)
 - 특징: 먹거리재배 지역사회는 대기업들로부터 먹거리 체계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고 먹거리 생산을 재지역화하려는 지역공동체 주도의 사업임. 먹거리 공급 개선을 위한 모델인 푸드존, 지역 소농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주도 유기농 과일·채소 꾸러미사업, 유기농 농민 장터 등이 포함됨.
 - 시사점: 도시 먹거리재배와 유통을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재배 교육을 시행하고, 생산자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이 참여하는 교육 증진, 지식확산 및 인식 제고 효과를 도출하였음.

- 자가소비용 도시 가족텃밭 - 메델린(콜롬비아)
 - 특징: 취약계층 가족들의 건강하고 영양 많은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고 자급 자족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 차원의 먹거리 보장 프로그램의 일부임.
 - 시사점: 도시 가족텃밭을 지원함으로써 식품 공급을 넘어서 통합적인 방식으로 먹거리 접근성을 높일 뿐 아니라, 먹거리 생산 활동과 건강 및 식습관 교육, 공동체 활동 등을 결합한 사례임.
- 미니 텃밭(Micro Gardens) - 다카르(세네갈)
 - 특징: 가족을 위한 먹거리 생산과 비용절감을 위해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해 채소 재배를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1년에 6번까지 작물 재배가 가능하여 수확한 농산물 판매로 가계수입을 늘리는 효과로 빈곤층 수입 창출에 기여함.
 - 시사점: 세네갈의 미니 텃밭 사업에는 밀라노, 국제기구(FAO), 세네갈 내 지자체 등이 협력하고 있으며, 먹거리 보장, 고용창출, 빈곤감소, 환경교육 등 다양한 성과를 도출하는 체계를 정립하였음.
- 시 상수원 보호를 위한 유기농업 - 파리(프랑스)
 - 특징: 파리지 상수도 배분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이 도시 상수원 보호와 먹거리 생산을 위해 실시하는 유기농업 지원사업임. 2010년 이래 공기업이 확보한 농지에서 유기농 전환이 이뤄졌으며, 파리지 구내식당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공급에 기여하였음.
 - 시사점: 파리 수자원공사가 조율하며, 유기농업으로의 전환 촉진과 농민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사업으로, 지역 지자체, 파리지 상수도 담당 공기업, 지역 NGO, 도시농부 등이 협력하여 성과를 도출하고 있음.
- 벽과 지붕을 이용한 도시농업 - 파리(프랑스)
 - 특징: 파리 시내 지역사회 텃밭이 증가하면서 2020년까지 지붕, 벽을 이용한 재배공간을 33헥타르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도시농업임. 파리에서는 새로운 농업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컨퍼런스 개최 등으로 인식을 제고하고 있음.

- 시사점: 파리의 지붕·벽 등 공간을 이용하고, 파리 내 교통수단이 결집되는 물류센터에 도시농업 재배공간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 주민 간의 연대 강화, 폐기물 재용도화 등에 기여하고 있음.

(5) 먹거리 공급과 유통

[표 3-5] 먹거리 공급과 유통 영역의 해외도시 사례

도시명	국가명	주요 사업내용	시사점
바르셀로나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장협회: 현대적인 시장들의 네트워크	전통시장 접근성 증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실현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관리
텔아비브	이스라엘	민간부문과 시민사회의 협력	다부문 참여 증진과 소비자 접근성 증진
리옹	프랑스	혁신적인 유통체계	소비자의 먹거리 접근성 및 사회적 결속 향상
아비장	코트디부아르	건강을 위한 안전하고 질 좋은 길거리 음식	교육강화와 길거리 음식 관련 기관 결집
파리	프랑스	수로와 철도를 이용한 슈퍼마켓 물류	탄소배출량 감소와 친환경 물류 증진
텔아비브	이스라엘	녹색 식품사업체 라벨	지자체와 사업체 간의 긍정적인 소통채널 창조 및 지역경제와 지자체 브랜드 강화
리옹	프랑스	공정지속가능 도시 라벨	사업자들의 네트워크 활동강화와 지속가능한 실천
쿠리치바	브라질	저소득층 가정의 건강한 먹거리 접근성 향상	저소득층의 먹거리 접근성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 현대적인 시장들의 네트워크 - 바르셀로나(스페인)

- 특징: 바르셀로나 시장협회(Barcelona Institute of Markets)가 바르셀로나 옥내 시장 40개 중 재개발한 25개 시장을 통해 도시계획과 구매체계를 재구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네트워크임. 현대적인 시장들은 지속가능한 시장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신선한 로컬푸드를 제공하며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시사점: 시장 리모델링, 리노베이션을 통해 전통시장에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였으며, 시의회, 시장협회, 상인협회, 지역주민, 사회조직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여 효율을 높임.
- 민간부문과 시민사회의 협력 - 텔아비브(이스라엘)
 - 특징: 텔아비브 지자체는 시민들이 신선한 먹거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상점 공간 확장, 진열판매 허용, 도보거리에 먹거리 매장 설치, 먹거리 정보 앱 제공, 지역사회 협동조합 등 다각도로 시민의 먹거리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음.
 - 시사점: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신선한 먹거리로의 접근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앱,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시민과 업체 간의 협력 등 다각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과를 도출함.
- 혁신적인 유통체계 - 리옹(프랑스)
 - 특징: 리옹(Lyon)시의 Super Halle 4개의 독립 사업체로 구성된 유통체계로 유기농 상점, 신선 농산물 상점, 식당, 먹거리 공급/배분 허브로 구성됨. 저소득층에게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시민은 유기농 식품을 정상가에 구매한 후 취약계층 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임.
 - 시사점: 혁신적인 유통체계 정착을 위해 기업인, 상점 소유주, 생산자, 관공서, 시민사회, 은행 등 다부문을 참여시켰고 지역 내 사회적 다양성을 수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 건강을 위한 안전하고 질 좋은 길거리 음식 - 아비장(코트디부아르)
 - 특징: 길거리 음식 품질 개선과 안전성을 위해, 지역공무원 대상의 교육을 토대로 공무원이 길거리 음식 판매자에게 교육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지식공유를 함으로써 수평적인 정보 교환과 목표공유로 길거리 음식 개선을 추진함. 아비장 내 길거리 음식 판매자를 대상으로 수평적인 교육이 이뤄지면서 다부문 협력과 함께 길거리 음식 안전성이 제고될 수 있었음.
 - 시사점: 아비장 지역 내 의회가 시의 재원을 활용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결과와 후속 행동에 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것이 성과를 도출한 성공 요인임.

- 수로와 철도를 이용한 슈퍼마켓 물류 - 파리(프랑스)
 - 특징: 파리 내 도시교통량과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디젤사용량을 줄이면서 식품공급이 이뤄지도록 파리가 실시한 물류 개선사업임. 파리와 공기업은 철도, 청정연료 차량 등 다양한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물류센터 건설을 통해, 파리 도심까지의 물류경로를 전환하였음. 슈퍼마켓 체인과 협력하여, 강을 이용한 매장 운송체계를 운영함.
 - 시사점: 물류 개선을 위해 다양한 운송수단을 채택하였으며 환경영향이 낮은 수로 수송을 적용하여 친환경 물류를 증진하고 탄소배출량 감소에 기여하였으며 사례 정립으로 업계 확산에 기여하였음.
- 녹색 식품사업체 라벨 - 텔아비브(이스라엘)
 - 특징: 2015년 텔아비브시는 지자체 수준에서 식품업체 대상의 녹색 라벨을 도입, 환경친화적 행동 규범을 실천하는 업체에 라벨을 부여하고 있음. 이외에도 기업과 환경 모두에 이득이 되는 지속가능한 관행 관련 도구와 정보 키트, 매뉴얼, 회의를 통한 모범사례 공유 등도 시행함.
 - 시사점: 이산화탄소 감소를 위한 도구의 하나로 지자체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실행과정에서 기술적 해법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유용한 방식으로 제시되어 지역경제, 지자체 브랜드 강화에 기여하였음.
- 공장지속가능 도시(Fair and Sustainable City) 라벨 - 리옹(프랑스)
 - 특징: 리옹이 2010년 제정한 공장지속가능 도시 라벨은 도시 내 상인들이 지속가능한 실천을 하고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리옹시의 사업체 중 호텔, 식당 등 식품 관련 업체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식품 관련 업체들이 연대하고 공정성·지속가능성 실천을 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목적임.
 - 시사점: 공정성·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리옹 내 식품 관련 라벨을 제정하고 업체 선정 과정, 기준 등 신뢰성 제고에 주력하여 라벨의 가치를 높여 업체의 공정성,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함.

- 저소득층 가정의 건강한 먹거리 접근성 향상 - 쿠리치바(브라질)
 - 특징: 쿠리치바(Curitiba) 시청이 개발, 적용하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먹거리 접근성 보장 프로그램임. 저렴한 가격, 접근성이 용이한 다양한 상점과 장터에서의 친밀한 상호작용, 가족농업 강화 등의 효과가 발생함.
 - 시사점: 저소득층의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이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의 추가비용 부담 없이 재투자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됨.

(6) 음식물쓰레기(폐기물) 방지, 감소 및 관리

[표 3-6] 먹거리 폐기 영역의 해외 도시 사례

도시명	국가명	주요 사업내용	시사점
런던	영국	영국 이삭줍기 네트워크	다양한 계층의 참여, 취약계층 지원 및 도시와 농촌의 유대 강화
파리	프랑스	안전하고 영양 많은 먹거리 회수 및 필요 계층에 재분배하기	공공-민간-시민사회 간의 파트너십과 영양가 있는 먹거리 회수를 통한 폐기물 감소와 재배분
토리노	이탈리아	무료급식소	취약계층의 사회적·직업적 통합 촉진 및 공공과 민간의 협력 모델 제시
쿠리치바	브라질	식품안전 및 접근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먹거리와 공공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층 지역의 먹거리 보장에 기여
바젤	스위스	바젤대학교의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급식	지속가능성 사무소 설립 및 지속가능한 급식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파급

- 영국 이삭줍기 네트워크 - 런던(영국)
 - 특징: 소매업체로 판매되지 않은 외관상 흠이 있는 신선과일·채소를 수거하여 취약계층에 연결하고, 버려지는 먹거리가 폐기되지 않도록 수거해 취약계층에 제공하여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고 음식물쓰레기를 감소시킴. 도시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사업임.
 - 시사점: 폐기되어오던 식품을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체계를 정립하고 젊은층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함.

- 안전하고 영양 많은 먹거리를 회수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배분 - 파리(프랑스)
 - 특징: 2025년까지 프랑스 내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50% 줄인다는 목표로 안전한 먹거리가 폐기되지 않도록 수거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분배하는 사업임.
 - 시사점: 먹거리를 회수하여 폐기물을 줄이고 재배분하는 과정에 공공부문, 민간부문,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활용해 다른 분야로 확산될 수 있는 사례를 정립함.
- 무료급식소(soup kitchen) - 토리노(이탈리아)
 - 특징: 무료급식소는 사회 취약층의 먹거리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로 푸드뱅크, 소매업체로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한 먹거리를 기부받고 토리노시가 제공하는 먹거리 등 다양한 경로로 수집한 먹거리로 운영됨.
 - 시사점: 무료급식소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먹거리 기부와 활동 등으로 협력하는 모델을 제시하며, 무료급식 수혜자가 참여자로 전환되는 운영방식을 시도한 사례임.
- 식품안전, 접근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 쿠리치바(브라질)
 - 특징: 1991년 쿠리치바시 먹거리 공급 담당관과 환경 담당관이 공동으로 출범시킨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재활용품이나 식물성·동물성 유지류를 가져오면 가족농 생산 농산물로 교환해주는 사업임. 쓰레기 감소와 환경 보호와 가족들의 식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지역의 가족농을 지원할 수 있음.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도 도움이 되는 사례임.
 - 시사점: 먹거리와 공공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층 지역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식품폐기물 방지, 가족농 판로 제공 등 다각도의 방안을 적용하여 먹거리보장에 기여하였음.
- 바젤대학교의 지속가능한 급식 - 바젤(스위스)
 - 특징: 2012년 바젤대학교는 강의, 연구, 외부활동, 캠퍼스, 대학 운영에 지속가능성을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속가능성 사무소(Sustainability Office)를 설립하여 지속가능성 발전 석사과정 신설, 지속가능한 구매, 채식

메뉴 증가, 완전채식 메뉴 도입, 음식물쓰레기 감소 및 예방 등을 실천함.

- 시사점: 학교에서의 음식물쓰레기 감소 등 구체적 목표 설정과 지속가능성 사무소 신설, 학생 등의 참여 유도 등 전략적 접근으로 대학 내 지속가능성 제고를 실천하고 지역에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킴.

2_2016년 밀라노 먹거리협약 어워드 도시

1) 어워드 취지와 현황

○ 어워드 취지

- 밀라노협약 어워드(Milan Pact Award)는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에 서명한 도시들이 도시먹거리 개선을 위한 실천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고무하기 위해 제정됨. 밀라노협약 어워드는 우수사례에 대한 어워드 시상 을 통해 먹거리정책 발전단계와 상황이 각기 다른 도시들이 먹거리정책과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하고 사례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제1회 밀라노 먹거리협약 어워드 시상식은 지난 2016년 10월 세계 먹거리의 날 행사 중 개최된 연례 시장회의에서 열렸음. 수상도시들은 2015년 공모 후 제출한 사례를 대상으로 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 선정되었음.
- 어워드는 모두 8개로 밀라노 먹거리협약이 제시하는 6가지 영역에 대한 영역별 최고 득점 사례 6개와 선정하며 어워드 심사기준에 따른 최고 득점 사례 및 역경 속 실천사례 등 2개로 구분됨. 어워드 심사기준에 따른 최고 득점 사례와 역경 속 실천사례 등 2개 어워드에는 각 1만 5천 유로의 상금이 수여됨. 상금은 밀라노 먹거리협약과 관련된 타 도시의 식품정책 발전을 위한 지원에 사용됨.

○ 어워드 현황

- 어워드 심사기준은 적응성, 통합성, 혁신성, 영향, 포용성, 역경 정도 등 6가지이며, 이 중 역경 정도를 제외한 5가지 심사기준에서 최고 득점을 한 1개 사례가 '최고 득점 어워드'를 받게 됨. 또 다른 '역경 속 실천 어워드'는 5가지

심사기준과 역경 정도를 곱한 점수에서 최고 득점을 한 1개 사례에 수여됨.

- 심사기준: 적응성(adaptability), 통합성(integration), 혁신성(innovation), 영향(impact), 포용성(inclusion), 역경 정도(adversity) 등 6개 기준
- 최고 득점 어워드(Highest Score Award): 적응성, 통합성, 혁신성, 영향, 포용성 등 5개 심사기준에서 최고 득점을 한 실천 및 정책사례를 선정
- 역경 속 실천 어워드(Challenging Environment Award): 적응성, 통합성, 혁신성, 영향, 포용성 등 5개 심사기준에 따른 점수에 역경 정도 점수를 곱했을 때 최고 득점을 한 실천 및 정책사례를 선정

2) 수상도시 사례 내용과 시사점

[표 3-기] 밀라노협약 어워드 수상도시

국가명	도시명	수상 영역	주요 사업
볼티모어	미국	최고 득점 수상도시 (Winner of the Highest Score Award)	볼티모어 먹거리정책 이니셔티브 (Baltimore Food Policy Initiative)
멕시코	멕시코 시티	역경 속 실천 수상도시 (Winner of the Challenging Environment Award)	지역사회 공동식당 사업 (Community Dining Rooms Program)
캐나다	밴쿠버	거버넌스 영역 특별상 (Special Mention in the Governance Category)	밴쿠버 식품 전략 (Practice Title: Vancouver Food Strategy)
영국	버밍엄	지속가능한 식생활과 영양 영역 특별수상 (Special Mention in the Sustainable Diets and Nutrition Category)	버밍엄 공공건강 지키기 (Birmingham's Public Health)

○ 최고 득점 수상도시 - 볼티모어 먹거리정책 이니셔티브(미국 볼티모어)

- 주요 내용: 2010년 식품정책국장직을 두어, 볼티모어 먹거리정책 이니셔티브(BFPI)를 추진하였음. 볼티모어시는 이를 통해 기획부서, 지속가능사무소, 건강부서와 볼티모어 개발기구 간에 공식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음. 시의 협력체계에서는 건강하고 가격이 적절한 식품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체계의 복잡하고 체계적인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전

개함.

- 시사점: 식품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권고안을 실제 현안으로 삼아 지역 내 식품 공급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였음. 시의 식품 취약지역과 지역 식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타 도시와의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볼티모어시의 식품 문제 해결뿐 아니라 다른 도시들과의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여 효율을 높이고 식품정책 발전에 진전을 가져온 네트워크 기구로 발전시켰음.
- 역경 속 실천 수상도시 - 지역사회 공동식당 사업(멕시코 멕시코시티)
 - 주요 내용: 지역주민이 영양이 충분한 식사를 적절한 가격에 할 수 있도록 2009년 멕시코시티 정부가 식품 안보 모델로서 수립한 지역사회 공동식당 운영 사업임. 지역 정부, 대학, 시민사회단체와 민간부문의 공동 책임하에 식품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에 의해 운영되며, 타깃계층을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으로 구체화하여 적용하였음.
 - 시사점: 각 공동식당에서 제공하는 식품을 엄격한 기준에 의해 준비하고 공동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의 훈련과 교육을 통해 공동식당에서의 식품 교육,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 지역주민의 영양개선을 이룰 뿐 아니라, 식당 이용자들이 사회적 상호관계를 맺음으로써 주민 간의 연대감을 높이는 지역 내 구성원의 주요 공간으로 발전시켰음.
- 거버넌스 영역 특별상 - 밴쿠버 식품 전략(캐나다 밴쿠버)
 - 주요 내용: 2013년 밴쿠버시가 식품 생산, 가공, 유통, 접근과 식품폐기물 관리를 포함하는 도시 식품체계 문제 전체를 단일의 정책 틀(framework)로 통합시키는 공식적인 이니셔티브인 밴쿠버 식품 전략을 채택하였음. 식품정책의 범위를 확대해 사회, 경제, 환경, 건강 관련 성과를 위해 식품체계를 구축함.
 - 시사점: 지역사회에 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건강과 복지를 높였고, 보다 탄력성 있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창출하였음. 도시가 식품 관련해 할 수 있는 많은 역할을 조정함으로써, 식품 전략은 각기 다른 목표와 새로

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행동을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도시를 통해 사회, 환경, 경제, 건강의 목표를 이루는 도구를 마련하였음.

- 지속가능한 식생활과 영양 영역 특별수상 - 버밍엄 공공건강 지키기(영국 버밍엄)
 - 주요 내용: 버밍엄은 비만 발생 환경(obesogenic environment)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공공건강 영양사(Public Health Nutritionist/Entrepreneur)에 의뢰하여 비만 발생을 줄였음.
 - 시사점: 모든 수준에서 아동비만 감소를 위한 노력을 조정하는 작업을 전개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입조치뿐 아니라 정책변화, 파트너십, 의사소통을 포함하였음. 버밍엄은 도시먹거리협약에 서명한 이래 아동비만 해결, 건강증진,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혁신적인 접근법을 탐색하고 이행해왔음.



04

밀라노협약에 기초한 서울시 먹거리정책 평가 및 개선과제

- 1_협약에 따른 서울시 먹거리정책 현황
- 2_밀라노협약 영역별 서울시 먹거리정책 내용 및 평가
- 3_서울시 먹거리정책의 특성과 한계

04 | 밀라노협약에 기초한 서울시 먹거리정책 평가 및 개선과제

1_협약에 따른 서울시 먹거리정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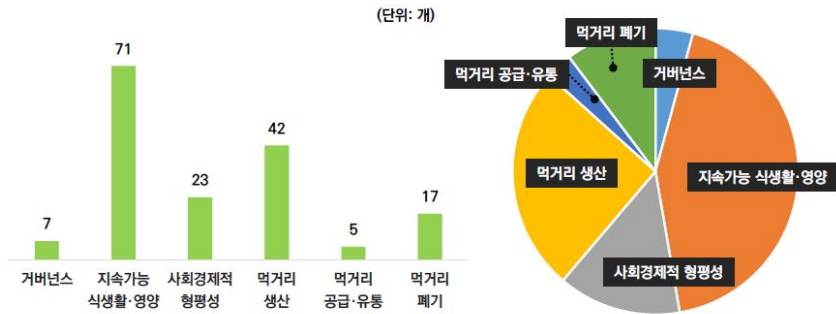
-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관련 서울시 먹거리정책은 100여 개에 약 2,600억 원 규모
 -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에서 제시한 먹거리정책들에 따라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의 서울시 먹거리정책을 분석하였음. 서울시의 먹거리정책 업무 계획, 예산서 등을 통해 사업, 재정 흐름 등을 주로 파악하였음.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의 정책 영역별로 서울시 먹거리정책을 분류하고 목적, 내용 정합성, 예산 규모를 분석하였음.
 - 서울시가 공개했거나 관련 부처를 통해 입수한 먹거리정책 중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에서 제시한 먹거리정책 영역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서울시 먹거리정책은 모두 165개였고 이에 해당하는 예산은 약 2,540억 원에 달했음²⁾.

2) 지속사업의 경우에도 2015년과 2016년에 집행된 예산만을 집계하였음. 예를 들어, 먹거리 폐기 영역의 음식물쓰레기처리 인프라 구축 및 감량화 사업의 경우 지속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중 2015년과 2016년 동안에 집행된 예산만을 포함하였음. 따라서 매년 영역별 예산 비중이 달라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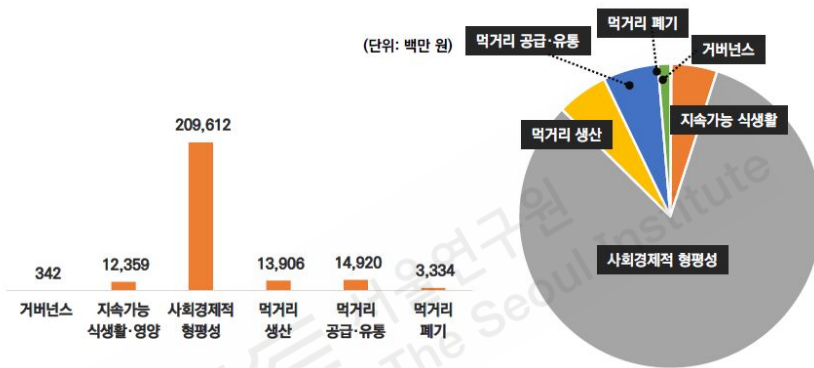


[그림 4-1]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영역별 서울시 먹거리정책(2015~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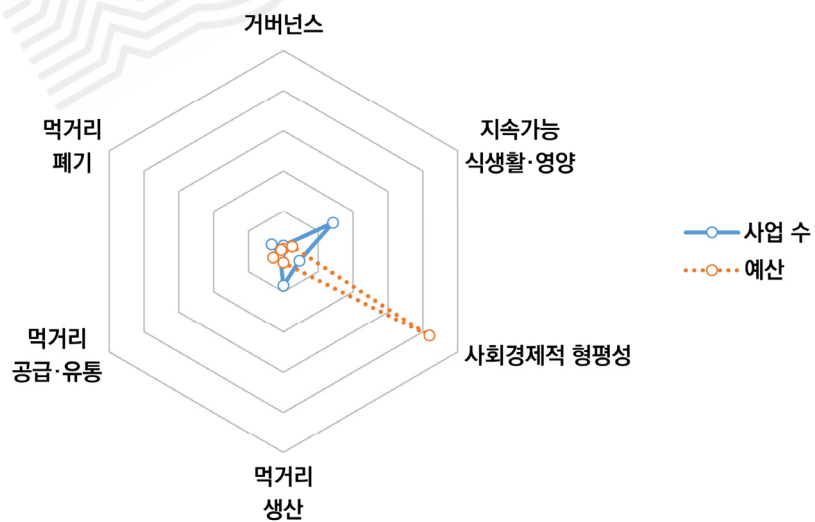
- 서울시의 사업과 예산은 지속가능한 식생활과 사회경제적 형평성 사업에 집중
 - 정책 영역별로는 지속가능한 식생활·영양 영역의 정책이 모두 71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형평성 영역 23개, 먹거리 생산 42개, 먹거리 거버넌스 7개 순으로 나타남. 영역별 사업 수와 예산 규모를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사업과 예산이 지속가능 식생활과 사회경제적 형평성 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한편, 먹거리 생산과 먹거리 공급·유통 사업의 경우 서울시농업기술센터와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가 별도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었음.



[그림 4-2] 영역별 정책사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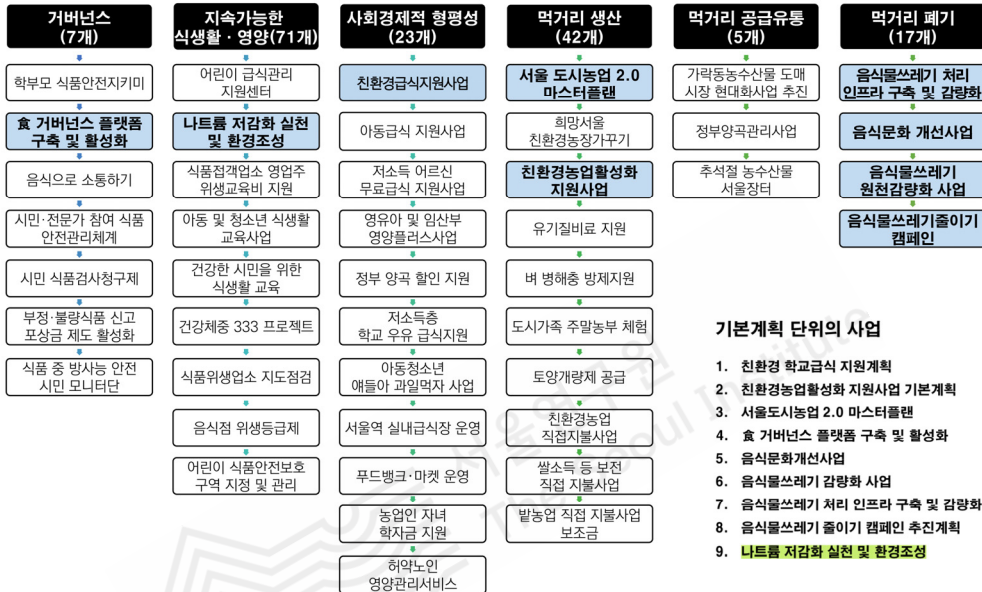
[그림 4-3] 영역별 예산 분포



[그림 4-4] 영역별 사업 수와 예산 규모 비교

○ 서울시 먹거리정책 중 기본계획 단위 사업은 모두 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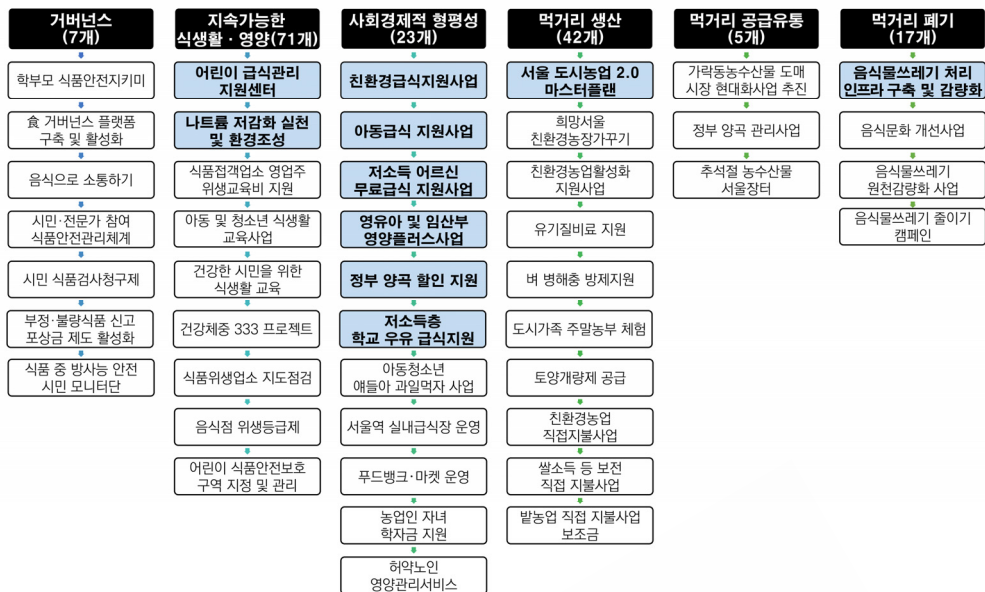
- 모두 97개 정책 중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은 모두 9개 사업이었으며 먹거리 폐기 영역이 모두 4개 사업으로 가장 많았음.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은 그만큼 서울시가 중장기 관리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중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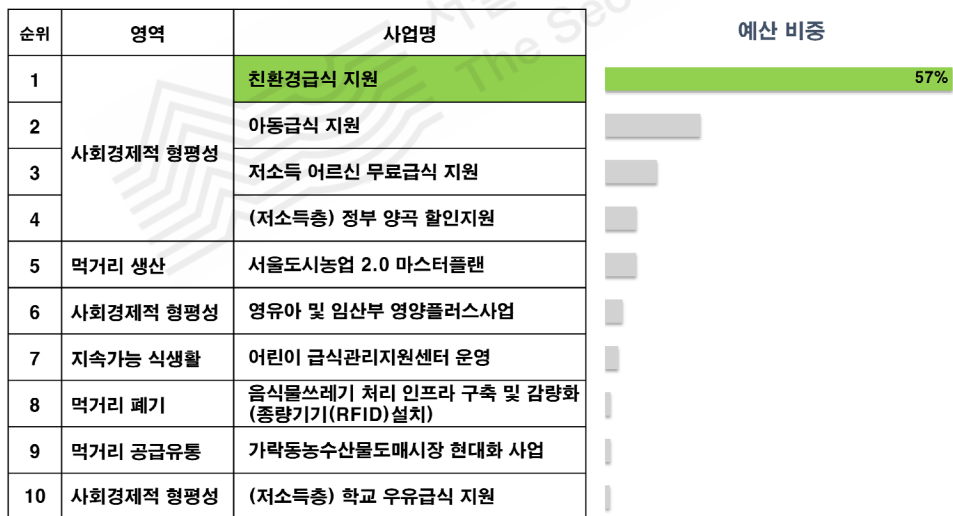
[그림 4-5] 밀라노 먹거리협약 영역별 서울시 먹거리정책 중 기본계획 사업 분포

○ 서울시는 영양, 안전 등 식생활과 사회경제적 형평성 사업에 많은 예산 투자

- 예산규모 10대 사업은 사회경제적 형평성과 지속가능 식생활영양 영역에 집중되어 있었음. 사회경제적 형평성과 먹거리를 통한 시민의 안전과 영양 문제는 시민의 관심사이며 사회문재인 만큼 서울시가 이 영역의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4-6] 밀라노 협약 영역별 서울시 먹거리정책 중 예산규모 10대 사업 분포



[그림 4-7] 예산규모 10대 사업과 예산 비중

2_밀라노협약 영역별 서울시 먹거리정책 내용 및 평가

1) 거버넌스 영역의 서울시 먹거리정책

- 서울시는 2014년 食 거버넌스를 표방한 이후 먹거리정책 거버넌스 구축, 이해관계자 참여, 먹거리마스터플랜 등을 이미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 먹거리정책을 검토한 결과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이 제시한 거버넌스 영역의 6개 정책과제 중 2개 과제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건강, 복지, 환경, 경제, 에너지 등 다부문과 지역을 아우르는 먹거리 정보체계, 기후변화나 식량가격 파동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먹거리 위기 위험 경감전략이 없었음.
- 시민의 직간접적 참여와 먹거리 시민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사회의 참여하에 먹거리마스터플랜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먹거리 거버넌스체계는 진화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시민이나 시민단체의 참여 형태가 모범 도시사례에 비해 소극적이고 형식적임.
- 시민과 시민단체가 아니셔티브를 가지고 정책 의제를 발굴, 제안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의 거버넌스 구현이 필요함. 또한 지역먹거리 생태계를 복원, 발전시키기 위한 거버넌스 정책이 필요함.

[표 4-1] 거버넌스 영역의 서울시 먹거리정책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시민.전문가 참여 식품안전 관리체계 운영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수도권 식품안전실무협의회, 식품안전 협의체 운영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 食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서울 푸드플랜 食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서울 먹거리 실태 현황 조사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한 정책 기반 마련, 지속가능한 먹거리 만들기 시민 공감대 형성 홍보 및 교육
시민 식품검사청구제 운영	시민이 안전성, 위해 물질 함유 등이 우려되는 제품에 대하여 식품검사를 청구하여 부적합 식품 회수·폐기 및 정보공개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서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고 통합 관리, 민원 신속 처리 및 포상금 지급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계몽 활동
식품 중 방사능 안전 모니터단 운영계획	모니터단 역할 안내 및 교육, 유통식품 기획 수거검사, 방사능 오염 식품 관련 보도 모니터링, 방사능 시민의식 조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정기협의, 식품 중 방사능 안전 관련 정보 등 공개

[표 4-2] 밀라노 협약 거버넌스 실행전략과 서울시 먹거리 거버넌스 관련 정책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거버넌스 실행전략	서울시 먹거리 거버넌스 관련 정책
부처 간 먹거리협력체계	(※ 2016년 후반, 먹거리마스터플랜 관련 TF에 관련 부처 참여 중)
이해관계자 참여	• 시민전문가 참여 식품안전 관리체계 운영 •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 식품 중 방사능 안전 모니터단 운영계획 • 시민 식품검사청구제 운영
지역 주도, 시민사회 먹거리운동	(※ 더 검토할 여지가 있음)
도시 먹거리정책과 계획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 食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다부문 먹거리 정보체계	-
재난위험 경감 전략	-

2) 지속가능한 식생활과 영양 영역의 서울시 먹거리정책

- 서울시가 가장 많은 정책사업을 하고 있는 영역으로 모두 62개 정책사업이 2년간 추진되었음. 지속가능한 식생활과 영양 영역에는 시민 체감형이자 사회문제형인 식품안전, 위생, 원산지표시, 당·나트륨·지방 과다섭취 등의 다양한 정책이 포함됨.
- 지속가능한 식생활과 영양 영역의 사업예산 중 92%를 친환경급식지원사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4%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차지하고 있어 나머지 매우 적은 예산 범위에서 60여 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음. 다양하지만 분산된 형태에서 벗어나 모든 시민의 지속가능한 식생활과 균형 있는 영양상태를 목표로 한 통합적인 전략체계를 통해 유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표 4-3] 지속가능 식생활과 영양 영역의 서울시 먹거리정책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식품 중 방사능 검사 강화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시민 방사능 검사 신청제 실시, 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즉시 실시간 공개, 부적합 농수산물 압류폐기
식품안전 프로그램 확산 및 모니터링	서울시 유통·소비 식품 중 위해우려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식품안전위해요소 생활실천 권고안 마련 및 보급
서울식품안전뉴스 발행 및 시민리포터 운영	서울식품안전뉴스 제작(웹진/월간지), 서울식품안전 시민리포터 운영, 독자 모니터링 실시 및 편집기획회의 개최
식품안전 전문교육	식품안전 전문교육, 시장 상인·소규모 제조업소·중소형 슈퍼마켓 등에 찾아가는 식품안전교육
공공시설 내 탄산음료 판매제한	서울시·지하철·지하철 자판기의 탄산음료 접근성 제한: 지하철 내 자판기 탄산음료 자진교체 및 진열비치를 하향조정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위생교육비 지원	식품접객업소 영업주의 위생교육비 지원, 위생교육, 수칙·가이드 북 제작·배포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일반음식점 대상 영업장 및 조리장 등 위생 관련 4분야 44항목에 대한 위생등급 평가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음식점 종사자, 조리 기구, 식재료 등 대상 검사 및 계절별·사회적 이슈사항 등을 반영한 기획점검
식품위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 실시	식품위생업소가 자율적으로 점검 후 식품안전정보(FSI)에 결과 입력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홍보 및 교육	지하철 게시판, 전광판, 비교전시회, 언론보도 등 맞춤형 홍보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위생분야 점검 시 계절 및 이슈사항을 반영한 원산지 지도점검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원산지 지도서비스	소규모 식품접객업소를 방문하여 위생·원산지 지도서비스
길거리 식품 관리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길거리 음식의 위생관리 매뉴얼(가이드라인) 제시, 위생관리 표준 운영절차 및 위생수칙 홍보
축산물 밀집지역 안전관리 계획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점검, 자육온반차량 위생관리, 축산물 수거 검사
일반지역 축산물 취급업소 합동관리	전통시장·주방가 등 일반지역 축산물 단계별 점검, 전통시장 미 포장 닭고기 판매허용에 따른 위생관리 교육 강화,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
축산물 냉장유통체계 관리 강화	유통과정에서의 냉장유통체계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과정 단계별 위생관리 강화
식육판매점 위생관리능력 향상지원	식육 및 취급 도구의 미생물 검사, 위해 요인 분석 및 위생진단 컨설팅 제공
축산물내 유해 잔류물질 검사	유통 축산물 중 잔류물질 검사 및 비의도적 유해 오염도 조사
축산물 성분규격 및 품질검사	유통 축산물과 소규모 축산물 가공업소의 생산제품에 대한 성분 규격 및 가공기준 검사 강화
축산물 미생물 시험검사	식육,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의 미생물 시험검사
대형유통업체 축산코너 목장갑 치우기 프로젝트	대형유통업체와 협력하여 축산코너의 목장갑을 라텍스 등 위생 장갑으로 개선 등 위생관리 기준 강화
축산물 이동판매(직거래) 차량 지도·점검계획	산지에 식육판매업 영업장을 둔 축산물 이동판매(직거래) 차량을 시민감시원이 참여하여 민·관이 합동으로 지도·점검
축산물 이력제 관리	소 사육농가 송아지 출생 시 서울축협에서 농장을 방문하여 개체별 귀표를 부착하고 부착비 지원

[표 4-3 계속] 지속가능 식생활과 영양 영역의 서울시 먹거리정책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한우 유전자 판별 및 축산물 이력제 검사	한우고기 취급업소에 대한 한우유전자 판별 검사 및 축산물 이력 추적제 검사
축산물가공품 사용원료 유전자 판별 검사	축산물가공품의 사용원료에 대한 표시사항과 다른 종의 식육혼입 판별을 위한 유전자 검사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HACCP 인증을 원하는 축산물 취급업소에 컨설팅 비용 지원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안전관리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부적합한 농산물은 회수폐기하고 관련 법에 의거하여 출하 제한 조치
유통 농수산물 안전관리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과 식약공용한약재에 대한 검사 실시 및 정보 제공
2016년 농수산물 원산지 관리계획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원산지표시제 홍보, 찾아가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교육,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조사
농산물 중금속 관리 강화	서울 유통 농산물, 명절 성수식품, 봄나물 및 도시농업 농산물, 은행 등 가로수 유실수 열매, 식약공용한약재 중금속 검사
식품안전 기획기동감시	시기·계기별 식품안전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제조·조리·판매·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일상적 지도·점검, 위해식품 수거검사, 기동감시반 운영, 소비자위생감시원 참여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유통 건강기능식품의 수거검사를 확대 실시
유전자변형 식품(GMO) 표시 등 안전관리 강화	두부, 콩나물, 떡 생산업체 대상으로 GMO 식품 표시대상 및 방법 지도, 수거 및 검사 실시
건강한 시민을 위한 식생활교육 추진	서울시 식생활교육계획 수립(5개년), 서울시 식생활교육 수행 및 지원, 농식품 스마트소비 아카데미 운영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학교 경계선 200m 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영업자 자율점검제 실시, 전담 관리원 지정·운영, 불량식품 단속 및 식품안전 지도 계몽, 표지판 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및 관리	학교 경계선 200m 이내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관리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식품 영양표시 확인 및 식품첨가물 분석실험, 올바른 식품선택방법 등 교육, 농산물 생산부터 소비과정, 농어촌 체험 바른 식생활 체험학교, 바른 먹거리 조리교실, 저염조리법 등 교육
식중독 신속대응 및 예방 홍보	상시 대응체계 구축·운영,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소·소규모 급식소 등 지도·점검 실시,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식중독 예방 및 원인균 검사	식중독 발생 우려 식품 식중독균 검사 및 분리확인시험, 집단식중독 발생 관련 식중독 원인균 검사, 지하수 및 식품 중 노로바이러스 상시 감시체계 확립 등
유해물질 위해예방 선행조사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우려요소, 신종유해물질 사전 차단, 규격 미설정 유해물질 모니터링 기준설정의 기초자료 및 안전성 확보 초석 마련, 영양성분 함량 조사 및 정보 공개로 시민 공감형 안심 식품정보 제공
채식하기 좋은 환경만들기	급식소 '채식의 날' 운영, '채식전문음식점' 등 지정·운영, 채식메뉴 자율표시 유도, '채식 식단 활성화' 홍보, 간담회 및 자문회의, 채식 관련 시민 식습관 인식도 설문조사
식품제조·가공업체 안전관리 강화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등급 구분하여 품질관리 능력 평가 및 우수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표 4-3 계속] 지속가능 식생활과 영양 영역의 서울시 먹거리정책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위생용품 위해물질 검사 강화	유통 중인 식품용 기구, 용기 포장의 원료 유해 유해성분 검사 및 합성수지제 등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에 따른 안전성 검사
유통식품 안전성 수거검사	시민 다소비 식품 및 부적합 이력이 높은 품목의 지정 반복 검사 및 도매시장·전통시장 등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
위해식품 회수관리	위해식품 회수, 공표, 모니터링, 압류·봉인, 회수제품 폐기, 회수 대상 식품 사후관리 강화
허위·과대광고 식품 단속	상시 모니터링,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요원 지정운영, ‘뺏다방’ 과대광고 행위 감시활동 강화, 허위·과대광고 단속 및 피해예방 홍보교육, 행정처분 강화 및 위반사항 공개
전통시장 식품안전 관리 지원	상인회 참여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자치구별 모범 시장 선정 중점관리, 자율점검표 등 홍보물 제작 및 배부, 위생관리 우수업소 위생용품 지원
건강기능식품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입식품 등에 대한 지도·점검, 수거·검사,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한 신속대응, 행정처분 업소 관리
나트륨 저감화 실천 및 환경조성	어린이 미각교육 프로그램, 싱겁게 먹는 식생활 배움터, 저염참여 음식점 지원, 저염실천 음식점 지정, 영양친화기업 인증, 나트륨 줄이기 실천 캠페인
식생활교육 현장체험교실 운영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만들기 및 생활용품 만들기 체험, 지역 명소 탐방 체험
식품안전정보(FSI) 홈페이지 운영·유지보수	커뮤니티 맵핑 관리, 식품안전관련 행정정보시스템 현황화 및 기능개선, 식품안전관련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시스템 모니터링 및 콘텐츠 관리, 시스템 교육지원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확대 보급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 대상업소 선정(자치구), 중소형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운영 및 교육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운영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식품안전(위생) 지도활동에 필요한 교육: 신규실무교육, 운영협의회, 실무연수회 등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식품안전 인프라 등 10개 분야 35개 지표 활용 종합평가 실시
영양 식생활실천 캠페인	어린이 식생활안전주간, 건강한미당의 영양 및 식생활 체험부스를 통한 식품모형 전시, 음식관련 사람책과의 만남, 달려라 쿠키 버스, 먹거리 체험부설 운영
건강체중 333 프로젝트	건강체중 인식을 향상, 건강체중 333 캠페인, 건강체중 동아리 활성화,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정보공유 플랫폼 운영
아동 및 청소년 식생활교육사업	식생활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활성화, 서울시 농수산식품 공사 연계사업 공동운영, 시민 체험형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성인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서비스 확대 및 운영개선, 홍보 활성화, 실무자 교육 등, 사업장 근로자 건강관리 활성화 방안에 유관사업 연계
다문화 가정 영양 및 식생활 관리사업 체계화	교육프로그램, 다양한 언어로 교육자료 번역배포, 기존자료 발굴 연계, 다문화 관련 비영리단체·기관·대사관 등과 연계추진
영양 및 식생활 통계 구축사업	지역사회건강조사·국민건강영양조사 수탁지원, 영양DB 보급, 영양정책 성과평가에 활용
영양 및 식생활 자료실 운영	국내외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자료를 대여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실, 열람실 및 영양교구 대여서비스 운영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의 영양 및 위생관리 체계적 지원: 등급제 도입, 순회방문, 레시피 제공,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3) 사회경제적 형평성 영역의 서울시 먹거리정책

- 영유아 및 임산부 영양플러스사업, 아동급식 지원사업, 아동청소년 과일먹자사업,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 허약노인 영양관리서비스 등 10여 개의 생애주기별 대상별 먹거리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사회경제적 형평성 영역의 서울시 먹거리정책은 과학적인 먹거리 취약층 파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먹거리 취약층에 건강먹거리 공급을 위한 공공급식 정책의 확대가 필요함. 지원 단위가 개인이고, 지원방법이 먹거리 현금·현물 지원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함.
- 해외도시 우수사례에서 볼 수 있듯, 지역 먹거리 산업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사회경제적 취약층 일자리 제공 등 지속가능한 생계 지원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4-4] 사회경제적 형평성 영역의 서울시 먹거리정책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인 중 교육부장관이나 시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대상으로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지원
서울역 실내급식장 운영	거리노숙인 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역 실내급식장 '따스한 채움터' 운영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경로 식당, 식사 배달, 밀반찬 배달, 특식지원 서비스 제공
푸드뱅크·마켓 운영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푸드나눔카페에서 기업이나 개인에게 기부자로부터 식품을 비롯한 물품을 기부받아 어려운 복지취약계층에 전달
학교 우유 급식지원	저소득층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 계층의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학교 우유 급식지원
학교급식 축산물 특별관리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 민관 합동 위생 점검, 학교급식 납품업체 축산물 안전성 검사

[표 4-4 계속] 사회경제적 형평성 영역의 서울시 먹거리정책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 •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 친환경급식지원위원회 운영 • 식재료 품질 및 조달기준 개선 • 안심 식재료 지킴이단 운영 • 친환경 식생활교육 학교지원 • 친환경급식 관계자 교육운영 • 친환경급식 학부모 강사 양성 • 친환경급식 유관 기관 소통 강화 • 친환경급식 열린 마당 운영 • 친환경급식 홍보자료 제작
영유아 및 임산부 영양플러스사업	• 식품패키지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운영체계 강화 • 최신 영양 이슈에 따른 영양 및 식생활교육 자료개발 • 다문화 가정의 식문화 특성을 고려한 영양·식생활교육 권역별 개설 지원 • 사업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체험형 및 실습형 교육 • 실적보고 전산시스템 구축 및 사업과정 모니터링 체계 강화
아동급식 지원사업	•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소 집행기준 신설 • 편의점 내 아동급식 품목제한 규정 • 아동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아동센터 급식 위생관리 등 지원
허약노인 영양관리서비스	• 허약노인 판정평가(4~12점 해당자) • 신체활동, 영양, 구강관리, 요실금, 우울 예방, 인지강화, 낙상 예방 등 허약노인 중재프로그램 • 구강 기능 향상 프로그램, 치매 조기 선별검사 • 폭염, 혹한 등 계절별 건강관리교육 • 취미, 종교 활동 등 사회적 참여 지지 및 독려 • 가정 내·외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등의 생활교육 •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 지지 등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 임산부 및 만 2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관리(혈액검사, 초음파 등 산전검사 지원) • 영양제 지원(엽산제, 철분제) • 영양, 운동, 태교, 부모교육 등 임산부 교실 운영 • 전문간호사의 가정방문 건강관리 • 서울 아기건강 첫걸음 사업지원단 • 전문인력기본 및 심화 교육과정 운영
아동청소년 애들아 과일먹자 사업	• 영양교육에 개발한 맛과학 프로그램 보급 • 과일공급(제철과채류 주 2회) • 사업효과 평가항목 보완 및 사업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음식으로 소통하기	• 음식나눔 및 공연봉사 • 1:1 자원봉사 멘토링 • 사랑의 푸드워크

4) 먹거리 생산 영역의 서울시 먹거리정책

- 서울시 먹거리 생산 영역의 정책은 크게 도시농업정책과 친환경 농업정책으로 나뉘는데 도시농업정책은 마스터플랜에 의해 체계적으로 추진 중임. 이 영역은 서울시 정책에서 취약한 부분으로 먹거리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를 연계하는 먹거리 공급망 관리체계의 체계적 평가와 계획이 필요함.
-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이 제안하고 해외 우수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거시적인 도시 회복력 계획, 통합적 생태적 토지이용계획과 먹거리 생산정책을 연계해야 함. 도시텃밭 사업에서 더 나아가 도시 회복력을 높이고 생태도시환경을 조성하며,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도시농업, 근교농업의 확대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또한 지역 먹거리 생산과 먹거리 사회적기업 활성화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표 4-5] 먹거리 생산 영역의 서울시 먹거리정책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서울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	•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보 • 미래 도시농업과 일자리 창출 • 도시재생과 자원순환 • 사회·문화적 역할증대 • 시민소통 확대
토양개량제 공급	• 농가 신청에 의한 규산, 석회질 비료 구입 및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고 친환경 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에 대한 일부 지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사업 운영비 지원	• 심사위원회 운영비, 사업대상자 신청 등록 시 사용하는 제반 행정서식 구입비 및 전산 보조인부 인건비 등 지원
발농업 직접 지불사업 보조금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발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발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	• 벼 병해충 항공방제 협의회 개최 • 농약살포, 헬리콥터 이·착륙장 설치 • 지도 작성 활용, 안전대책 수립
유기질비료 지원	• 12개 자치구의 농가에서 지역농협을 통해 구입하는 유기질비료·부산물비료 구입비의 일부 보조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기본계획	•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자재지원 • 토양개량 및 병해충방제용 자재지원 • 친환경농업 기술교육 확대지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및 친환경농산물인증(GAP) 농가 육성

5) 먹거리 공급·유통 영역의 서울시 먹거리정책

- 서울이 먹거리 소비 도시인 만큼 매우 비중이 높은 정책 영역임. 서울시는 공영시장을 지원하고, 먹거리 저장, 운송 등 생태적 물류시스템 확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먹거리 공급·유통 흐름을 평가해 먹거리 취약층의 물리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먹거리 공급·유통체계를 검토하고, 건강먹거리 공급을 위한 공공조달정책 강화, 소농·가족농의 시장 진입 장벽 제거 등의 노력이 필요함.

[표 4-6] 먹거리 공급과 유통 영역의 서울시 먹거리정책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 가락시장 노후시설을 재건축하여 미래형 친환경 도매시장 조성 - 농식품 체험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 확충으로 시민에게 다양한 농식품 관련 서비스 제공
정부 양곡 관리사업	• 정부 양곡 수급조절 • 유사시 대비 비축양곡 관리
정부 양곡 할인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정부 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정부 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
추석절 농수산물 서울장터 운영	• 서울시민에게 서울의 우수농산물을 홍보하여 서울농산물에 대한 인식제고와 서울 농업인의 농산물판매 촉진으로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석절 농수산물 장터 운영
도시가족 주말농부 체험	• 서울시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식생활 문화 개선을 위해 가족단위의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6) 먹거리 폐기 영역의 서울시 먹거리정책

- 서울시는 먹거리 폐기 영역의 4개 사업 모두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음. 음식물 쓰레기 처리 인프라 구축 및 감량화, 음식문화 개선, 음식물쓰레기 원천감량화,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캠페인 등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 감량화 전략사업, 음식문화 개선과 사회 캠페인 등 입체적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이 제안하는 먹거리 폐기 영역의 정책은 음식물쓰레기를 포함

해 먹거리 손실 방지와 재사용 등을 포함한 통합정책을 제안하고 있어 이를 반영해 먹거리폐기물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밀라노 협약은 안전·영양 먹거리 자원화를 목표로, 먹거리 재생과 재유통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민간협력 정책 및 규제를 동시에 개발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표 4-7] 먹거리 폐기 영역의 서울시 먹거리정책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음식문화 개선사업	• 음식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TV 다큐 제작 방영 • 채식메뉴 레시피 공모제작 홍보 • 음식문화개선 우수사업 추진단체 및 기관 지원 • 자치구 음식문화 개선사업 공모 및 지원 • 음식문화 개선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채식하기 좋은 환경만들기 업소 지원 • 먹거리종합마스터플랜 추진 • 따뜻한 먹거리 나눔 • 궁중음식과 전통발효식품의 재발견 사업 추진
음식물쓰레기 원천감량화사업	• 음식폐기물 감량 자원화 홍보사업 등 •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토론회 • 음식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점검 •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 생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
청소혁신(음식물쓰레기 처리 인프라 구축 및 감량화)	• 공공처리시설 확충, 종량기기(RFID) 설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추진계획	• 시·종로구시민 합동으로 음식점과 유동인구가 많은 통인시장과 주변 도로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시행 -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들 알아맞히기 - 생쓰레기 퇴비화를 통한 감량 방법 시연 - EM 발효액 이용한 퇴비화를 통한 감량 방법 시연 - 음식물쓰레기(수박껍질) 활용한 요리 시연 - 종량기기(RFID), 미생물발효식 감량기, 수동 탈수기 등 전시 및 안내

3_서울시 먹거리정책의 특성과 한계

- 서울시 먹거리정책 중 미흡한 영역은 먹거리 공급체계(Food supply chain) 정책
 -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이 제시한 먹거리정책 영역별로 서울시 먹거리정책 분포와 내용을 살펴보면 먹거리 생산·공급·유통·낭비 등 먹거리 공급체계정책이 가장 미흡하였음. 먹거리 폐기 영역은 먹거리 손실의 근본적인 방지와 먹거리 재생, 재유통 등 자원화 정책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거버넌스	지속가능 식생활·영양	사회경제적 형평성	먹거리 생산	먹거리 공급유통	먹거리 폐기
부처 간 협력 체계 (인권 기반)	지속가능식생활 증진 (건강, 안전, 환경, 문화, 인권)	먹거리취약층 (현금원물 지원)	도시, 근교 먹거리생산거점 (도시회복력계획 결합)	도시먹거리 흐름 평가 (취약층집중, 탄소저감 물류)	먹거리 전 체계의 통합 계획(손실, 낭비, 재사용)
이해관계자 참여 증진 (다중플랫폼)	부족, 비만 관련 NCD (채식, 가공, 3저 등)	학교 등 공공급식 전환 (지역, 재첩먹거리)	도시근교 생산가공유통 집중 (소농, 가족농, 여성, 청년)	도시근교 인근농촌 공급망 연계(중소규모산업체)	먹거리낭비 인식 증진 (이벤트, 캠페인 거점 활용)
지역이니셔티브, 시민운동 Map화(정책전환)	지속가능영양 지침 (모든 시민, 공공급식)	먹거리농업부분 적절 고용 (공장가래·가격, 여성)	통합적 토지이용계획관리 (생태적, 위험 최소화)	먹거리관리체계 강화 (책임, 시장접근성, SHE통합)	민간협력 정책, 규제 개발 (안전포장, 등급활용 등)
먹거리정책, 계획 발전 (자원, 규제, 역량)	지속가능식생활, 안전식수 (공공영역 접근성)	사회적연대경제 지원 (지속가능생계, 접근성)	농지 이용권, 접근성 보장 (토지이용 도시개발계획)	공공조달, 거래정책 (건강먹거리, 유통유통, 취약층고용)	재생·재유통 (안전영양먹거리 자원화)
다부문 먹거리정보체계 (책무성, 시민사회연계)	규제·자발적 수단 활용 (국제규범, 민간협력)	네트워크 플루리 지원 (마을공동체)	먹거리생산자 지원 (다세대, 경제활력 체계)	공공시장지원정책, 사업 (시장시스템)	
재난위험경감전략 (먹거리체계 회복력)	건강과 먹거리 공동행동 (인간중심 통합전략)	참여형 교육, 훈련, 연구 (사회경제적 형평성, 인권)	도농 사회경제연계 사업 (짧은 먹거리체인, 플랫폼)	도시구매자, 근교농촌판매자 연계(시장시스템)	
	안전식수, 위생 보편적접근 (시민사회파트너십)		농업, 먹거리 물관리, 재활용 (참여적 접근)	먹거리체계 비공식부분 기여 (일자리, 지역음식, 환경)	

[그림 4-8]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영역과 실행과제 중 서울시 정책 미흡 분야

거버넌스	지속가능 식생활·영양	사회경제적 형평성	먹거리 생산	먹거리 공급·유통	먹거리 폐기
시민사회 참여	시민제강령, 사회 문제형 사업: 나트륨, 당, 지방, GMO, 방사능오염, 표시 (원산지 등)	취약층 급식 지원사업 (아동, 노인, 임산부)	도시농업마스터플랜 시행(통합적 접근)	공영시장(공공) 지원	음식물쓰레기, 원천감량화사업
다부문협력 시도	방사능오염, 표시 (원산지 등)	(아동, 노인, 임산부)	친환경농업 지원	먹거리저장, 운송, 유통 인프라	먹거리낭비 인식개선 사업
지역사회 활용	현장형 위생감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개편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업	인프라구축
먹거리마스터플랜					현장캠페인
건강·먹거리정책 연계 시도					
거버넌스	지속가능 식생활·영양	사회경제적 형평성	먹거리 생산	먹거리 공급·유통	먹거리 폐기
시민참여방법문제 (지역이니셔티브)	친환경급식지원 사업 편중	대상 제한: 가구	도시텃밭 편중	먹거리흐름평가 (취약층 물리적 접근성) 미흡	음식물쓰레기, 처리 집중
먹거리정책 목표와 전략 합의 부족	60개 사업예산 (4%)	지원 단위: 개인	도시, 근교농업과 도시회복력계획 미흡	건강먹거리 공급 위한 공공조달과 거래정책 확대 필요	재사용, 재유통, 재분배 정책 미흡
지역사회 먹거리생태계 (자원) 파악 및 조화필요	전 시민 영양균형 & 지속가능식생활 목표와 전략 미흡	지원방법: 먹거리 현물, 현금 지원	사회적경제, 대안 시장시스템 지원 미흡	학교급식 물류, 인프라, 시설 편중	이해관계자 참여 (가공, 외식산업) 부족
특정사업 자원 집중	공공급식 건강먹거리, 영양지침	공공급식정책: 건강먹거리 공급 (제철먹거리공급 연계 등)	통합 토지이용계획 관리(기후변화, 생태, 농지보전, 관광, 레저 등) 필요	시민접근성 강화필요	
재난위험경감 등 먹거리위기대응 전략 부재		먹거리, 농업부분 지속가능 생계	시민의 농지 접근, 이용권 확대 필요	소농, 가족농 시장진입 장벽 제거 필요	
다부문 먹거리 정보체계 부재					

[그림 4-9]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에 따른 서울시 먹거리정책 특성과 한계

05

결론 및 제안

- 1_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은 무엇인가?
- 2_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의 특징과 정책적 함의
- 3_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에 따른 서울시 먹거리정책 진단
- 4_서울시 먹거리정책 개선방향

05. 결론 및 제언

- 서울시는 2015년 “서울시 먹거리종합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하여 민간자원, 지역 사회, 시민과 함께 먹거리정책의 공감 및 지지기반을 마련하고 세계 여러 도시와 먹거리 관련 가치, 정책, 사업 등을 협업 및 공유하기 위해”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에 참여한다고 밝힘.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에 가입한 서울시는 앞으로 협약의 실행과제를 이행하고 이를 매년 보고하며 협약에 참여한 도시들과 공유해야 함. 국제적으로 광범위한 합의를 통해 도출된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을 서울시 먹거리정책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에서 제시하는 먹거리정책 틀과 실행전략에 비추어 서울시 먹거리정책을 진단하고 특성과 개선사항을 파악해 보았음. 이를 통해 현재 수립 중인 ‘서울시 먹거리마스터플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의 내용을 소개하고 시사점도 제시함.
-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에 따라 서울시 먹거리정책을 조명해야만 하는 이유는 식품안전위생관리가 주요 축이던 서울시 먹거리정책을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로 변모시키고 먹거리정책을 글로벌스탠더드화하는 데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의 원칙과 내용이 매우 유용하기 때문임. 이 과정을 통해 국제사회에 제시할 수 있는 서울시 먹거리정책 브랜드를 발굴하고,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이 권장하는 국제적 파트너십을 통해 서울시의 사회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될 수 있을 것임.

1_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은 무엇인가?

- 도시 차원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의 확산을 통해 먹거리 위기에 대응하고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과 건강권을 지키려는 것
 -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Milan Urban Food Policy Pact)은 전 세계 도시에

게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개발을 촉구하는 최초의 국제 의정서임.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에서 제시하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란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고 안전하고 다양한 먹거리 체계, 인권에 기초하여 모든 시민에게 제공되는 건강하고 적절한 가격의 먹거리 체계, 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응하는 동시에 이를 완화시키면서 낭비를 최소화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먹거리 체계를 말함(FAO, Milan Pact).

- 2015년 10월 15일 100여 개 도시가 지속가능한 먹거리정책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서약하는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을 채택함. 먹거리정책의 공동 원칙과 과제를 담은 협약에는 2016년 현재 133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음.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은 거버넌스, 지속가능 식생활·영양, 사회경제적 형평성, 먹거리 생산, 먹거리 공급·유통, 먹거리 폐기 등 모두 6개 정책 영역의 37개 실행전략(또는 과제)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 세계가 당면한 먹거리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등장
 - 세계적으로 먹거리 소비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먹거리 공급과 소비의 균형이 상실되었고, 지역 간 먹거리 분배 문제와 격차는 더욱 심각해짐. 한편, 식량의 독점화와 상업화는 가속화되어 토지와 자원을 다국적기업에 내주고 있고 저개발 국가들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식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국가들은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위기에 당면함. 도시들은 점차 먹거리 생산체계에서 배제되고 도시 내 먹거리 생태계도 파괴되어가고 있어 생존을 위해 도시를 생태적으로 복원하고 도시와 농촌 간 생태적 연결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많은 도시의 시민들은 먹거리 기본권을 훼손당하거나 여전히 영양결핍이나 기아라는 먹거리 취약상태에 놓여있음.
- 잘못된 먹거리로 인해 증가하는 시민의 건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등장
 - 도시에서 집단으로 발생하는 식중독과 같은 식품 기인성 질환에서부터 잘못된 도시 먹거리 습관으로 발생하는 생활습관성 질환 증가는 물론 영양결핍, 불균형, 과잉으로 인한 질병도 심각해지고 있음. 또한 현재의 먹거리 체계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먹거리 안전문제까지 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먹거리 위기상황은 글로벌 차원의 지속가능 먹거리 체계에 관한 관심을 고조시켰고 유럽 등 선진국가를 중심으로 공조하는 배경이 되었음.

2_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의 특징과 정책적 함의

-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은 규범적 선언을 넘는 먹거리정책들
 - 먹거리정책과 관련한 최초의 국제 의정서로서 규범적 선언을 넘어 도시먹거리정책의 구조적 틀과 통합적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은 또한 유엔 “The Zero Hunger Challenge”와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비전을 공유하고 있음.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Rio+20)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The Zero Hunger Challenge”를 통해 모든 시민의 배고픔을 없애고 모든 형태의 영양결핍을 없애며 포괄적인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음. 이는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의 지속가능먹거리 체계와 비전을 함께 하고 있음. 2015년 9월 유엔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제2 목표: 배고픔 종식, 먹거리보장과 나은 영양 상태의 달성, 지속가능한 농업의 증진(Goal 2: 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도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
-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은 먹거리정책의 개념을 제시
 - 특히 지속가능먹거리 체계(sustainable food system)와 지속가능 식생활(sustainable diet)에 대한 정책적 개념을 정의, 제시하고 있음.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란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고 안전하고 다양한 먹거리 체계, 인권에 기초하여 모든 시민에게 제공되는 건강하고 적절한 가격의 먹거리 체계, 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응하는 동시에 이를 완화하면서 낭비를 최소화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먹거리 체계를 말함(FAO, Milan Pact). 지속가능 식생활이란 건강하고 안전하며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환경적으로 친화적이며

인권에 기반한(healthy, safe, culturally appropriate,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rights-based) 식생활을 말함.

- 먹거리 공공성을 강조하고 정책목표, 정부의 개입 근거와 영역 제시
 -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은 먹거리에 대한 시민의 권리(right to food)를 넘어 모든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healthy and safe food for all)를 강조하고 있음. 먹거리에 대한 공공성을 강조하고 먹거리 기본권과 먹거리 정의(형평성)를 위한 정책적 개입 당위성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은 먹거리 보장에 초점을 두고, 배고픔과 비만에 대응하고, 먹거리 낭비를 감소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특히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은 도시먹거리정책의 세 가지 목표를 강조하고 있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시민의 권리(the right to healthy and safe food for all) 확보, 모든 시민의 건강한 영양(Healthy nutrition), 먹거리 낭비를 피하기 위한 자원관리임.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시민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가용성(availability)과 접근성(accessability)이 보장되어야 함.
 - 그 밖에 철저한 지역 이니셔티브와 시민사회단체 주도를 강조하고 있으며, 먹거리 취약층, 취약지역 해소 방안 등 먹거리 정의에 가치 기반을 두고 있음. 건강, 환경, 경제정책 등 통합과 연계를 강조하고 대안먹거리 산업, 순환 먹거리(생산, 분배, 소비) 체계, 먹거리 취약층 운영 마켓, 공공상점, 취약지역 도시농업 단지화, 쓰레기처리장 농지 활용 등을 제안하고 있음.
-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은 먹거리정책 실행전략 제시
 - 도시먹거리정책에 대한 합의적 협약문(Milan Urban Food Policy Pact), 실행을 위한 도시먹거리정책틀(Urban Food Policy Framework for Action), 밀라노 도시먹거리정책 협약 우수 도시 사례(Milan Urban Food Policy Pact. Selected Good Practices from Cities) 등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해 협약 가입 도시들이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특히 '실행을 위한

도시먹거리정책들'은 먹거리정책 거버넌스, 지속가능 식생활과 영양, 사회경제적 형평성, 먹거리 생산, 먹거리 공급과 유통, 먹거리 폐기 등 모두 6개 영역 37개 분야의 권장 실행전략과제로 구성되어 있어 먹거리정책을 위한 지침이자 체크리스트로 활용할 수 있음.

-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은 먹거리 거버넌스, 지역·국가·글로벌 조화와 협력 위한 먹거리정책의 국제 표준화, 선진 도시의 사회책임 강조
 - 우수 도시사례 제시를 통해 먹거리정책거버넌스와 부문 간 협력체계(inter-sectoral collaboration) 유형과 먹거리정책의 계획, 실행, 평가에 참여할 주요 행위자(actors)를 제시하고 있음. 한편,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은 도시먹거리정책의 국제적 표준화, 지역·국가·글로벌 먹거리정책의 일관성을 꾀하고자 함.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은 먹거리정책을 내용으로 한 도시 간 협력네트워킹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개도국 도시들의 참여와 선진국 도시들의 사회책임을 강조하고 있음.

3_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에 따른 서울시 먹거리정책 진단

- 서울시 먹거리정책의 거버넌스 영역
 -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이 제시한 거버넌스 영역의 6개 실행전략 중 2개 부문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건강, 복지, 환경, 경제, 에너지 등 다부문과 지역을 아우르는 먹거리 정보체계가 없고, 기후변화나 식량 가격 파동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경감을 위한 먹거리위기대응체계가 미흡했음.
 - 서울시는 2014년 食 거버넌스를 표방한 이후 먹거리정책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먹거리마스터플랜을 마련 중임. 시민의 직간접적 참여와 먹거리 시민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사회의 참여하에 먹거리마스터플랜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나, 여전히 시민이나 시민단체의 참여 형태가 모범 도시사례에 비해 소극적이고 형식적임. 시민과 시민단체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먹거리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고 먹거리정책위원회가 설립되어 진정한 의미의 정책거버넌스가 구현되어야 함. 한편, 지역의 먹거리 생태계를 복원,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먹거리 관련 시민단체 활동을 장려하고 먹거리 관련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서울시 먹거리정책의 지속가능한 식생활·영양 영역

- 지속가능한 식생활과 영양 영역은 서울시 먹거리정책 중 사업의 수가 가장 많고 예산 비중이 가장 높음. 이 영역에는 시민 체감도가 높고 사회문제형 쟁점과 밀접한 정책이 많은데 식품안전, 위생, 표시, GMO, 방산농식품 오염 등이 있음. 서울시는 이 영역에서 나트륨 저감화사업, 건강체중 프로젝트, 음식점 위생등급제, 아동 및 청소년 식생활교육사업 등 무려 60여 개 사업을 추진 중임.
- 시민의 관심이 높은 영역인 만큼 다양한 사업이 추진 중이나 실제 예산 투입 현황을 보면 지속가능한 식생활과 영양 영역의 96%의 예산은 친환경급식지원사업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사업이 차지하고 있음. 60여 개나 되는 사업이 적은 예산범위에서 추진되다 보니 단기적 단위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분산된 형태에서 벗어나 모든 시민의 지속가능한 식생활과 균형 있는 영양상태를 목표로 통합적인 전략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간에 유기적으로 추진해야 함.
- 지속가능한 식생활과 영양 영역의 사업은 특성상 시민의 실천과 먹거리 산업계의 사회적책임이 병행되어야만 함. 행정 규제 외에 민간의 참여와 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국제규범과의 조화를 꾀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서울시 먹거리정책의 사회경제적 형평성 영역

- 현재 영유아 및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 아동급식 지원사업, 아동청소년 과일먹자 사업,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 허약노인 영양관리서비스 등 10여 개의 생애주기별·대상별 먹거리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먹거리 취약층 지원은 서울시가 주력하고 있는 정책 영역이지만 크게 두 가

지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첫째, 현재의 취약층 대상 먹거리정책은 실행주체별, 수혜대상별로 지나치게 부서 간에 분산되어 있음. 둘째, 대부분의 먹거리 지원이 먹거리정책이 아닌 경제적 취약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로 집행되고 있음. 그 밖에 먹거리 취약층 산정 방식이나 지원 규모, 방법 등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 지원 단위가 개인이고, 지원방법이 먹거리 현금·현물 지원이라는 한계도 있음. 과학적인 방법으로 먹거리 취약층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먹거리 취약층 감소 목표와 성과를 관리하는 먹거리 지원정책이 필요함. 여러 도시들이 사회서비스와 먹거리 지원서비스를 구분하는 이유임.

- 한편 먹거리 취약층에 건강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공공급식정책의 전환과 확대가 사회경제적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음. 또한 해외 도시의 우수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 먹거리산업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사회경제적 취약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생계지원 정책은 사회경제적 형평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정책이 될 수 있음.
- 서울시 먹거리정책의 먹거리 생산 영역
 - 먹거리 생산 영역의 서울시 정책은 크게 도시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정책으로 나뉘는데 도시농업정책은 서울도시농업 2.0마스터플랜을 통해, 친환경농업정책은 친환경농업활성화지원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더 나아가 거시적인 도시 회복력 계획이나 생태적 토지이용계획과 먹거리생산정책을 연계해야 함. 도시텃밭사업에 머물기보다 도시 회복력을 높이고 생태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농업정책이 필요함.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도 도시·근교농업은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지역 먹거리생산과 먹거리 사회적기업 활성화전략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함.
- 서울시 먹거리정책의 먹거리 공급·유통 영역
 - 서울시는 공영시장을 지원하고 먹거리 저장, 운송 등 물류시스템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임. 그러나 먹거리 공급·유통 정책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어야

함. 예를 들어, 먹거리 공급·유통 흐름을 평가해 먹거리 취약층의 물리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먹거리 공급·유통체계를 검토해야 함. 또 건강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공조달정책을 강화하고, 소농·가족농의 시장 진입 장벽이나 유통 장애를 없애야 함.

○ 서울시 먹거리정책의 먹거리 폐기 영역

- 서울시가 먹거리 폐기 영역의 4개 사업 모두를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임. 4개 사업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인프라 구축 및 감량화, 음식문화 개선, 음식물쓰레기 원천감량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등임. 그러나 먹거리 폐기 영역의 정책에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 먹거리 손실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는 먹거리 재생과 재유통 정책이 포함되어야 함.

4_서울시 먹거리정책 개선방향

○ 시민사회 합의와 현장에 기반을 둔 먹거리정책거버넌스 제도화

- 서울시 먹거리마스터플랜은 먹거리정책 목표와 전략에 대한 시민사회의 합의와 지역사회 먹거리생태계 분석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함. 서울시 먹거리거버넌스는 시민의 부분적 참여 형태에서 벗어나 ‘시민·지역·현장이 주도하는 먹거리정책거버넌스’로 발전해야 함. 이를 위해 시민단체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먹거리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먹거리정책위원회를 설립해야 할 것임.
- 늘어나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재난위험으로부터 ‘시민 건강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먹거리 위기대응전략을 강화해야 함. 다부처·시민사회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다부문 먹거리 정보체계’를 개발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임.

○ 먹거리정책의 질적 전환과 양적 확대

- 그동안 식품위생, 안전, 영양정책 범주에 머물러왔던 서울시 먹거리정책을

질적으로 전환하고 양적으로 확대해야 함. 먹거리 생산부터 폐기까지를 포괄하는 먹거리 공급망 관리체계를 먹거리정책 범위로 확대해야 하며, 먹거리 문제 대응형에서 먹거리 문제 원인해소형으로 질적인 전환을 해야 함.

- 모두 160개에 달하는 먹거리정책사업이 실행 중이나, 기본계획을 마련해 추진되는 사업은 9개이며 대부분 단일과제사업임. 친환경학교급식지원계획, 친환경농업활성화지원사업기본계획, 서울도시농업 2.0마스터플랜, 농수산물원산지관리계획, 음식문화개선사업,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 음식물쓰레기 처리 인프라 구축 및 감량화사업,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추진계획, 나트륨 저감화 실천 및 환경조성 등이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 통합먹거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정책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체계를 정비하여야 함. 먹거리정책추진체계도 부처 간 협력체계나 먹거리정책거버넌스가 강조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시민건강국의 식품안전과가 주축이 되고 있어 통합먹거리기본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위상과 권한을 갖춘 조직체계가 필요함.
- 지역먹거리생태계 활성화와 도시회복력 증진 위한 먹거리 기본계획 마련
 -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를 통해 도시농업, 귀촌귀농, 공영시장 시설 현대화, 전자경매시스템, 원산지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 중임. 그러나 서울시의 먹거리 기본계획은 먹거리 생산·공급·유통 정책을 도시회복력 계획이나 기후변화 대응·생태 보전·에코서비스산업 육성 등 서울시의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해야 함. 시민의 건강먹거리 시장 형성을 위해 사회적경제의 확대 등도 서울의 건강먹거리 비전 사업이 될 수 있음. 먹거리 유통 흐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신선한 먹거리 공급이 어려운 취약지역 등을 파악하여 모든 시민의 건강먹거리 접근성(먹거리사막의 해소)을 높여야 함.
- 먹거리 형평성 제고를 위한 통합 먹거리지원정책 수립
 - 서울시의 먹거리 미보장인구는 2015년 현재 약 10%에 해당함. 지역별·계층별·연령별 먹거리 격차도 매우 심각함. 먹거리 미보장인구의 영양결핍 상태는 심각하며, 유병률은 먹거리가 충분한 인구에 비해 3~4배 높은데 그 중 뇌

졸중 유병률은 4배 이상 높음.

- 서울시가 현재 영유아 및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 아동급식 지원사업, 아동 청소년 과일먹자 사업,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 허약노인 영양관리서비스 등 10여 개 먹거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먹거리 취약층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평가가 절실함.
- 먹거리 지원정책이 수혜대상별로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고 대부분의 먹거리 지원이 사회서비스를 통해 집행되다 보니 먹거리 취약층 산정 방식이나 지원 규모, 지원방법 등에 실효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먹거리 취약층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목표와 성과를 관리해야 함.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차원이 아닌 먹거리정책으로서 통합적인 먹거리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함.
- 공공급식의 확대
 - 모든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확립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은 공공급식정책임.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만성질환자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취약층에게 건강먹거리를 제공하여야 할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는 강력한 정책이 공공급식임. 한편, 공공급식을 공공먹거리정책이나 함께먹는밥 정책 등 시민친화적인 명칭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 먹거리 취약층에 건강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급식정책의 확대가 필요함. 이는 서울의 먹거리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것임. 지역의 공공급식을 기관에서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골목 상점(마을밥상)을 열어 사회경제적 취약층에게 운영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서울시나 서울시가 운영·관리하는 기관의 식당, 구청 식당은 시민에 모두 개방하도록 해야 함. 한편, 지역 먹거리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회경제적 취약층에 일자리를 우선 제공하도록 일정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모든 시민에 충분한 영양 공급과 영양불균형 방지 위한 식생활정책 개발
 - 지속가능한 식생활영역에는 시민체감형, 사회문제형 사업이 가장 많음. 서울

시는 이 영역에서 나트륨 저감화 사업, 건강체중 프로젝트, 음식점 위생등급제, 아동 및 청소년 식생활교육사업 등 60여 개 사업을 추진 중임. 예산 투입도 가장 많이 하고 있음. 앞으로 행정 규제 외에 민간의 참여와 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국제규범과의 조화를 꾀하려는 실질적인(형식적일화성이 아닌) 노력이 필요함.

○ 대안먹거리 산업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 먹거리 취약층에게 건강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 시장과 상점을 만들어 운영하는 해외도시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에 늘고 있는 것은 패스트푸드점과 대형 식당임. 주차장을 마련하지 못한 소규모 음식점은 성공하기 어려운 현실임. 먹거리 취약층을 위한 지역사회 신선 먹거리 시장과 상점을 늘려 도매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상점을 먹거리 취약층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음. 취약지역, 지구를 도시농업 단지화하여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재사용, 재유통 등 선순환 먹거리 자원정책 시행

- 먹거리 폐기 영역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인프라 구축 및 감량화, 음식문화 개선사업, 음식물쓰레기 원천감량화 사업,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등 4개 사업이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 음식물쓰레기 처리 차원을 넘어 먹거리 재사용과 재유통 등 근본적으로 먹거리 자원의 손실을 방지하고 먹거리 폐기를 줄이는 정책으로 진화해야 함. 가공산업, 외식산업 등 다양한 시장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는 전략 마련도 필요함.

○ 먹거리정책의 과학적 근거 확보와 통합적 먹거리 정보체계 구축

- 먹거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먹거리 소비실태, 서울 전역의 먹거리 생산-공급-유통 실태, 먹거리 산업 현황, 지역 먹거리 생태계와 자원 현황 등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와 정기적인 모니터링 자료가 확보되어야 함. 이 때문에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도 다부문 간 먹거리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촉구하고 있음. 서울시는 다부문과 먹거리 공급망을 통합한 먹거리 정보

시스템을 시급히 개발해야 함.

-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의 적극적 활용과 서울 먹거리정책 브랜드 발굴
 - 여러 선진 도시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개발된 만큼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울시가 활용할 가치가 있음. 우선 먹거리정책의 원칙과 목적, 틀, 전략, 실행지침, 평가틀로 활용할 수 있음. 서울시와 유사한 메가시티 모델인 뉴욕, 토론토, 파리, 런던 등의 우수 정책사례도 참고할 수 있음.
 - 서울 먹거리정책의 특성(SWOT)을 진단하고, 우선순위 정책의제와 사업을 선정하고, 주요 사업의 목적과 범위를 평가하는 데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현재 마련 중인 먹거리마스터플랜이나 食 거버넌스 개선에도 활용할 수 있음.



참고문헌

서울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2016, 2016년 서울시 영양사업 추진계획

서울시 식품안전과, 2015, 2016년 서울시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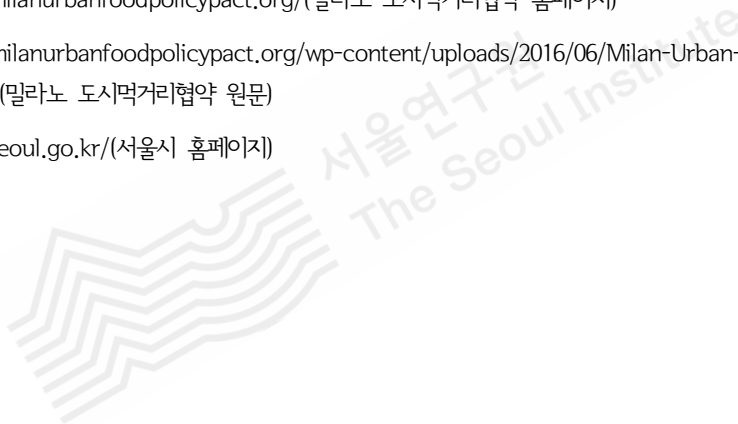
지역재단·환경재단, 2016, 기후변화 시대, 2030 SDGs 공익재단 네트워크 1차포럼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속가능한 먹거리

<http://www.foodpolicymilano.org>(밀라노 먹거리정책 홈페이지)

<http://www.milanurbanfoodpolicypact.org/>(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홈페이지)

<http://www.milanurbanfoodpolicypact.org/wp-content/uploads/2016/06/Milan-Urban-Food-Policy-Pact-EN.pdf>(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원문)

<http://www.seoul.go.kr/>(서울시 홈페이지)



부록

1_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영문 전문)

Acknowledging that cities which host over half the world's population have a strategic role to play in developing sustainable food systems and promoting healthy diets, and because while every city is different, they are all centres of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innovation, and manage vast public resources, infrastructure, investments and expertise;

Noting current food systems are being challenged to provide permanent and reliable access to adequate, safe, local, diversified, fair, healthy and nutrient rich food for all; and that the task of feeding cities will face multiple constraints posed by inter alia, unbalanced distribution and access, environmental degradation, resource scarcity and climate change, unsustaina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patterns, and food loss and waste;

Acknowledging that accelerated urbanisation is profoundly impacting our world - in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dimensions - which therefore necessitates re-examination of the ways in which cities are provisioned with food and water as well as other essential goods and services;

Acknowledging that hunger and malnutrition in its various forms exist within all cities, posing great burdens on individual health and well-being and thus generating major social and economic costs at household,

community, municipality and national levels;

Recognizing that family farmers and smallholder food producers, (notably women producers in many countries) play a key role in feeding cities and their territories, by helping to maintain resilient, equitable, culturally appropriate food systems; and that reorienting food systems and value chains for sustainable diets is a means to reconnect consumers with both rural and urban producers;

Acknowledging that urban and peri-urban agriculture offers opportunities to protect and integrate biodiversity into city region landscapes and food systems, thereby contributing to synergies across food and nutrition security, ecosystem services and human well-being;

Acknowledging that since food policies are closely related to many other urban challenges and policies, such as poverty, health and social protection, hygiene and sanitation, land use planning, transport and commerce, energy, education, and disaster preparedness, it is essential to adopt an approach that is comprehensive, interdisciplinary and inter-institutional;

Acknowledging that civil society and the private sector have major roles to play in feeding cities, bringing experience, innovation and campaigns for more sustainable food systems and mainstreaming the critical need for a socially inclusive and a rights-based approach in urban food policy;

Recalling that cities have made commitments to address climate change; to promote strategies and actions for mitigating GHG emissions and adapting cities to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urban food systems (for example in successive World Urban Fora and the upcoming Habitat III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and to

promote sustainable management of biodiversity through city biodiversity initiatives as part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cknowledging that cities and their neighbouring territories will be active in operationalising international processes such a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nd targets i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that they will be involved in the upcoming negotiations for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OP21), as well as contribute to the Zero Hunger Challenge, address sustainable urban diets in the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trition, and play important roles in the post-2015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_2015년 해외 도시먹거리정책 우수사례 도시별 특징

1) 거버넌스

① 먹거리정책 개발의 참여적 접근법 - 밀라노(이탈리아)

- 밀라노의 먹거리정책 채택 과정은 4단계로 진행됨. 우선 밀라노 먹거리 체계와 그 행위자들을 분석한 다음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 과정에서 확인된 목표를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하고, 마지막으로 추진해야 할 시범 프로젝트들을 제안함.
- 두 번째 단계인 시민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플랫폼으로 시민들을 참여시킴. 이는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먹거리정책 개발과정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임. 이를 위해 웹사이트 foodpolicymilano.org를 출범시키고(이 사이트에는 먹거리정책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가 포함됨),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캠페인도 전개함.
- 2015년 초 여러 차례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행사와 워크숍이 열렸고, 2월에 시의회(City Board)가 “시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확인된” 먹거리정책 주제들과 우선순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함. 3월에 열린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 박람회(fair)인 Fa' la Cosa Giusta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시가 제시한 의견에 관해 토론함. 4월에는 영양 부문의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들의 토론이 있었음. 5월에는 시 소속 9개 자치구에서 각각 회의가 열렸고, Forum Città Mondo에서 이민자 공동체 의견 청취가 있었음. 6월 초에는 대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함. 의견수렴 과정의 정점은 6월 14일에 열린 전체회의(town meeting)로 이 회의에서 시 정부 기관들에 승인을 요청할 먹거리 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권고안들이 결정되었음.

② 정책형성을 위한 연대 - 몽펠리에(프랑스)

- 2014년 몽펠리에 대도시권은 인근 31개 도시, 마을과 공동으로 먹거리정책을 개발하기로 하고 그 첫 단계로 공통 의제를 중심으로 지자체들(시장들과

선출직 공직자들을 결집하고 공동의 비전을 개발한 후 목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냄. 이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몽펠리에에는 유네스코 세계식량계획위원회(UNESCO Chair on World Food Systems)가 설립한 다부문(지리학, 농학, 사회학, 정치학) 연구팀과 파트너십을 맺음. 연구팀은 지역 먹거리 상황 및 관련 과제에 관한 신속한 평가와 유럽과 미국 도시먹거리정책 검토를 통해 정책적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함.

- 먹거리정책의 경제·환경·사회적 목적과 향후 5년간의 실행목표가 결정됨. 농업생태와 먹거리정책(agroecological and food policy)들이 2015년 6월 채택되었으며, 다음 6개 요소는 이미 실행되고 있음: ① 소규모 농생태적 농장에 농지 할당, ② 지역 기관 급식 지원, ③ 시민 주도 활동 지원, ④ 농생태적 자원 농장(agroecological resource farm) 개발, ⑤ 먹거리 관련 쟁점에 대한 선출직 공직자와 공무원의 역량 강화, ⑥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협력적 디지털 플랫폼 구축
- 두 번째 단계로서 시민사회 및 경제 분야 이해관계자들과 정책 우선순위(효과적인 공동 거버넌스와 실행 파트너십)를 토론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 그리고 연구팀은 모니터링·평가 시스템 구축에 관여하고 있음.

③ 기후변화정책과 먹거리정책의 통합 - 겐트(벨기에)

- 겐트(Ghent)는 2050년까지 기후변화 중립 도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지속가능한 먹거리정책은 시 당국이 이 목표 달성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의 핵심요소임. 겐트는 2013년 10월, 시 차원의 먹거리정책인 ‘Gent en garde’를 시행하였고 이는 플랑드르³⁾에서 최초였음. Gent en garde는 먹거리 생산·가공·유통의 환경 부담을 극적으로 줄이고 폐기물 감소를 촉진하라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만드는 것, 건강하고 맛있는 로컬푸드³⁾로 시의 먹거리 공급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을 목

3) 편집자 주: Flanders: 벨기에, 네덜란드 남부, 프랑스 북부

표로 하고 있음.

- Gent en garde는 다음 5개 주요 목표로 구성: 공급망 단축과 투명성 향상, 먹거리 생산·소비의 지속가능성 향상, 먹거리 이니셔티브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조, 음식물쓰레기 감소와 재사용 능력 극대화
- 겐트는 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한 여론 수렴 기구로 먹거리정책위원회를 설립함. 위원회는 지역 먹거리 체계를 대표하는 여러 부문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음. 농업, 비영리단체, 학계, 소매업체, 급식업체 등이 대표적임. 먹거리 정책에 관한 정기적인 의견 수렴의 장, 이니셔티브들에 관한 조언 제공, 홍보 기능 등이 주된 역할임. 또한 시 내부에 작업반(working group)을 만들었음. ‘지속가능한 먹거리’라는 정책의제가 여러 부서의 각기 다른 의도나 이니셔티브와 관련되므로, 작업반은 범부서 간 공조와 의견 수렴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함.
- 각 행위주체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① 시의회: 먹거리정책과 먹거리정책위원회에 관한 지시를 내리고 관련 사항을 승인, ② 먹거리정책위원회: 시민사회, 학계, 농업단체, 소매업체, 급식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 ③ 시 행정부: 내부작업반에 15개 부서 대표자들이 참여, ④ 이해관계자: 먹거리정책의 준비 과정에서 150명의 이해관계자가 자문 제공

④ 메트로 도시의 먹거리정책 - 토리노(이탈리아)

- 밀라노 엑스포 ‘Feeding the planet’을 맞아, 2015년 3월 토리노시와 대도시권은 “Nutrire Torino Metropolitana”라는 프로젝트를 출범함. 모든 이해관계자를 결집하는 참여 과정을 설계하기 위해 3번의 세미나가 조직되었음. 먹거리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역 의제 개발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를 결집하고자 한 것임.
- 세미나에서 먹거리 체계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에 기여하는 지역 실천사례들을 식별하여 토리노 대도시권 전체로 확대할 가능성을 모색하였음. 먹거리의 품질, 접근성, 도시 공급에 관한 논의를 위해 작업반들도 조직함. 경제계 인

사(생산 및 가공, 무역, 소매, 식당, 급식업체), 소비자, 기술자, 전문가, 공무원(보건, 농업, 시장, 교역, 산업, 사회부문, 학교), 시민사회(학교 위원회, 구매그룹, 일반 시민) 대표 등 140명이 참여하였음.

- 관련 의제는 동, 지자체, 대도시권을 서로 연결해 선정했으며 교육 및 훈련, 정보 및 지식, 교역 및 물류, 공공조달, 행정절차 간소화, 먹거리 품질 향상을 위한 공적 자금 및 지원, 지역계획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있음. 결과를 2015년 11월 토리노시, 대도시권, 피에몬테 주 정책결정자들에게 제시함.

⑤ 먹거리정책위원회와 먹거리 전략 - 토론토(캐나다)

- 토론토 먹거리정책위원회(TFPC)는 1991년에 출범함. 먹거리정책에 관해 시 당국에 조언하고, 지역공동체 수준의 먹거리 보장 전략 추진을 증진하며, 여러 부문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었음. 위원회는 풀뿌리 이니셔티브들과 사·지·자·체 계획가들을 연결하여, 지자체 경계를 넘어 농촌과 농민까지 고려하는 먹거리 전략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음. 이 위원회는 농민, 소매업체 대표, 선출직 대표자, 지역사회 활동가, 연구자, 정책결정자(환경, 경제발전, 보건, 먹거리 보장) 등으로 구성됨.
- 토론토 먹거리정책위원회는 광역 먹거리 체계 전반의 지식과 관점을 활용하여 몇 가지 이니셔티브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왔음. 토론토 먹거리 전략 개발이 대표적임. 이 전략은 먹거리 소매업체 지도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제공하는 이동식 먹거리 장터, 건강한 편의점을 실현하고자 함.
- 또 다른 사례는 <GrowTO: 토론토 도시농업 행동계획>임.⁴⁾ 2012년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이 행동계획은 토론토 시민들의 먹거리 재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조치들을 다룸. 이 계획은 도시농업이 지역사회와 동네들에게 가져다줄 수 있는 경제·사회적 발전 기회를 강조함. 더 전체적인 측면에서 토론토시는 도시 먹거리 생산과 농촌 먹거리 생산의 통합을 강화하려 함.

⁴⁾ GrowTO: An Urban Agriculture Action Plan for Toronto

- TFPC와 먹거리 전략팀은 토론토시 정부 부서 중 하나인 Toronto Public Health에 속해 있음. Toronto Public Health는 TFPC와 먹거리 전략팀에 인력을 지원함. 의료인, 교육자, 시민사회 활동가, 학계 인사, 경제계 인사, 선출직 대표자, 시 정부 공무원 등 먹거리 체계 전반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여기에 참여함.
- 이런 공동행동의 타당성은 다음과 같음.
 - 먹거리 체계 개혁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파트너십의 중요성
 - 시 정부 여러 부서 공무원들과 인근 지자체 정부들의 참여
 - 공식 정책 개발과 지역사회/기업가 주도 이니셔티브 간의 균형
 - 먹거리 체계 개혁 증진을 위해 연방·주정부 주도 연대, 네트워크들과 연결 고리를 창조하는 것의 중요성

⑥ 지역 건강먹거리 조달의 통합 - 뉴욕(미국)

- 뉴욕시 식품 기준(NYC Food Standards)(2008년 시행): 뉴욕시와 관련 조직들은 매년 약 2억 5,000만 명분의 식사를 제공하고, 2,600만 달러 이상의 먹거리를 구매함. 뉴욕시는 증거 기반의 영양 기준을 개발하여 다음 상황에 적용하도록 했음.
 - 시와의 계약을 통해 시 예산으로 식사를 배식하는 시 소속기관이나 조직의 식사나 간식
 - 시 부지에 설치된 식음료 자판기
 - 시 기관들이 주최한 회의나 행사
 - 병원 구내식당(자발적)
- 트랜스지방, 소금, 설탕은 제한되고, 까니마다 과일 및/혹은 채소가 제공되며, 식수는 항상 이용 가능해야 함.
- 지역조달(Local Procurement)(2011년 법규화): 시의회는 시와의 계약을 통해 식사를 제공하는 시 소속기관과 조직들이 뉴욕산 식재료(과일, 채소, 고

기, 유제품 등)와 뉴욕 가공시설에서 생산된 식품을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음. 이 조례는 시 소속기관들이 구매 결정과정에서 지역산에 최대 10%까지 가격을 우대할 수 있도록 허용함.

- 현재 뉴욕시장실, 뉴욕시의회, 보건정신건강부, 먹거리를 구매하는 시 기관(교육부 등), 먹거리를 배식하는 비영리 프로그램(아동보육센터 등) 등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음.
- 이들 정책은 이런 식사나 간식이 높은 수준의 영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게 하는 동시에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로컬푸드 구매를 장려하여 지역광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⑦ 상향식 도시계획과 먹거리정책 통합 - 알메러(네덜란드)

- 네덜란드 알메러시에 있는 우스터월드(Almere Oosterwold)는 A27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시골 지역으로, 현재 이곳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도시계획 접근법에 따라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이 지역을 관할하는 두 지자체인 지볼데(Zeewolde)와 알메러는 이 4,300헥타르의 땅을 시민 주도로 개발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원칙적으로 사람들이 장소나 필지 크기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함. 또한 자신이 짓고 싶은 건물의 크기나 기능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집을 지어도 되지만 회사, 상점, 학교, 사회적 돌봄농장(social care farm) 같은 것을 지어도 됨. 또한 큰 면적이 필요한 육묘장, 캠프장, 목재 생산용 삼림 같은 것들도 조성할 수 있음. 사람들의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임. 우스터월드는 자가건축의 극한을 제공함.
- 이 구역이 어떤 모습을 띠게 될지는 공공기관의 결정이 아니라 민간 이니셔티브들에 달려 있음. 준수해야 할 기본규칙은 몇 개밖에 없음. 그중 하나가 모든 필지에 공용 녹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임. 그것을 조성한 사람은 해당 녹지를 유지보수해야 하며, 보행자와 (가능할 경우) 자전거가 그곳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함. 또한 자비로 사적 영역과 공용영역을 구분하는 울타리

를 설치하고, 지자체가 수로와 배수로의 유지보수를 위해 접근하는 것도 허용해야 함. 전기, 수도, 진입로 같이 정부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것들도 주민들이 직접 처리해야 함. 이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협력해서 함께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장려됨. 현재 100개 이상의 필지가 개발되기 시작했으며, 곧 건축이 시작될 예정임.

- 주요 행위자는 알메러시 정부와 지볼데 시정부, 시민 활동가들이 대표적임. 알메러와 지볼데는 자가건축 및 상향식 도시계획 부문을 늘 선도해왔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자신의 생활환경과 직장환경 관련 결정과정에서 더 많은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프로젝트들이 좋은 성과를 거둬왔음(지볼데의 Polderwijk와 알메러의 Homeruskwartier가 대표적임).
- 이런 동네에서는 시 정부들이 뒤로 많이 물러서기는 했지만, 도시개발 디자인을 구축하는 과정에는 여전히 참여했음. 이번에 우스터월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방적인 상향식 접근법을 통해 사람들의 창의력이 발휘되고 건조공간과 녹지(도시농업(근교농업) 포함) 간에 적절한 균형이 맞춰질 것이라 기대되고 있음.

⑧ 먹거리도시(Food City) 멜버른 구축 - 멜버른(호주)

- 멜버른 먹거리정책은 안정적이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고 번영하며 사회적으로 포용력 있는 먹거리 체계의 증진을 통해 사람들의 건강과 웰빙을 향상하고자 함. 이 정책은 배경연구와 공동체 의견 수렴과정에서 도출된 5개 테마로 구성되어 있음.
 - 먹거리 보장이 되는 튼튼한 공동체
 - 모두를 위한 건강한 먹거리 선택
 -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먹거리 체계
 - 번영하는 지역 먹거리 경제
 - 먹거리를 즐기는 도시

- 멜버른시는 파트너십의 구축 및 강화, 리더십 발휘, 교육 및 공동체 개발, 규제 및 인프라 관리, 연구에서 자신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인식함.
- 2011년 8월부터 프로젝트 개요 개발, 공동체 참여, 소통계획, 일정표 등 광범위한 프로젝트 계획과정이 시작되었음. 이 정책의 개발에는 종합적인 공동체 참여 과정이 포함되었음. 핵심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대표적임.

⑨ 지속가능 먹거리·영양·보장 정보센터 - 벨루오리존치(브라질)

- 1993년 먹거리·영양·보장 담당관(Secretaria Municipal Adjunta: SMASAN)직이 신설되었음. 인구성장에 대응하여 벨루오리존치(Belo Horizonte)의 먹거리 공급과 먹거리 보장에 관한 정책을 계획하고 조율하기 위한 목적이었음. SMASAN의 신설로 시 정부는 지역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고 먹거리 공급·생산·소비 간의 연결성을 향상하는 먹거리 보장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됨.
- 이를 통해 벨루오리존치시는 농업, 학교, 지역공동체 먹거리 재배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행동들을 연결하는 종합 프로그램을 개발했음.
- “농촌 직거래(straight from the country)” 유기농산물 시장과 가족농으로부터의 조달을 통해 농촌 소농과 도시 소비자 연결
- “공급(Abastecer)” 프로그램과 농민 장터를 이용해서 소비자들이 정해진 가격으로 고품질 먹거리에 정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함.
- 시민식당(public restaurant)⁵⁾에서의 음식 판매에 보조금 지급
- 학교·기관 급식프로그램, 푸드뱅크 등을 활용해서 취약계층에 식품·영양 보조 제공
- 교육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 소비 증진
- 이 조치들은 상호보완적이며, 다양한 시 정부 부서들(보건, 교육, 사회지원

5) 편집자 주: 싼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 사진과 방문기는 다음을 참조할 것:

<http://blog.naver.com/jgje1231/206196688>

등)과 시민사회 단체, 대학 등이 참여하는 부문 간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될 행됨. 관련 행위자로는 시 행정부, 시 사회정책 담당관, 시 먹거리영양 보장 담당관, 시민사회 단체, 대학, 농민 등이 포함됨. 먹거리 생산과 관련하여 벨루오리존치 내에 농지가 없어 SMASAN은 인근 지자체의 가족농을 지원하기 위해 행동 범위를 확대하고 가족농과의 연계를 강화함.

- 시장 규제와 관련해서는 “공급(Abastecer)”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처럼, 상업적 유통과 경쟁할 수 있는 대안적인 먹거리 유통경로를 증진하는 것이 가능함. SMASAN은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민간 운영자들이 몇몇 식품에 대해 가격과 이윤 폭 기준을 준수하는 대가로 공공용지를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함. 이런 방식으로 주민들이 고품질의 과일과 채소에 적당한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됨. 이 프로그램이 건강한 먹거리 소비 확대의 열쇠임. 또한 판매자들이 팔고 남은 농산물을 푸드뱅크에 기부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도 줄어듦.
- 식량권과 관련해서 SMASAN은 시민식당에서의 음식 판매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 노숙자, 일반대중이 충분한 양의 적당한 품질의 먹거리에 정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 식생활교육과 더불어 이 모든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가족 전체의 건강한 식생활과 건강이 향상되고 있음. 2015년 이 정책의 개발과 통합을 증진하기 위해 SMASAN은 관련 정보, 지식, 법적 도구들을 하나로 결집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영양 보장 정보센터’를 설립했음.

⑩ 도시 간 먹거리 보장 정책 협력 및 지식교환 - 빈드후크(나미비아)

- 브라질 벨루오리존치와 나미비아 여러 도시들(특히 빈드후크와 월비스베이) 간의 지식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빈드후크(Windhoek)의 먹거리영양 보장 프로그램 출범에 기여했음. 2013년 벨루오리존치로 아프리카 여러 도시 시장들이 견학을 갔으며, 그 결과 2014년에 빈드후크에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실무 워크숍’이 열렸음. 브라질의 먹거리영양 보장 해법에서 얻은 지식

- 을 바탕으로 '빈드후크 선언(Windhoek Declaration)'이 이루어졌음. 이후 54명의 아프리카 도시 시장들과 나미비아 담당관들이 서로 지식을 교환했으며, 브라질의 해법을 나미비아 상황에 맞춰 변용한 지역 해법이 개발되었음.
- 2015년 브라질과 나미비아 양국 간의 실무자 교환(월비스베이 시장과 나미비아 시장포럼 회장도 동행했음)의 결과로 다음 사항이 진행됨.
 - 빈드후크와 벨루오리존치 간의 협력협약 체결
 - 빈드후크와 세계미래위원회(World Future Council) 간의 협력협약 체결
 - 월비스베이 시의회가 먹거리보장위원회 설립을 승인
 - 월비스베이와 세계미래위원회, 벨루오리존치 간에 정책형성 역량 강화 및 실무지원을 위한 공식 협력관계 구축
 - 정책 개입수단/프로그램 실행
 - 시의회가 먹거리영양 보장을 8대 우선 의제의 하나로 채택
 - 빈곤종식·사회복지부 감독하에 빈드후크 공동체서비스부와의 공조로 시범 프로젝트로 빈드후크 푸드뱅크 설립
 - 사유지의 도시농업 이용 극대화
 - 이로부터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음.
 - 먹거리 보장을 보통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지역 정부 대표들이 굶주림 및 영양실조와의 싸움에서 자신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음. 인식 제고와 모범사례 확산이 필요함.
 - 빈곤지역 간의 협력에는 상호존중과 이해가 있고, 매우 개방적이며 형제애에 기반을 둠.
 - 시 차원의 행동과 관련하여 시장(mayor)의 지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관련 시 부서 실무자들의 참여 역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함.
 - 먹거리 보장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정책의 도입을 주도할 '태스크포스'나 팀을 창설하는 것이 중요함.
 - 참여 행위자로는 빈드후크, 월비스베이, 벨루오리존치 시장 이니셔티브, 빈

드후크와 벨루오리존치의 국제협력 담당 부서, 벨루오리존치 먹거리영양 보장 담당관, 세계미래위원회(지식교환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국제재단), 자문을 제공하는 시민사회 파트너(RUAF) 등이 있음.

2) 지속가능한 식생활과 영양

① 취약, 사회 소외계층 위한 지속가능한 식생활 - 겐트(벨기에)

- 겐트(Ghent)는 건강 증진, 특히 건강한 식생활 증진에 많은 경험이 있음. 건강한 먹거리를 더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만듦으로써 건강한 먹거리가 보편적인 행동이 되게 한다는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음. 그 수단은 건강한 아침 식사 제공, 건강한 도시락 장려('Vitamike', 'Burger Boef' 등), 리셉션과 파티에 대한 지원 등임.
- 공동체 기반 개입은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에 초점을 맞춤. 중산층에 초점을 맞춘 의식향상 캠페인에서 이들이 보통 배제되기 때문임.
- 건강한 식생활에 관한 사람들의 지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활동들을 조직하여 운영함. 슈퍼마켓 운동(영양성분표 읽기 등), 시식행사, 그룹토론(이슬람 사원에서의 가당 음료 섭취 등), 소통 캠페인 등이 대표적임. 건강한 음식 준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들도 진행됨. 저렴한 식재료 이용에 초점을 맞춘 요리시연과 워크숍, 레시피 공유와 푸드뱅크에서의 요리 전시, 건강한 먹거리와 관련된 문화교류 증진 등이 대표적임.
-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있음. 푸드뱅크에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 사회적 식당(social restaurant)⁶⁾과 사회적 식품점(social grocery store)의 설립이 대표적임. 사람들이 스스로 먹거리를 재배하도록 장려하며, 도시농업활동을 서로 연결함.
- 시 보건위원회(City Health Council)는 '겐트 건강 증진 네트워크(Ghent Health Promotion Network)' 및 시 보건 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략들

6) 편집자 주: 취약계층에 저렴한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

을 조율하고 공동체 기반의 캠페인을 출범함. 지역보건소, 학교, 시민사회 등의 핵심관계자들도 이에 참여함. 건강한 먹거리 소비에 관한 이 접근법의 성공 요인은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에 초점을 맞춘 공동체 기반 전략 및 개입과 관련하여 모든 구성원이 파트너십을 통해 협력을 이끄는 잘 조율된 네트워크를 구축한 데 있음.

② 먹거리 이력 정보 관리 시스템 - 상하이(중국)

- 상하이에는 17개 구 208개 동에 2,380만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음. 상하이는 방대한 양의 먹거리 유통정보를 관리하고, 식품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하이 식품안전정보 추적관리 규제 프로그램(FSITMRP)'을 구축했음. 이 프로그램은 2015년 10월 1일부터 가동되었음.
- 이전까지 상하이의 먹거리 정보는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었으며, 정보를 수집하고 감독할 통일된 플랫폼이 없었음. 이에 상하이 식약청(Shanghai FDA)은 시 수준에서 먹거리 이력 정보를 통합하여 먹거리 유통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도를 만드는 일에 착수했음.
- FSITMRP가 시행되면, 기업들은 먹거리의 출처와 배분, 공급업체 자격, 검사 결과 등 기본정보를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함. 공급망의 이력 정보를 취합하여 식품안전을 보장하려는 목적임. 이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들은 상하이 식약청과 관련 부서로부터 경고나 벌금형을 받음.
- 시장조사와 지역 식습관을 기초로 선정된 9개 주요 식품군은 엄격하게 감독함. 곡물, 고기, 가금류, 채소, 과일, 조개, 대두, 유제품, 식용 기름 등이 여기에 속함.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 식품들의 정보를 즉시 추적해서, 생산자와 생산품의 이름 및 세부사항을 살펴볼 수 있음.
- 또한 상하이는 사회적 감독의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 신용 시스템도 구축했으며, 기업들에게 식품안전에 관한 기술지원도 제공함. 기업들의 신용정보를 구축하여, 신용이 낮은 기업들은 감독과 표본조사를 더 강화하고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가 공동으로 조치를 취함. 상하이

는 식당과 식료품점의 신용 수준을 아이콘으로 인터넷에 표시함(웃는 얼굴은 식품안전 수준이 높은 것이고, 무표정한 얼굴은 중간 정도이며, 우는 얼굴은 식품안전 수준이 낮은 것임).

- 먹거리 공급배분 시스템은 다양한 행위자들을 결집함.
 - 민간 먹거리 생산자 및 배분업체: 농민조합, 도살장, 중앙집중식 급식업체
 - 중앙 조리시설과 학교식당
 - 지역 공공기관: 시 정부, 구 정부, 지역 시장 감독기관, 수출입 검사기관, 검역기관 등
- 상하이시는 정보 추적망을 구축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먹거리의 생산·유통 이력과 식품안전 수준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③ 식생활교육 - 대구(한국)

- 도시 라이프스타일은 계속 변해왔으며, 시간이 큰 제약요인이 되었음.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가족이 함께 식사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 대구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식생활교육지원법(2009.5.27)에 따라 초·중·고 학생들에게 식생활교육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2014년에 출범시킴.
- 이 사업에서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먹거리 체계 전반에서 에너지·자원 사용을 감소시켜야 할 필요성, 영양가 높은 전통 한식(김치 등의 발효식품, 채소, 두부 등이 포함됨)의 소비촉진, 자연과 인간에 대한 존중, 폐기물 감소 등을 강조하여 교육하고 있음.
-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26개 학교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
 - 3개 학교에 학교 텃밭 설치
 - 19개 학교에 농촌 마을에서 진행되는 식생활교육 실시
 - 10개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에 식생활교육 통합 실시

- 이 프로그램은 식생활교육대구네트워크가 조직했으며, 이 네트워크에는 대구·경북 영양사회를 비롯한 10개 조직이 참여하고 있음.
- 1단계의 성공을 바탕으로 2015년에는 사업대상을 32개 학교로 확대하였음. 어린이들이 정확하고 충분한 식품정보를 바탕으로 먹거리를 선택하도록 교육하는 일은 효과가 매우 큼. 학교 텃밭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먹거리와 자연 간의 연결성을 인식하게 됨.

④ 학교와 기타 공공기관에서의 공공급식 - 밀라노(이탈리아)

- Milano Ristorazione는 밀라노시가 99%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으로 2001년 설립 이래 유아원, 유치원, 초중고, 양로원, 장애인 돌봄센터, 밀라노시의 “식사 배달(meals on wheels)” 서비스를 통해 하루 80,0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하여 제공함.
- 이 사업의 초점은, 어린이들에게 건강하고 영양가 많은 좋은 식사를 제공하면서 지속가능성, 쓰레기 예방, 사회문화적 통합에 관한 교육도 시행하는 것임. 또한 식재료 선택에 높은 가치를 두며, 유기농 식품에 중점을 둬. 유아원 식재료의 100%를 유기농으로 사용하며, 다른 배식장 식재료의 66%를 유기농이거나 통합방제(integrated pest control)로 생산된 재료로 사용함. 전체 식재료의 25%가 지역산이고 57%는 단축된 공급망에서 조달되도록 함.
- Milano Ristorazione는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교육프로그램도 다수 실시함. 대표적인 것이 “I don't Waste”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에게 씻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간식 봉지를 준 다음 학교 급식에서 남긴 식품 중 상하지 않는 식품을 담아 집에 가져가도록 함. 또한 이 회사는 잉여 먹거리를 회수하여 자선단체에 기부(월 2,800인분 규모)하는 일도 함. 예를 들어 103개 학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55,000kg의 빵과 100,000kg의 과일을 회수하여 67개 자선단체에 기부함. 그리고 조리시설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여 어린이와 성인의 소비자의식을 향상하는 일도 함.
-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식탁의 플라스틱 제품을 퇴비화가 가능한 대체물

로 바꾸고(연간 240,000kg의 플라스틱 절감), 공공입찰에서 지역산 조달을 촉진하며(70 대 30의 비율로 가격보다 품질을 우선시), 다른 대륙에서 조달된 공정무역 제품을 제공하고 있음.

- Milano Ristorazione는 도시먹거리정책의 실행을 위해 밀라노시와 협력하고 있음. 이러한 협력을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서비스 대상 어린이와 성인 건강을 증진하고 있음. 공립학교와 지자체 시설들에 식사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회사의 중요성과 편익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⑤ 학교식당을 위한 공공조달 - 토리노(이탈리아)

- 학교식당은 어린이들에게 영양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임. 어린이의 영양 필요 차원에서만 학교 급식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린이청소년 교육 프로젝트의 핵심차원 중 하나로 간주해야 함. 어린이들은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하며, 환경과 경제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누릴 권리가 있음. 시범 프로젝트인 “내가 만든 메뉴(The menu I made)”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토리노(Turin)의 모든 학교에서 즐길 수 있는 건강과 생태가 통합된 메뉴를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함.
- 토리노 공공조달 역시 이 접근법을 뒷받침함. 수반되는 비용을 입찰자들이 부담하는 것임. 어린이들은 유기농 먹거리와 공정무역 먹거리(바나나, 초콜릿, 비스킷)를 즐기고 있으며, 짧은 공급망에서 조달되는 먹거리의 비중도 늘고 있음. 토리노시와 주변 지자체들의 노력 덕분에 2013년 ‘유럽연합 지역 연계발전법(European Interreg Act 2013)’에 이런 방식의 입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음. 근처 지자체, 농민단체, 신규 사업가(유기식품점), 지역 교육청과 보건소, 급식업체, 토리노 상공회의소 화학연구실, 학교 대표자 등이 참여한 “다행위자” 작업반이 입찰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관련 법규들을 요약한 자료도 작성했음.
- 공무원들이 학교식당을 위한 물품공급 계약을 준비할 때 여러 관련 측면들

(라벨링, 먹거리 생산방식(관개, 품종 등)),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거리, 환경부담(물, 탄소배출량, 생물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보 및 소통 도구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음.

- 학교식당 프로그램은 토리노시 교육청(Educational Services)이 조율하며, 자원봉사자들 및 시민사회조직들과 긴밀하게 협력함. 그것을 통해 토리노 모든 공립학교 학생(6~14세)의 먹거리에 대한 권리를 충족시킴. 공공조달 관련 문서는, 학교식당을 위해 먹거리를 구매하는 공무원들에게 지역 먹거리 구매에 관한 기술적·법적 정보를 제공함. 교육은 헌법에서 명시한 근본 공공 서비스 중 하나지만, 학교 급식은 지자체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취소되거나 이용자들이 모든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보조활동임. 이런 점에서 학교식당은 법에 따르면 옵션사항임.

⑥ 채소 먹는 목요일(Veggie Thursday) - 겐트(벨기에)

- 고기 생산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8% 이상을 차지는 중요한 기후변화 요인 중 하나임. 하지만 많은 사람들(특히 고소득 국가)이 많은 양의 고기를 계속 먹고 있음. 기후변화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식생활임. 고기 중심의 식사 대신 채식을 할 때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
- Thursday Veggieday는 벨기에 최대의 채식단체인 EVA(Ethical Vegetarian Alternative)가 시작한 캠페인으로, 2009년 이래 겐트(Ghent)시의 공식지원 을 받고 있음. 이 캠페인을 통해 겐트 시민들이 최소 1주일에 하루(목요일 등) 이상 채식을 하도록 권장함. 목요일에는 학교 급식과 모든 공공급식에서 채식 식사가 제공됨.
- Thursday Veggieday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 6년 동안 지자체가 몇 개의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킴. 채식 먹거리를 제공하는 모든 식당과 상점들을 표시한 채식 거리지도 수천 부가 배포되었음. 지역 식당들에게는 이 운동의 이유와 메뉴에 채식요리를 늘리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했음. 동네 수준의

채식축제와 채식 만찬 역시 조직되었음. 그리고 수백 명의 시민이 채식 요리 강습을 들었음. 학교를 위해서도 여러 캠페인과 워크숍이 조직되었음.

- 겐트 시의회와 행정부는 자신들이 관할하는 부서(학교 포함)에서 이 캠페인이 진행되도록 조율하고 있음. 비영리조직은 Thursday Veggieday에 관한 캠페인을 전개함.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는 학생, 학부모, 시민, 셰프 등이 있음.
- 시민들의 참여는 계속 늘고 있음. 2013년에 이미 시민의 1/3이 Thursday Veggieday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는 플랑드르 평균을 크게 넘는 것임. 겐트의 경험은 식습관 개선과 기후변화 완화에서 정치적 헌신과 지자체의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줌.

⑦ 비만과의 싸움 및 비감염성 질병 예방 - 암스테르담(네덜란드)

- 2012년 이래 암스테르담시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에 점차 큰 비중을 두고 접근해왔음. 그 배경에는 암스테르담 12~16세 청소년의 24%가 과체중으로, 네덜란드 평균의 2배에 달하는 문제가 있음. 시의회는 과체중이 어린이 권리에 배치되는 심각한 문제이며 용납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하였음. 과체중은 장기적으로 비만, 2형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다양한 형태의 암, 뇌질환 같은 라이프스타일 관련 질환이 확산되도록 하고 관련 비용이 증가하는 중요한 결과를 초래함. 이에 시의회는 통합적인 접근법을 통해 비만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체중을 이루기 위한 장기계획을 승인했음.
- “암스테르담 건강체중 접근법(Amsterdamse Aanpak Gezond Gewicht)”의 목표는 2033년까지 모든 암스테르담 어린이가 건강체중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임. 그 배경에는, 건강체중을 증진하는 일이 공동의 책임이며 건강한 환경의 조성을 통해 더 건강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있음. 이 계획은 명확하게 정의된 “스마트 타겟들”을 가진 통합적인 접근법을 따르며(“스마트 실행계획”), 다음 결과의 달성에 관한 명시적인 모니터링을 함.

- 2018년에 5세 미만 암스테르담 어린이가 건강체중을 가짐.
- 과체중 주민이 많은 동네를 “더 가벼워지게” 함.
- 공용공간과 건물의 디자인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신체활동 등)을 촉진하게 함.
- 더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여러 이니셔티브들이 함께 실행될 것임. 건강한 학교 인증, 건강한 먹거리의 공급 확대, 건강한 먹거리 라이프스타일 홍보 등이 대표적임.
- 암스테르담시는 대학병원인 VU/VUmc 및 UvA/AMC와 협력하여 2014년에 신종유행병연구소(Sarphati Institute for New Epidemics)를 설립했음 (College of Mayor and Alderpersons⁷⁾가 800만 유로의 예산을 지원함). 이 시설은 독특한 다학문적 연구소(생명의학 연구에서부터 문화인류학과 발달심리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함)로 공중보건 분야에서 정부, 학계, 산업계가 힘을 합쳐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증진과 과체중비만 예방에 초점을 맞춤. 이를 통해 과체중과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조치들과 이들 조치의 효과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연결되고 있음.
- 통합적인 접근법의 결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음. 2012~2014년 동안 비만 어린이 숫자는 눈에 띄게 줄었음. 이 모범사례는 연구와 실행의 결합을 기초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증진하는 집중적인 정책 접근법의 중요성을 잘 보여줌. 또한 이 접근법은 시 정부 부서들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결집한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임. 건강체중을 중심으로 의료, 공간계획, 교육, 스포츠, 공동체 개발 등 매우 다른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을 결집하는 것임. 향후 수년 동안 이 접근법은 더 발전할 것이며 현실에서 검증이 진행될 것임.

⑧ 과일·채소 등 건강한 먹거리 선택 증진 - 뉴욕(미국)

- 뉴욕시는 향후 20년 동안 뉴욕 성인이 먹는 끼니의 수를 현재의 평균 2.4끼

⁷⁾ 편집자 주: 지자체의 행정부에 해당함.

에서 3끼로 25% 늘린다는 목표를 수립했음.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뉴욕시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정책들을 지원 및 확대하고 있으며, 건강한 먹거리의 가용성과 접근성도 향상하고 있음.

- ‘New York City school food for New York’ 프로그램의 확대와 품질 향상으로 110만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 것이며, 여기에는 약 1,000개의 학교식당에 샐러드바를 설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
- 도시농장과 저소득층 동네에 있는 지역공동체 텃밭 및 학교 텃밭에 자연자원, 인프라, 훈련(젊은이들의 직업교육 등)과 자재(깨끗한 흙, 물 공급원, 종자, 건축자재 등)를 지원할 것임.
- 저소득층 가정에는 신선한 지역산 과일과 채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무료 쿠폰(Health Bucks)이 배포될 것이며, 농민 장터를 통해 영양교육도 제공할 것임(Stellar Farmers Market Initiative).
- 시의 자금지원을 받은 NGO들이 신선식품 꾸러미사업을 조율하여, 아동보육 센터 같은 공동체 시설들에 매주 신선한 과일과 채소 꾸러미를 적당한 가격에 제공할 것임.
- 이런 실천들은 여러 시 정부 부서, 지역 NGO, 자원봉사조직 간의 파트너십에 기반을 두고 있음.
- 국가 영양 보조(SNAP) 프로그램 수혜자격을 갖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무료쿠폰을 배포하는 일은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지역 프로그램과 국가 프로그램 간의 시너지를 창출함. 이 쿠폰은 농민 장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이들 장터에서 판매하는 과일, 채소, 기타 자연식품에 SNAP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됨. 그 결과 농민 장터에서의 SNAP 사용액이 늘어났음.

⑨ 먹거리 불안정 위험 노년층에 대한 통합적 접근법 - 메데인(콜롬비아)

- 메데인(Medellín)시는 시 차원의 먹거리 보장 프로그램의 일부로 먹거리 불안정 위험이 있는 노년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소득이 낮거나 그

밖의 이유로 먹거리 불안정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는 60세 이상 주민의 삶의 질과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해 특별한 주의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우선 이들 노년층에게는 보조식품 패키지가 제공되며, 2014년 기준 수혜자 수는 6,000명이었음. 취약지구 노년층에게 지역사회급식센터(communitary food centre)에서 식사와 교육지원을 제공함. 20개 지역사회급식센터는 SACIAR 재단이 운영하는 푸드뱅크에서 조달한 식재료로 식사를 준비하며, 취약계층의 노년층에게 2014년 기준 하루 950인분의 점심을 제공했음. 이 센터는 식사제공과 더불어 참여자들의 영양 상태도 평가하고, 식습관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교육 기회도 제공함.

- 메데인 시민의 먹거리·영양 보장 상태에 대해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한 결과, 2013~2014년 동안 먹거리 불안정 비율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 프로그램처럼 대상을 적절하게 설정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먹거리 불안정 비율 감소에 기여하였음.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보조식품 패키지만 제공하는 것에서 더 통합적인 프로그램으로 지원 프로그램의 초점을 옮길 필요가 있다는 점임. 식사와 더불어 건강과 식습관에 관한 교육도 제공하고, 공동체도 구축해야 함. 시민사회 조직(SACIAR 재단 등) 및 지역사회 조직과의 협력이 이 통합 프로그램 실행의 열쇠임.
- 관련 행위자는 다음과 같음.
 - 메데인시 먹거리정책과
 - SACIAR 재단(메데인에서 푸드뱅크 1개와 지역사회급식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조직)
 - 메데인 내 여러 자치구(communas) 시민들로 구성된 지역사회조직

3) 사회경제적 형평성

① 공동부엌 - 아테네(그리스)

- 2010년 발생한 경제사회 위기에 대응하여 출현한 공동부엌은 시민들의 먹거리 필요 충족을 위해 시민사회가 전개하는 활동으로, 아테네에는 무료급식소나 시민 주도의 지역 임시급식소가 있지만, 공동부엌은 보다 복합적인 주민 활동임.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해 요리와 식사를 함께하며 식생활교육, 그리스 전통요리, 지속가능한 생산자 및 제품 등을 장려함으로써 경제사회 문화적인 가치를 창조하고 있음. 아테네시의 탄력성과 사회결속에 공동부엌이 중요한 역할을 함.
- 그리스의 공동부엌(collective kitchens)은 2010년 발생한 경제사회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출현한 것으로, 동료 주민들의 먹거리 필요 충족을 목적으로 시민사회가 벌이는 비공식 활동임. 아테네에서는 지자체(KYADA)와 NGO(Equal Society 등)가 조직하는 무료급식소(soup kitchen)가 매일 운영되고 있으며, 몇몇 동네에서는 시민들의 주도로 임시급식소가 운영되기도 함.
- 공동부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먹거리가 다면적 활동임을 인정함. 시민들이 함께 요리하고 먹도록 하면서 동시에 식생활교육, 그리스 전통요리, 지속가능한 생산자 및 제품 등도 장려함. 그 결과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가치가 창조됨. 아테네시는 시의 회복력과 사회결속에서 공동부엌의 중요성을 인식했음. 사회문화적인종적 이질성을 통합하고,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을 증진할 수 있기 때문임. 아테네시 후원으로 열린 “아테네, 맛의 도시(Athens, Metropolis of Taste)” 행사(2014.6.27)를 통해 사회참여가 활발한 셰프 팀, 아프간 난민 공동체, 나이지리아 여성 공동체 간의 협력이 처음으로 이루어졌음.
- 많은 NGO가 공동부엌을 받아들였음. 예를 들어 “공동부엌: 혼자 밥 먹지 마세요(Collective Kitchen: Never Eat Alone)”는 NGO “Organization Earth” 자원봉사자들이 진행하는 아니셔티브로, 봄부터 가을까지 일요일마다 개최됨.

- 공동부엌은 신선하고 건강한 식재료로 요리함으로써, 아테네 시민들에게 영양가 많고 경제적인 제철 먹거리 교육을 시행함. 또한 이 활동은 대안적인 식사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협력과 결속력을 강화함.
- 함께 요리하고 먹는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음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음식 준비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활력 넘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됨. 또한 실업자들이 공동부엌에서의 노동을 통해 약간의 돈을 벌 기회도 생김. 전통적인 소비시스템을 조금씩 바꿈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작은 승리를 매일 이룰 수 있음.
- 참여 행위자로는 아테네시, NGO, 시민사회조직(Citizens' Mutual Support Centre - Athens municipality), OPIS(Information Society Operational Programme) 소속 여러 기관, 민간부문 등이 있음.

② 시민식당 People's restaurants - 벨루오리존치(브라질)

- 시민식당은 벨루오리존치시 영양먹거리 보장정책의 중요전략 중 하나로 가족농 강화, 음식물쓰레기 감소 효과도 있음. 벨루오리존치 내 시민식당 4개, 시민간이식당 1개를 시가 직접 운영하며, 조례에 따라 음식 가격은 단위비용 이내로 저렴함. 등록 노숙자들은 무료 식사가 가능함. 벨루오리존치시 행정부, 사회정책 담당관, 영양먹거리 보장 담당관, 시민사회, 대학, 농민단체 등이 참여함. 시 여러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주민과 노동자 통행이 잦은 장소(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근처에 위치하여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함.
- 시민식당 프로그램은 먹거리 배분을 넘어, 먹거리 공급과 영양먹거리 보장을 위한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생계를 향상시킴. 또한 이를 위해 가족농 강화, 건강한 식생활 증진, 음식물쓰레기 감소 같은 다른 정책들과 통합해서 시행할 수도 있음.
- 현재 벨루오리존치 내에 4개의 시민식당과 1개의 시민간이식당(canteen)⁸⁾이 존재함. 그 모두를 시가 직접 운영하며, 조례(Law 7.612/98-article o 2)

에 따라 음식 가격은 단위비용(식재료비와 식당의 유지보수 및 운영비 등)을 초과할 수 없음. 그 결과 일반식당(아침: 1.43헤알, 점심은 6.58헤알, 저녁은 3.87헤알)에 비해 음식 가격이 훨씬 싼(아침: 0.75헤알, 점심: 3.00헤알, 저녁: 1.50헤알). 또한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ília: 가족수당)” 수혜자들은 식사비를 50% 할인받으며, 등록된 노숙자들은 무료로 식사할 수 있음(연간 약 16만 명이 혜택을 받음). 전체적으로 벨루오리존치의 시민식당들은 연간 약 300만 명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음.

- 참여 행위자로는 벨루오리존치시 행정부, 시 사회정책 담당관, 시 영양먹거리보장 담당관, 시민사회, 대학, 농민단체 등임.
- (취약계층) 시민들이 적당한 가격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 하는 것임. 시민식당은 주민들의 영양 상태를 크게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을 보급하고 저소득층 가정 대상 영양재정 지원과 관련된 시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기여함. 이 프로그램은 또한 가족농 지원 같은 다른 행동들과도 전략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 이 프로그램은 적당한 가격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모범사례로, 브라질과 전 세계 다른 도시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음.

③ 비상 식품과 만성 먹거리 불안정 관련 개입의 통합 - 뉴욕(미국)

- 뉴욕시는 가족들의 먹거리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600개 이상의 먹거리 나눔 공간(food pantry)과 커뮤니티 키친(communitiy kitchen)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취약계층 대상으로 영양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먹거리 지원은 뉴욕시와 주 정부기관이 집행함. 비상 식품 제공을 위해서는 뉴욕시 정부기관, 비영리 식품지원 단체, 기부자로 구성된 뉴욕 식품원조 협력체(New York City Food Assistance Collaborative)가 비상 식품원조에 관한 행동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음.

8) 편집자 주: 간이식당인지 구내식당인지 애매함.

- 먹거리 불안정(가족 구성원 모두의 활력 있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영양가 많은 먹거리에 계속 접근할 수 없는 상태)은 사주연방정부, 지역사회조직, 비영리조직 간의 협력을 통해 대처할 수 있음.
- 뉴욕시 식품원조 협력체는 정부 기관·비영리 비상 식품 제공기관·주요 기부자들로 구성된 조율기구로, 비상 식품 원조에 관한 공통의 측정지표와 행동계획을 개발함. 식품은 시(EFAP), 주(HPNAP), 연방정부(TEFAP)의 자금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대규모 비영리 식품제공 기관(뉴욕시 푸드뱅크, City Harvest 등)을 통해 제공됨. 이들 기관은 시 전역에 있는 600개 이상의 먹거리 나눔 공간과 커뮤니티 키친을 지원함(이들 공간은 비영리 지역사회 조직이나 종교단체가 운영함).
- 또한 뉴욕시는 다양한 식품원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영양가 많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몇몇 연방정부 프로그램이 식품원조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뉴욕시와 주 정부기관들이 집행을 담당함.
 - WIC SNAP: 저소득 임산부와 5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어머니들에게 영양교육, 건강한 보충식품, 의료비 제공
 - 국가의 학교 점심 급식 프로그램, 학교 아침 급식 프로그램: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학교급식비 지원
 - 돌봄시설 아동·성인에 대한 먹거리 프로그램(CACFP: 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 돌봄시설에 있는 저소득층 어린이와 성인들의 식사비와 간식비 제공
 - SNAP: 저소득층 가정의 식료품 구입비 지원
- 관련 행위자로는 시장실, 시의회, 뉴욕시 인간자원국, 사회서비스부, 여러 NGO(United Way of NYC, City Harvest, Food Bank for NYC), 뉴욕주 보건부, 600개 이상의 먹거리나눔공간과 커뮤니티키친 등이 있음.
- 대도시에서는 자금지원과 지역 먹거리 나눔공간 및 커뮤니티 키친들에 먹거리를 배달하는 중간조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비상 식품 제공에는 “meal gap”이나 “supply gap” 등 작은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성공의 측

정지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노력과 결과물 간의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필요를 기준으로 제한된 자원을 각 동네에 최대한 잘 배분할 수 있게 됨.

④ De Site: 사회경제적 형평성 증진을 위한 도시텃밭 - 겐트(벨기에)

- 2006년 겐트 도심의 빈곤지역에서 공장건물이 철거된 후 리노베이션 준비기간 중 비어있던 부지에서 ‘De Site’라는 사업이 출범됨. 3,000m² 이상 면적에 농경지, 소규모 텃밭, 놀이 공간이 들어섬. 주민들이 지역통화 ‘Toreke’로 텃밭을 임차하여 채소를 재배하고 신선한 채소는 지역의 사회적 식료품점에서 할인가격에 저소득층 주민과 비영리단체에 판매됨. 남은 채소와 허브로 가공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지역 수입에 기여함.
- 이 프로젝트의 주목적은 즐겁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창조하는 것으로 연령과 국적에 상관없이 주민의 만남의 장소가 되고 다양한 활동의 중심지가 되고 있음.
- 2006년 Alcatel Bell Gasmeterlaan 공장건물이 철거되었으며,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통해 이 구역을 지속가능한 주거지로 변모시키고자 했음. 준비단계로 장기간에 걸친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콘크리트로 뒤덮인 이 부지는 사용되지 않은 채 남아있게 되었음. 이 공간에서 ‘De Site’라 불리는 프로젝트가 출범되었음. 이곳은 겐트 도심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중의 하나임. 3,000m² 이상 면적의 공장부지가 2개의 농경지와 몇 개의 소규모 텃밭, 1개의 놀이 공간으로 변신했음. 동네 주민들은 지역통화인 ‘Toreke’로 텃밭을 임차해서 채소를 기를 수 있음. 면적이 더 넓은 2개의 농경지에서는 비영리조직 ‘Samenlevingsopbouw Gent’와 한 팀의 자원봉사자들이 채소를 재배함. 생산된 신선한 채소 중 일부는 지역의 사회적 식료품점(social grocery store)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저소득층 주민들과 비영리단체 1곳에 판매함. 또한 지역 식당인 ‘Eetcafé Toreke’ 역시 이곳의 채소를 구매함. 이 식당은 사회적 고용과 사회적 가격을 적용하는 사회경제적 프로젝트임. 팔고 남은 채소와 허브로는 수프나 페스토 같은 가공품을 만들어 팔아서 동네에 이득을 줌.

- 이 프로젝트는 참여 행위자들의 공동노력을 통해 실현되었고 주요 파트너는 다음과 같음.
 - Samenlevingsopbouw Gent: 프로젝트를 조율하는 비영리조직으로, 취약 계층 관련 작업에 있어서 전문가 역할을 함.
 - 겐트시: 프로젝트를 출범시키고 자금을 제공함.
 - 주민들: 적극 참여하고 있음.
- 그 밖의 파트너들은 다음과 같음.
 - Sociale Kruidenier: 사회적 식료품점
 - Eetcafé Toreke: 지역 레스토랑
 - Rabot op je Bord: 채소와 기타 로컬푸드 제품을 판매하는 지역 시장
- 이 프로젝트는, 도시농업이 어려운 동네에 많은 가치를 더해줄 수 있음을 증명함. 경제적 산출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결집해 지역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임. 주민들과의 공동창조 과정이 이 프로젝트의 계획·실행·성공의 열쇠였음. 이런 접근법을 통해 낙후되고 방치된 지역을 더 즐겁고 지속가능하며 안전한 구역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임.

⑤ 공정무역도시 캠페인 - 브뤼헤(벨기에)

- 2008년 이래 공정무역도시(Fair Trade Town) 운동에 참여함. 시의회는 공정무역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회의와 사무실에서 공정무역 홍차와 커피를 제공하고 있음. 공정무역 매장이 50군데 이상 있으며, 30개 이상의 급식 사업장이 공정무역 메뉴를 제공하고 있음. 24개 학교가 '공정무역 학교(Fair Trade School)'로 지정되었음. 전국 수준의 공정무역주간 등 캠페인을 전개함. 홍보대사를 선정하여 홍보하며 시민들이 공정무역 팬으로 등록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 브뤼헤(Bruges)는 오랫동안 공정무역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공정무역도시 운동을 장려해 왔음. 2008년 이래 시는 공정무역도시 운동에 참여하여, 농

민과 노동자의 생계와 노동조건을 향상시킨다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음 (www.fairtradetowns.org). 공정무역도시 운동은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개도국 생산자와 먹거리 노동자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림.

- 브뤼헤는 2008년부터 공정무역도시가 되었음. 시는 학교, 급식 사업장, 상점, 기업, 지역사회 조직, 공정무역을 지지하는 일반 시민들로 이루어진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음. 이 캠페인은 지자체가 조율하고 지원함. 공정무역 매장, 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중 행사 역시 공정무역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음. Week of the Fair Trade(전국 캠페인), Week of the Taste(전국 캠페인), Fairtrade @ Work(전국 캠페인), International Day of Fair Trade, Fair Trade Exhibition이 대표적임. 2명의 홍보대사가 선정되어 급식과 푸드서비스 부문의 공정무역 아니셔티브를 촉진 및 증진하고 있으며, 시 역시 시민들이 공정무역 팬(Fair Trade Fan)으로 등록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 이런 경험을 통해 시는 시민, 상점, 학교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공정무역 먹거리 구매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도 향상시킬 수 있었음.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 덕분에 공정무역 제품의 수요와 공급이 늘어난 것임.

⑥ 공정무역주간 - 빌바오(스페인)

- 빌바오 시의회는 매년 공정무역주간(Fair Trade Week)을 조직하여 공정무역 제품의 구매와 책임 있는 소비가 국제 무역, 특히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인간과 노동권을 존중하고 사회정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무역시스템에 관한 인식을 제고함. 공정무역주간 행사는 대개 11월에 열리며, 2016년에 XIV Edition이 개최되었음. 그 목표는 공정무역 제품의 구매와 책임 있는 소비가 국제 무역, 특히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것임. 공정무역주간은 인간과 노동권을 존중하고 사회정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무역시스템에 관해 사람들이 생각해보도록 만들고자 함. 6개 공정무역 상점이 참여하며, 지역 및 전국 NGO와 민간기관들도 동참함. 공정무역 전시, 음악공연, 시식행사,

생산자 워크숍 등을 전개하며 매년 12,000명 이상이 참여함.

- 박람회에는 빌바오 내 6개 공정무역 상점들이 참여함. 지역 및 전국 NGO와 민간기관들도 동참하여 공정무역에 관한 전시, 음악공연, 시식행사, 공정무역 생산자들이 주최하는 워크숍 등을 통해 행사에 활기를 불어넣음. 공정무역 제품을 맛보고 구매하기 위해 12,000명 이상이 행사에 참여함.
- 빌바오는 바스크지방에서 “공정무역 도시(Fair Trade Town)” 타이틀을 얻은 최초의 도시가 되었음. 스페인에서는 빌바오를 포함해서 9개 도시가 이 타이틀을 얻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19개국 1,146개 도시가 이 타이틀을 얻었음. 공정무역주관은 시의 사회경제 시스템에 있어 큰 의미가 있음. LRA, NGO, 민간부문 등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시너지를 창조하여 더 공정한 쪽으로 무역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함. 또한 시민들이 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책임 있는 소비를 하도록 촉진함. 먹거리주관은 지역 농업생산과 짧은 공급망 간의 연결을 증진하여, 현재 빌바오에서 큰 세력을 얻고 있는 슬로우푸드(slow food) 운동과도 관련됨.
- 주요 참여 행위자는 다음과 같음.
 - 빌바오 시의회
 - NGO(International Solidarity, Intermon Oxfam, Adsis-Equimermercado, ActionAid, Setem, Educo, Mercadeco, Emaus Social Foundation, Kidenda, Copade, and Vicente Ferrer Foundation)
 - 언론
 - 생산자
 - 민간부문

4) 먹거리생산(도시-농촌 연결 등)

① 도시농업을 이용한 기후변화 완화 - 대구(한국)

- 2012년 대구시가 출범시킨 도시 내 벼 재배공간 조성사업으로, 벼 재배로 여름철 고온과 열섬효과를 낮추고 수확된 쌀을 취약계층에 기부하였음. 지하철, 체육관, 공원, 도심에서 벼를 재배하고 수확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토록 함. 벼가 심긴 화분(도심 다랭이논)이 인근 포장도로의 지표면 온도를 15℃ 낮추어 열섬효과를 감소시킴. 시민들이 수확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수확된 쌀은 취약계층에 기부하였음.
- 대구는 내륙도시로 여름철 고온으로 악명 높음. 2012년 시 정부는 녹지공간 확충과 기온 하강을 위해 도시 내에 벼 재배공간을 조성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출범시켰음. 벼를 선택한 이유는 벼가 많은 산소를 배출한다는 점과 수확된 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할 수 있기 때문임. 지하철, 체육관, 공원, 도심 같은 번잡한 장소 여덟 군데에 벼 재배공간이 조성되었음. 대구 농업기술센터가 필요한 기술, 장비, 모종을 제공했음.
- 벼가 심어진 총 2,500개의 화분(도심 다랭이논)⁹⁾은 녹지공간 역할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벼 재배와 수확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장 역할도 했음. 12,000명의 시민이 수확에 참여했으며, 택시운전기사들이 주변을 자발적으로 청소했음. 수확 후에는 이 공간에 보리를 심어 도시 내에서 농촌의 정취를 느끼게 했음.
- 이 시범 프로젝트는 몇 가지 영향을 발생시킴. 다랭이논이 설치된 포장도로는 그렇지 않은 포장도로에 비해 지표면 온도가 15℃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다랭이논이 열섬효과 감소에 성공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음. 시민들이 수확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수확된 300kg의 쌀을 필요한 이웃들에게 기부함으로써 사회교류 증진과 사회적 배제 완화, 지역공동체 행복 증진에 농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음.

9) 편집자 주: <http://www.daegu.go.kr/rural/Default.aspx?cid=34:45>

② 참여형 도시농업(AGRUPAR) 프로그램 - 퀴토(에콰도르)

- 퀴토는 2002년 이래 시 정부 주도로 도시농업을 증진해왔으며 참여형 도시농업(AGRUPAR) 프로그램은 시 경제진흥국 CONQUITO가 실행하여, 시 면적의 83%에 해당함(근교농업 지역과 농촌 지역 포함). 2,500개 도시텃밭을 조성했으며, 16,700명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교육을 실시했으며, 특히 여성 대상 교육이 큰 비중(84%)을 차지함. 시의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며, 공급망을 단축하는 성과를 냄.
- 퀴토는 역사적으로 몇 가지 형태의 도시농업으로 유명하며(수녀원과 수도원의 작물 재배, 이민자 공동체의 전통작물 재배 등), 2002년 이래 시 정부는 도시농업 진흥을 위한 행동을 발전시켜왔음.
- 참여형 도시농업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유기농법에 기초한 자가소비용 먹거리 생산을 증진함. 총면적은 24헥타르이며, 시에서 소비하는 먹거리 400,000kg 이상이 여기서 생산되고 퀴토 내 단축된 공급망을 통해 생산품이 판매됨. CONQUITO가 조직하는 공개 옥외시장인 BIOFERIA(14개 장소에서 열림)에서 생산품의 23%가 팔림. 2007년 이래 그룹인증 방식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 전체가 유기농 인증을 받았음. 생산품의 절반은 자가소비용이고 나머지 절반은 판매됨. 제품을 판매하는 텃밭 지기들의 월평균 소득은 미화 55달러지만, 그중 17%는 미화 300달러가 넘는 수입을 올림. 자가소비용 먹거리 생산으로 인한 비용절감액은 월평균 미화 127달러임.
- 참여 행위자는 시 정부, 시 경제진흥국 CONQUITO 등임.
- AGRUPAR 프로그램은 통합적인 접근법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과 광범위한 정책목표(사회적·생태적·경제적 목표)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의 중요성을 잘 보여줌. 도시농업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전용 채널의 확립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 먹거리 생산과 배분활동 사이에 시너지를 창출했기 때문임. 마지막으로 기술지원과 참여 역량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중요함. 이런 프로그램은 온정주의에 의지해서는 안 되며, 도시 농민과 근교 농민을 위해 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함.

③ 도시농업 사업과 가용장소의 지도화 - 암스테르담(네덜란드)

- 2014년 암스테르담에 있는 다양한 도시농업 이니셔티브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도시농업이 가능한 장소를 표시하는 쌍방향 지도(interactive map)를 작성하였음. 도시농업 주도자, 주민, 비영리조직, 영리조직 등이 스스로 웹사이트를 구축하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에 자신들의 페이지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 이 페이지들을 이 지도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014년 1월 시의회는 “Voedsel en Amsterdam(먹거리와 암스테르담)”이라는 먹거리정책을 출범시켰음. 테마들에 관한 교육,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 이니셔티브들 간의 연결, 토론을 통해 정책의제들이 정해졌음. 2015년 먹거리와 도시농업은 신설된 지속가능성과 공용공간(Sustainability and Public Space) 담당 상급의원(alderman)에 의해 녹색의제(Green Agenda)의 일부로 포함되었음.
- 암스테르담 도시농업 부문에는 주도자들도 많고 관련 활동도 다양함. 주로 지역주민들의 주도로 시작되는 소규모 이니셔티브들은 보통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결속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동네 중심의 접근법을 사용함. 그리고 시 토지이용계획이 수정되어 중대규모 도시농업 이니셔티브들이 실현될 수 있게 했음. 공공부지에서 도시농업이 실행될 경우에는 이용자와 지자체 간에 유지보수, 이용, 책임에 관한 계약이 체결됨.
- 먹거리와 도시농업에는 다른 관점, 접근법, 언어가 필요함. 사람들을 연결하고, 중재하고, 토지이용 계획을 정비하는 것이 지자체의 핵심 역할임. 그것을 통해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에서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출현하도록 촉진할 수 있음. 도시농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장소를 알려주는 것이 대표적임.
- 관련 행위자로는 암스테르담 시의회, 암스테르담 시 정부(Mayor and Eldermen), 시민사회·민간부문 도시농업 프로젝트 주도자들 등이 있음.

④ 골든호슈 먹거리·농업연대와 Foodstarter - 토론토 대도시권(캐나다)

- 골든호슈 지방은 선도적인 농식품 클러스터의 하나로 기존 역할을 유지하고 향상할 수 있도록 먹거리·농업연대를 결성하였음. 골든호슈 먹거리·농업연대(Golden Horseshoe Food and Farming Alliance: GHFFA)는 나이아가라 농업정책행동위원회, 토론토광역보건국, Friends of the Greenbelt, 온타리오 농식품부, 각 광역자치체(Durham, Halton, Niagara, Peel, York), 해밀턴시와 토론토시 그리고 농식품 가치망의 지역 대표자들로 구성됨.
- 2012년 GHFFA는 ‘골든호슈 먹거리·농업행동계획 2021’을 발표함. 이 행동계획은 지역 내 농식품의 자생력에 관한 더 통합적이고 더 잘 조율된 접근법 개발을 위한 행동들을 제시함으로써, 골든호슈 지방이 선도적인 농식품 클러스터의 하나로서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역할을 유지·향상·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GHFFA가 추진하는 이니셔티브의 하나가 “Foodstarter”임. 2007년 토론토시는 토론토식품기업인큐베이터(TFBI)라는 비영리조직의 설립을 지원했음. 그 주목적은 스타트업 수준의 초소형 식품기업들에게 상업등급의 조리공간과 사업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임. 한 카페를 리노베이션해서 186평방미터의 공간을 확보한 후,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11개 식품기업의 출범을 돕고, 식품사업 운영에 관한 통찰력 제공을 통해 또 다른 46개 식품 스타트업들도 지원했음. 식품안전 최우수 관행, 운영, 우수 비즈니스 관행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TFBI 운영의 핵심임. 이 시범 프로젝트는 이제 ‘Foodstarter’의 설립으로 이어졌음. 1,858평방미터의 Foodstarter는 토론토 대도시권의 식품 생산시설로 4개의 상업조리실, 스타트업 식품기업들을 위한 1개의 베이커리 연구실, 성장가속화단계 식품기업들을 위한 7개 공간¹⁰⁾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시설은 2015년 10월에 운영하기 시작했음.
- GHFFA는 행동계획에 참여한 각 광역자치체/기초자치체 정부의 선출직 대표

10) 편집자 주: 이 시설에는 입주업체들이 공동으로 조리실과 베이커리, 포장기계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성장기업들은 이 공간에 독자적인 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음(<http://foodstarter.ca/accelerator-spaces/>).

자들과 농식품 부문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됨. 실무 작업반에는 각 시/광역시 자체에서 계획 실행을 돕기 위해 지명한 인력들로 구성됨. Foodstarter는 토론토시 경제개발·문화국(식음료부문 전문가와 인큐베이션기업서비스 관리자)이 관할하며, 이사회는 토론토대도시권 식품산업 전문가들과 온타리오주 농식품부, 지역 내 여러 대학의 대표자들로 구성됨.

- 이 사업은 먹거리 체계 개혁에서 이해관계자 참여와 파트너십의 중요성, 여러 시 부서와 광역정부 부서 직원들의 참여, 공식적인 정책개발과 가치망 이니셔티브 지원 간의 균형, 토지이용계획에 초점을 맞추는 것(농지와 농장기반 사업체 보전에 필수적임) 등을 제시하고 있음.

⑤ 다양한 지역공동체 텃밭 - 위트레흐트(네덜란드)

- 지난 몇 년 동안 위트레흐트(Utrecht)에는 매우 다양한 지역공동체 텃밭들이 생겨남. 어린이들이 노인과 함께 일하는 텃밭,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결집하는 텃밭, 심각한 정신장애나 중독을 가진 사람들이 평화를 발견하고 사회에 다시 참여하는 방법을 배우는 텃밭, 부자동네 텃밭, 가난한 동네 텃밭, 교육용 텃밭, 창조적인 예술 텃밭 등 다양한 유형의 지역사회 텃밭을 개발하였음.
- Food for Good은 이미 자리를 잡은 프로그램 중 하나로, Kanaleneiland district에 있는 Transwijk 공원의 텃밭임. 이 텃밭에서는 지역주민들과 취약 계층(약물중독자, 노숙자, 정신질환자 등)이 함께 과일, 채소, 허브를 기름. 수확물 중 일부는 참여자들의 자가소비용으로 사용되고 일부는 사회적 식당인 Restro Van Harte와 푸드뱅크로도 감. 이 텃밭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담소를 나누거나 협력할 수 있는 녹색 오아시스 역할도 함. 이곳은 2015년 네덜란드 최우수 도시농업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도시농업상을 받았음.
- Spinoza garden은 위트레흐트 서쪽 스피노자공원 내의 지역공동체 텃밭임. 이곳에서는 어린이와 부모들이 함께 일하며, 많은 사회문제를 가진 이 동네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함. 이 프로젝트는 한 지역공동체의

예술 프로젝트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닭도 키우고, 사람들이 모임을 할 수 있는 건물도 세워졌음. Cremertuin은 서쪽 district에 있는 지역공동체 텃밭으로, 놀이 공간과 텃밭으로 구성되어 있음. 생산되는 먹거리는 참여자들의 자가소비와 푸드뱅크 기부용으로 사용됨. Voedseltuin Overvecht는 Overvecht District에 있는 지역공동체 텃밭으로, 사람들이 공동으로 작업하여 생산물을 나눠 가짐. 이 텃밭은 공용공간에 있음.

- 텃밭 이니셔티브들은 보통 시민들과 사회조직들의 주도로 시작되며, 지자체는 그것을 촉진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함. 이니셔티브들은 지자체의 기금(도시농업 기금, 이니셔티브 기금)과 민간기금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음. Food for Good은 3개의 파트너에 의해 운영됨. 시민사회조직 1개, 교육과 지속가능성을 담당하는 조직 1개, 취약집단을 담당하는 조직 1개가 그것임.
- 위트레흐트의 지역공동체 텃밭은 이런 이니셔티브들이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작경제적생태적 기능을 잘 보여줌. 사회적 결속력과 건강, 웰빙 측면에서 주로 기여하는 텃밭들이 있는 반면, 참여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상당량의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텃밭들도 있음. 텃밭은 또한 이러한 활동을 시민과 시민사회조직이 주도하고 지자체는 간접적인 촉진자 역할만 하는 것이 중요함을 잘 보여줌.

⑥ 시카고 내에서 더 많은 먹거리 기르기: 생산적인 도시 토지이용계획 체계 구축과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유통하는 사업체 지원 - 시카고(미국)

- 2011년 시카고 시의회는 토지 용도 구역 조례를 개정하여 도시농장과 지역공동체 텃밭을 적합한 토지 용도로 공식 승인했으며, 그 크기와 위치에 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했음. 덕분에 지역공동체 농업벤처와 상업적 농업벤처들이 다양한 토지 용도 구역에 설립될 수 있게 되어 시카고 전역에서 이런 사업체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
- 지난 10년 동안 시카고시는 주로 비영리 파트너십을 이용해서 몇몇 지역이 텃밭, 도시농장, 먹거리 생산 센터로 개발되도록 촉진했음. 대부분 기존 도

시농장 부지들은 시 소유 공지 중에서 주변 토지이용과 미래 토지이용을 기반으로 선정된 부지에서 개발되었음. Recipe for Healthy Places and Green Healthy Neighborhoods 같은 계획들을 통해 시카고는 시 소유 공지에서의 도시농장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 확대할 것이며,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사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 인센티브도 계속 늘릴 것임.

- 이런 프로젝트들은 시카고시(계획개발부, 해운시설관리부 등)와 비영리기업-민간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추진되고 있음.
- 지금까지 진행된 것 중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은 NeighborSpace(비영리 토지신탁) 및 교육, 일자리교육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먹거리와 기타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타 비영리조직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되었음. 비영리 및 민간부문 재배자들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도시농장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 옥상 텃밭과 실내 텃밭이 대표적으로, 높은 수확을 올리면서 다양한 공동체 차원의 편익도 창출할 수 있음. 몇몇 경우에는 시가 이런 유형의 시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나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함.

⑦ 먹거리재배 지역사회(Growing Communities) - 런던(영국)

- 먹거리재배 지역의 대표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음.
 - 푸드존(Food Zones): 먹거리를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하고 조달해야 할지에 관한 제안을 통해 도시 먹거리 공급을 개선하는 방법에 관한 모델
 - 지역사회 주도의 유기농 과일채소 꾸러미: 1,000개 가구의 판매망을 보장해줌으로써 지역 소농들을 지원함. 1996년에 출범했음.
 - 유기농 농민장터: 25명의 지역 유기농-미생물의존 농업을 하는 생산자를 지원함. 2003년에 시작했음.
 - Patchwork Farm(해크니¹¹⁾ 소재): 공원과 사유지, 교회부지, 지역 주택위원회 소유의 부지에서 유기농 쌈채소와 기타 채소를 기르는 12개의 소규모

11) 편집자 주: Hackney는 런던의 borough 중 하나임.

모 사이트임. 1997년에 첫 사이트가 개설되었으며, 마지막 사이트는 2014년에 개설되었음. 청소년들과 도시 먹거리 재배자들에 대한 교육도 시행하여, 2004년 이래 25명이 수료했음.

- 근교 지역의 Dagenham Farm: 0.75헥타르에서 과일과 채소를 재배함. 2012년 시작했음.
-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역사회 주도의 꾸러미사업을 시작하도록 다른 그룹들을 훈련시킴. 2010년 이래 7개의 그룹이 출범했음.
- 먹거리재배 지역사회는 농민 장터와 꾸러미사업에서 얻는 수입으로 재정자립을 이루었지만, 몇몇 프로젝트들은 다음과 같은 외부자금을 지원받음.
- 스타트업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런던 시장으로부터 Urban Food Routes 자금을 지원받음.
- Patchwork Farm 확대를 위해 Capital Growth로부터, Dagenham Farm 설립을 위해 Big Lottery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음.
- 해크니 의회 소유 몇 개 부지를 최소 임대료로 임차함.
- 시민사회로부터의 엄청난 지원: 꾸러미사업 고객들이 먹거리재배 지역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많은 지역주민이 이들 사이트의 성장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고 있음.
- 해크니 주변에 있는 먹거리 관련 사회적 기업들 다수와의 연계망
- 푸드존은 도시의 먹거리와 어디서 먹거리를 조달해야 할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 모델임. 먹거리를 기를 때는 어디서 어떻게 판매할지 생각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함. 꾸러미사업은 Patchwork와 Dagenham Farm들에게 시장을 보장해줌. 도시 먹거리재배가 재정적 자생력을 가지게 하기는 어려움. 하지만 푸드존이 제공하는 교육, 지식확산 그리고 이로 인한 사람들의 인식향상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음. 자원봉사자들은 이런 일이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함.

⑧ 자가소비용 도시 가족텃밭 - 메델린(콜롬비아)

- 취약계층 가정들의 건강하고 영양 많은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고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가족텃밭 사업. 참여 가족들 간의 경험 교환을 장려하고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지원으로 텃밭 재배 가정을 지원하고 있음.
- 지자체 차원의 먹거리 보장 프로그램의 일부로, 메델린시는 자가소비용 가족텃밭을 장려하고 있음. 이를 통해 취약계층 가정들의 건강하고 영양 많은 먹거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2가지 핵심전략이 수립되었음. 첫 번째는 참여 가족들(농촌 지역에서 쫓겨난 이주민인 경우가 많음) 간의 경험지식 교환을 장려하여, 즐겁고 재밌는 방식으로 텃밭 재배 의욕을 불어넣는 것임.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농학자, 사회복지사, 영양학자 등)로 구성된 학제적 그룹이 참여 가족들을 지원함.
- 지원·훈련 활동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자가소비용 먹거리 생산과 참여 가족들의 기술적·영양적·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가족텃밭의 중요성
 - 텃밭의 계획 및 디자인, 흙 준비, 재배계획, 기술(상자, 재활용 병을 활용한 재배 등)
 - 가족텃밭에서의 우수 농업 방식. 고품폐기물 분리관리, 퇴비 만들기, 생물 비료, 표본
 - 건강한 식생활, 먹거리 라벨링, 적절한 먹거리 저장. 가족 공동 책임의 중요성을 알림.
- 이 프로그램은 메델린 16개 자치구(communas) 중 13개에서 시행되고 있음. 2013년에 150개의 텃밭이 운영되었으며, 2014년에는 435개로 늘어났음.
- 도시 가족텃밭 프로그램은 먹거리 보장 프로그램을 식품보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더 통합적·포용적인 방식으로 건강하고 영양 많은 먹거리의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쪽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에 부응함. 이 프로그램은 또한 먹거리 생산 활동과 건강 및 식습관에 관한 교육, 공동체 구축, 고품폐기물 관리를 결합할 가능성도 보여줌.

- 참여 행위자는 다음과 같음.
- 메델린시 먹거리보장 유닛
- 지역사회 지도자 및 조직
-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가족
- 전문가와 교사

⑨ 미니 텃밭(Micro Gardens) - 다카르(세네갈)

- 미니 텃밭은 텃밭지기들에게 신선하고 영양 많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고 관리하기 쉬운 방식의 텃밭임. 상자(오래된 우드 팔레트나 타이어, 플라스틱 판 같은 폐품으로 텃밭지기가 직접 제작하여 사용), 흙(정원용 흙이나 지역 음식물쓰레기/잔반(땅콩껍질, 쌀겨)과 라테라이트¹²⁾를 섞은 것), 종자만 있으면 만들 수 있음. 흙이 없으면 수경재배할 수도 있고 다양한 대체물을 이용해서 재배할 수도 있음¹³⁾. 비료는 광물비료나 유기질 퇴비를 이용할 수 있음. 남은 생산물은 팔아서 부수입을 올릴 수 있음. 공간이 거의 필요 없어 땅이 없는 빈곤층에게 적합하며 여성, 청소년, 노인들에게 특히 좋음(여성 비율은 83%, 36세 미만은 50%임. 노인, 장애인, 역류자 같은 취약계층에게 이를 가르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시행됨). 2006년 이래 여성, 청소년,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다카르에 있는 12개 훈련시범 센터는 10,000명 이상을 교육하고 25개 초등학교에 10,000개 이상의 키트를 배포했음. 147개의 지역사회 생산센터가 설립되었으며, 농산물 구매를 담당하는 사무실도 설치되었음. 현재 이 기술은 세네갈 각지로 확산되고 있음.
- 미니 텃밭은 가정의 먹거리 보장에 기여하고, 신선하고 영양 많은 채소의

¹²⁾ 편집자 주: laterite: 열대와 아열대에 있는 붉은빛의 흙

¹³⁾ 편집자 주: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www.pthorticulture.com/en/training-center/greenhouse-herb-and-vegetable-production-part-44-growing-media/>

소비를 증진함. 텃밭지기들에게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도록 함으로써 빈곤을 줄이고, 환경교육도 시행함. 마이크로 가든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 먹거리 생산에 기초한 사회적이고 공정한 새로운 가치망이 구축되고 있음.

- 다카르시는 다음 주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니 텃밭 프로젝트를 실행함.
 - 밀라노시
 - FAO
 - 이탈리아 개발협력처(Italian Development Cooperation)
 - 밀라노대학교
 - 세네갈 내 다른 지자체
- 실행 파트너와 전략 파트너는 다음과 같음.
 - ACRA-CCS, COOPI NGOs
 - Senegalese Horticulture Direction
 - Hann 동물원
- 이 프로젝트에는 민간기업들도 참여하여 자재를 공급했음.

⑩ 시 상수원 보호를 위한 유기농업 - 파리(프랑스)

- 이 행동은 공공급식에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개발계획의 일부로, 파리지 상수도 배분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 'Eau de Paris'가 실행함. 이를 통해 파리는 파리 상수원 상류 지역의 유기농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음. 2010년 이래 이 공기업은 환경 및 수질 보전을 위해 153헥타르의 농지를 매입했음(2014년에만 13.9헥타르를 매입했음). 그 결과 2014년 현재 264헥타르의 농지가 확보되었으며, 183헥타르(73%)는 이미 유기농으로 전환됨.
- 이 계획(2009~2014년)을 통해 파리는 시 구내식당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유기농, 제철, 지역산)도 27.3%(2014년 기준)로 늘릴 수 있었음. 이 계획에는 기존 자원과 구매정책에 대한 평가와 유기농산물 도입 확대를 전문가들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도구도 포함되어 있음. 시의회는 새로운 계획(2014~2020년)

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산물의 비중을 50%로 늘린다는 목표를 설정했음.

- 이 행동은 파리 수자원공사(Eau de Paris)가 조율하며, 2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음. 유기농업과 그 장점에 관한 농민들의 인식을 높여 유기농 전환을 장려하는 동시에, Eau de Paris가 상수원 상류 지역의 농지를 매입하여 특별한 “농촌환경 임대제도”를 통해 농민들에게 관리를 맡김.
- 관련 행위자는 다음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
 - Eau de Paris - 파리지 상수도 배급을 책임진 공기업
 - 파리지
 - 민간부문: 지역 NGO, 도시농부

⑪ 벽과 지붕을 이용한 도시농업 - 파리(프랑스)

- 파리의 도시농업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많은 기능을 수행함. 2002년 파리지의 지원으로 지역공동체 텃밭이 설립되어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음. 2015년에는 8개 지역공동체 텃밭이 신설되어, 파리지 내에 111개가 넘는 지역사회 텃밭이 자리하고 있으며, 총면적은 약 6헥타르에 달함. 여기에는 7개의 연대텃밭(solidarity garden)이 포함됨. 이들 텃밭은 지역주민들이 관리하며, 3,000명 이상의 회원들을 결집하고 건강한 제철 농산물도 장려함.
- 도시농업은 현재 파리지장이 역점을 두는 분야 중 하나로, 2020년까지 지붕과 벽을 이용한 생산공간을 33헥타르 조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음. 이 목표는 100헥타르의 녹색 지붕과 벽 조성을 통해 파리를 더 녹색도시로 만든다는 광범위한 프로그램의 일부임. 2013년에는 혁신적인 도시농업체계 사업 아이디어에 관한 공모전이 성황리에 열렸음. 또한 새로운 농업 프로젝트를 촉진 및 지원하기 위해 파리시는 몇 건의 컨퍼런스를 조직해서 도시농업에 관한 인식을 높였음.

- 또한 파리는 여러 교통수단이 결집하는 물류센터인 Chapelle International Facility(18th arrondissement) 지붕에 5,000m² 면적의 도시농업 생산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 도시농업은 시의 녹색화와 생물다양성, 지역경제와 일자리, 주민 간의 연대, 고품질 먹거리, 버려진 부지 활용, 폐기물 재용도화(repurposing), 다양한 도시경관 증진 등을 추진함.
- 참여 행위자로는 민간부문(지역 NGO와 도시농부), 지역 지자체(파리시)가 포함됨.

5) 먹거리 공급과 유통

① 현대적인 시장들의 네트워크 - 바르셀로나(스페인)

- 1992년 이래 바르셀로나 시장협회는 바르셀로나 옥내 시장 40개 중 25개를 재개발했음. 협회는 이들 장소로 도시계획과 시민들의 구매체계를 재형성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념을 바탕으로 이를 추진했음. 이들의 예측은 적중해서, 현재 이 시장들은 매력적이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시장으로 탈바꿈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하고 신선한 로컬푸드 제공을 통해 식품소매 업체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음.
- 시장들은 리모델링되거나 리노베이션되었으며 바르셀로나 시의회, 바르셀로나 시장협회, 40개의 시장 상인협회, 지역주민, 사회조직 및 NGO, 민간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관리되고 있음.
- 전통시장은 도시와 지역의 핵심임. 전통시장을 매력적인 장소로 재단장하면,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와 상업적 전략을 실행하는 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식습관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함.

② 민간부문과 시민사회의 협력 - 텔아비브(이스라엘)

- 텔아비브시는 Smart Food City 프로그램을 통해 신선한 먹거리(과일, 채소, 주스, 후무스, 팔라펠 등)에 연중 접근할 수 있도록 장려함. 텔아비브는 기업규제인가 부서를 통해 [먹거리를 판매하는] 상점, 노점, 키오스크들이 공간을 늘리거나 매장 앞에서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 또한 시 전역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내에 이런 매장들이 설치되도록 하고 있음.
- 동네 수준에서 여러 협동조합 스타트업들이 출현했음. 먹거리를 대량으로 사서 서로 나눔으로써, 도시 생계비도 줄이고 농민과 기타 지역 생산자들과의 유대도 강화하려는 것임.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 다양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개발되었음. 예를 들어, 지도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Grab a fruit'은 시내 공공용지와 사유지에 있는, 현재 과일 열매를 딸 수 있는 과실수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
- 텔아비브는 대규모 시범 프로젝트인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하여(From an existing community to sustainable community)”를 실시하여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했음. 상점 소유주들과 식품체인 매장, 스타트업, 지역사회 노동자, 시민집단 등이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보건부도 이를 지원함. 'Shelanoo' 같은 협동조합들은 크라우드펀딩의 혜택을 보고 있음. 크라우드펀딩 참여자들은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음.
- 스마트 푸드 프로그램(Smart Food Programme)은 신선 농산물의 유형이나 물량에 대해 어떤 기준도 설정하지 않음. 시민과 사업체 소유주 간의 대화를 통해 균형이 달성되는 것임. 지역공동체 주도 이니셔티브에서 탄탄한 지역공동체 구조를 구축하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지자체의 역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이니셔티브들을 함양하고 지원하는 것임.

③ 혁신적인 유통체계 - 리옹(프랑스)

- 리옹시는 지속가능한 식생활과 사회적 포용 증진을 위해 다양한 혁신적인 유통체계를 지원하고 있음.
- 서로 중복되지 않으면서 상호보완적인 4개의 독립 사업체로 구성된 유통체계인 Super Halle을 통해, 소비자들의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면서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갖게 됨. Super Halle은 소비자들에게 독특한 쇼핑경험을 제공하는데, 유기농 식품을 판매하는 상점 1개, 농민들이 자신이 생산한 신선 농산물을 판매하는 장소 1개, 식당 1개, 먹거리 공급/배분 허브 1개로 구성된 유통체계에서 저소득층 시민들은 일반식품과 유기농 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일반 시민은 유기농 식품을 정가가로 구매하여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임. 시민 간의 연대의식, 건강한 식생활교육도 유통체계에서 이뤄지는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식료품점 “La passerelle d'Eau de Rebec”는 이중가격 시스템을 운영함. 저소득층 ‘수혜자들’은 이곳에서 자선용 식품을 주로 구입하지만, 유기식품도 정가가 이하로 구입할 수 있음. 그리고 ‘연대고객들’은 유기농 식품을 정가가로 구매함. 연대고객들에게서 거둬들인 이익 덕분에 수혜자 고객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유기농 지역산 신선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임.
- 이 혁신적인 배분체계는 다양한 행위자들을 결집함. 기업인, 상점 소유주와 관리자, 지역 생산자, 유기농 식품 도매업체, 지역 관공서(리옹시, 리옹 대도시권), 정부 지원금, 시민사회(NGO, 크라우드펀딩), 은행 등이 대표적임.
- 이런 프로젝트의 거버넌스와 조율에 드는 거래비용은 많으며, 행정업무 역시 각 비즈니스 모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함. Super Halle은 사회적 결속을 향상시키고, 요리강습 같은 다양한 활동들이 시작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며, 건강한 식생활과 상호학습도 증진함. 지역 내 사회적 다양성이 효과적인 통합의 열쇠임.

④ 건강을 위한 안전하고 질 좋은 길거리 음식 - 아비장(코트디부아르)

- 정부의 요청으로 2012년 FAO는 아비장 길거리 음식에 대한 평가를 했음. 그 결과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음식의 안전성과 품질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음.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이 프로젝트 설계와 실행에 초기부터 개입했음.
- 지역공무원들에게는 길거리 음식의 판매자들이 지켜야 할 식품안전 기본개념, 영양, 사업관리에 관한 교육을 제공했음. 그런 다음 지역공무원들이 길거리 음식 판매자들을 가르치도록 했음. 아비장 내 10개 자치구에 있는 200명 이상의 길거리 음식 판매자들(주로 여성)이 교육을 받았음. 특히 아비장 인구밀집 지역인 아야(Yopougon) 의회가 다수의 판매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효과를 높였음. 이 프로젝트는 국가 수준에서 이미 존재하는 지식과 자료를 활용했으며, 여러 채널(영양 클러스터 회의 등)을 통해 프로젝트 활동에 관한 정보가 끊임없이 유통되도록 장려하고, 구체적인 후속 행동계획도 작성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의 승인을 받았음.
- 이 접근법의 장점은 많은 부분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의 결합에 있음. 이 프로젝트는 길거리 음식과 관련된 기관 대부분을 결집시켰음. 지역 의회, 지역보건소, 국가 기관들(보건HIV대처부 등) 등이 대표적임. 그 결과 지역과 국가 간에 정보가 원활하게 유통되어 실행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모든 관련자가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을 맡아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도 향상되었음.¹⁴⁾
- 또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다부문적 모니터링 위원회”를 통해 초기부터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해 활동의 실행과 모니터링에 관한 지원과 조언을 제공했음. 덕분에 모든 관련자가 이 프로젝트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음. 조율을 담당하는 실무자는 적절한 모든 채널(먹거리영양 보장 클러스터 등)을 이용해서 실행과정 내내 리더십을 발휘함.

14) 편집자 주: 이 문장도 원문이 문법에 맞지 않아, 의미가 상당히 모호함.

- 지역 수준에서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된 데에는, 아마장 최고의 인구밀집 지역 중 하나인 아야 의회의 공이 컸음. 의회는 이 프로젝트에서 추진하는 훈련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자체 재원을 활용해서 더 많은 판매자에게 교육을 시행했음. 마지막으로, 결과의 공유와 후속 행동에 관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⑤ 수로와 철도를 이용한 슈퍼마켓 물류 - 파리(프랑스)

- 화물의 도로운송은 도시교통량의 20%와 미세먼지 배출량의 38%를 차지함. 파리는 지속가능한 도시 물류 현장을 신설하고 식품공급업체들이 동참하도록 권장함. 이 현장은 모든 활동에서 디젤유의 사용량을 크게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2013년 이래 90개 회사가 현장에 서명하여 2017년까지 운송과 정에서의 총 디젤유 사용량을 50% 줄이려 함.
- 이를 위해 파리시와 공기업 SOGARIS는 여러 운송수단을 활용하는 물류센터인 Chapelle International(42,000m²)을 건설했음. 이 센터는 철도를 이용해서 많은 양의 화물을 파리시 중심부로 운송하도록 장려함. 그다음에는 친환경 차량을 이용해서 상품을 여러 동네로 배분함. 그 결과 소음과 공해물질, 온실가스 같은 환경영향이 줄어듦.
- 또한 파리시는 슈퍼마켓 체인 Franprix와 협력하여, 이 업체가 강을 이용해서 시내 100개 이상의 매장으로 상품을 운송하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출범시킴. 26개의 컨테이너가 Bonneuil-sur-Mame 항구(발드마른주)에서 20km 떨어진 de la Bourdonnais 항구(파리 7구¹⁵⁾)로 운송됨. 소규모 회사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예를 들어 Monoprix 슈퍼마켓 체인은 친환경 물류회사인 “Vert chez vous”¹⁶⁾나 철도를 이용함.

¹⁵⁾ 7th arrondissement

¹⁶⁾ 편집자 주: 전기나 압축천연가스(CNG)를 이용한 친환경 차량으로 도시 물류를 하는 회사

<http://www.vertchezvous.com/qui-sommes-nous-vcv/>

- 수운(waterways transportation)은 환경영향을 낮출 수 있는 유망한 운송 방식임. 같은 거리를 운반할 때 트럭보다 에너지 사용량이 3분의 1에 불과하며, 온실가스 배출량도 2분의 1에서 4분의 1에 불과함.
- 관련 행위자는 다음과 같음.
 - 파리지시
 - SOGARIS
 - Franprix, Verchezvous, Monoprix

⑥ 녹색 식품부문 사업체 라벨 - 텔아비브(이스라엘)

- 2015년 텔아비브시는 지자체 수준에서 식품부문 사업체(도시 내 식당, 바, 카페 등) 대상의 녹색 라벨을 도입, 환경친화적인 행동 규범을 장려하고 있음. 에너지, 물, 지속가능한 조달, 자재 관리와 폐기물, 지역사회 참여, 녹색 마케팅 등 부문별로 환경친화적 실천을 장려하고, 환경친화적 행동 규범을 채택하도록 장려하며, 이를 실천하는 사업체에 녹색식품 라벨을 부여하고 있음. 사업체들이 환경친화적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정보, 도구를 제공하고 있음. 환경보호부와 협력하여 제작한 온라인 매뉴얼 개발, 사업체 간 모범 사례 공유가 가능한 회의 개최도 포함됨.
- 녹색 라벨 외에도, 텔아비브 지자체는 사업체들이 기업과 환경에 모두 이득이 되는 지속가능한 관행을 채택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와 정보 키트, 전문적인 지식도 제공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지자체는 환경보호부와 협력하여 식품 부문 사업체들을 위한 온라인 매뉴얼인 “Greening Your Business”를 개발했음. 또한 사업체 간 회의를 조직하여 사업체들이 서로 모범사례를 공유하게 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실용 도구들도 제공함. 그리고 사업체들은 지자체 녹색 라벨 팀으로부터 개인적인 조언도 구할 수 있음.
- 현재까지 30개 사업체가 여기에 참여함.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업체들도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 이 프로

젝트는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 먹거리정책의 통합에 기여함. 예를 들어 녹색 라벨 사업은 지역산 식품이나 유기농식품 같은 녹색식품의 조달을 증진하고, 채식메뉴의 도입을 장려하며, 멸종위기 어류(혹은 새로 도입된 외래종)를 사용한 요리를 배제할 것을 권고함. 또한 사업 활동에 관한 모니터링 증진, 식품 저장 방식 개선(이는 식재료 배송을 줄여 도시 대기오염 감소에도 기여함), 재활용과 퇴비화 증대(가능할 경우)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소에 기여함.

- 이 프로젝트는 지역경제의 주요산업인 식품부문의 환경성 향상과 이산화탄소 감소를 위한 도구의 하나로 지자체에 의해 시작되었음. 그런데 실행과정에서 보통 전문성 부족이나 적절한 정보 부족 때문에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관행이나 기술적 해법들을 채택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짐. 덕분에 이 프로젝트는 지자체와 사업체 간의 긍정적인 소통채널 구축에도 기여하고, 지역경제와 지자체 브랜드 강화에도 도움이 되었음.
- 이스라엘 식당의 40%가 텔아비브에 있어 이 프로젝트는 국가 전체적으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침. 환경친화적인 상품과 서비스 시장 확대, 환경친화적 소비에 관한 인식 증진, 녹색 비즈니스 관행 진흥 등이 대표적임.
- 관련 행위자로는 지역 관공서, 텔아비브 환경보호국, 이스라엘 환경보호부, 이스라엘 표준협회 등이 대표적임.

⑦ 공정·지속가능 도시 라벨 - 리옹(프랑스)

- 리옹의 공정·지속가능 도시 라벨은 도시 내 상인들 사이에 지속가능한 실천과 관련된 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되었음. 라벨의 특징은 선정 기준의 투명성과 라벨을 받을 만한 수준이 되지 않는 사업자들을 위한 점진적인 개선 과정임. 리옹시에서 식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사업체의 40%가 호텔, 식당, 카페 등임), 먹거리가 선정기준에 포함된 것은 당연했음. 이 라벨은 이들 사업자 사이의 협력뿐만 아니라, 공정성·지속가능성

과 관련된 리옹 내 식품 분야 활동과 기타 분야 활동 사이의 협력도 촉진함. 2015년 6월 이래 200명의 적극적인 참여자들이 네트워크 활동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 가장 중요한 교훈은 다음과 같음.
 - 선정된 업체의 숫자보다 업체 선정 과정, 투명한 선정기준, 가치가 라벨의 신뢰성 향상에 더 중요함.
 - 참여자들이 피드백을 제공하고 모니터링을 도울 기회를 부여해야 함.
 - 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창조하는 일과 일반대중의 지속가능한 소비를 증진하는 일은 상이한 목표이며 결과물도 다름.
- 관련 행위자와 자원은 다음과 같음.
 - 지역 관공서: 시의회+연간 35,000유로의 예산+반일제(1/2) 행정직원+외부 전문가
 - 민간부문: 비참여 기업들과 모니터링 과정에 도움을 주는 NGO들로 구성된 독립 네트워크

⑧ 저소득층 가정의 건강한 먹거리 접근성 향상 - 쿠리차바(브라질)

- 지자체가 주도하는 “가족상점(Armazém da família)” 프로그램에는 먹거리, 위생용품, 청소용품(약 220개)을 판매하는 상점 32개가 포함되어 있음. 또한 외딴곳에 사는 주민에게 접근하기 위해 버스를 개조한 이동식 상점도 운영하고 있음. 이 이동식 상점은 15일마다 24개 지역을 방문해서 이 프로그램에 등록된 저소득층 가정에게 상품을 판매함. 이들 상점의 가격은 민간시장보다 평균 30% 정도 저렴함. 매달 평균 120,000가정이 이곳에서 물건을 사서 가족의 식비와 필수품 구입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가족의 먹거리 보장 향상에도 도움이 됨. 또한 이 프로그램은 지역 시장의 가격을 낮추는 효과도 발생시키며, 사회적 연대 경제의 좋은 사례임. 2년 동안 팔린 상품의 총량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의 절약액은 1억 2,400만 헤알로 추정되며, 이는 시 먹거리 공급 담당관이 같은 기간 중 이 프로그램 예산(세부사업 20개, 수혜자

2,300만 명 이상(중복 포함))으로 할당된 금액보다 더 많음.

- 2014년에는 브라질 최초로 “Nossa Feira” 프로젝트가 시작됨. 30개 과일과 채소가 평균 소매가보다 40% 싸게 정해진 설정가격으로 팔림. 이 프로그램은 가족농 협동조합이 운영하며, 조합은 시청의 허가과 가이드라인, 감독을 받음. 판매량이 늘자 이런 협동조합들의 컨소시엄이 창설되어, 주 내 9,000명 이상의 생산자들을 하나로 결집함. 파라나주 농촌지도기술연구소(Emater-PR)와 쿠리치바시 먹거리 공급 담당관(SMAB)이 컨소시엄의 결성을 지원함. 시작된 지 2년이 채 못 되어 이 프로그램은 10군데에서 장터를 개최함. 이들 장터는 일반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날짜에 개최됨. 1997년 시작된 “Sacolão da Família” 프로젝트 역시 같은 논리와 가격설정 방식을 따르지만, 영구적인 장소 16군데에서 운영되고 많은 경우 가족농업과 관련이 없는 상인들이 물건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Nossa Feira” 프로젝트와는 차이가 있음. 이 두 프로젝트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숫자는 매달 268,000명임.
- 저렴한 가격, 접근성 용이, 그리고 장터에서의 친밀한 사회적 상호작용 기회 덕분에 과일과 채소가 사람들의 식단에 다시 포함되어 가공된 식품들을 대체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함. 이 프로그램은 또한 가족농업도 강화했음. 생산자들의 단결과 조직화를 촉진하고, 생산자들이 기존 도소매 시장보다 높은 이윤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임. 또한 생산자들이 소비자시장에 관해 더 잘 알게 되는 효과도 발생함.
- 시스템 전체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살펴볼 때 이들 프로그램은 부의 재분배에 기초한 경제성장을 촉진함. 사람들이 절약한 돈을 다른 상품과 서비스에 재투자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식습관 향상으로 주민 전체의 건강도 개선함. 이 모든 일이 정부의 비용부담 거의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임.

6) 먹거리 폐기

① 영국 이삭줍기 네트워크 - 런던(영국)

- 영국 이삭줍기 네트워크(Gleaning Network UK)는 2012년 시작되었으며, 현재 영국 전역에 5개의 이삭줍기 허브를 운영하고 있음. 이삭줍기 허브당 코디네이터와 자원봉사자, 농민, 지역 단체가 참여함.

○ 구조

- 각 이삭줍기 허브마다 1명의 코디네이터가 있어서 지역 자원봉사자, 농민, 먹거리 재분배 자선기관을 지원함.

○ 하는 일

- 외관상의 이유로 소매업체들이 수량을 거부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모아 취약계층에 먹거리를 제공하는 자선기관에 보냄.
- 수십만 킬로그램의 영양가 많은 먹거리가 버려지지 않게 하고 추가적인 자원 사용 없이 먹거리 가용성을 증대함으로써, 중요한 환경 기능을 수행함.
-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능도 수행함.
- 도시 자원봉사자들이 시골과 (재)연결될 수 있는 기회와 농촌의 먹거리 생산에 관해 배울 기회를 제공함.
- 이러한 과일과 채소는 푸드뱅크로도 재배분됨.

○ 비용, 장비, 규제, 안전성

- 비용은 지역별로 크게 다름. 예를 들어 1톤의 과일과 채소를 이삭줍기하는 데 운송비로 60~120파운드, 자원봉사자 교통비로 50~100파운드가 필요할 수 있음. 과일, 채소 1톤은 약 10,000인분(portion)에 해당함.
- 포장은 생산자 네트워크가 제공할 수 있음.
- 모든 활동에는 모조적인 FeedBack을 통해 보험이 제공되며, 자원봉사자들은 코디네이터로부터 응급조치에 관한 교육을 받음.
- 3년이 채 못 되어 영국 이삭줍기 네트워크는 버려질 뻔한 130톤의 신선하고

영양 많은 과일과 채소를 재배분할 수 있었음. 이삭줍기는 음식물쓰레기 예방을 위한 매우 실용적인 해법인 동시에 음식물쓰레기 문제의 심각성과 그것을 해결해야 할 중요성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도구임. 주로 젊은층이면서 다양한 연령대의 자원봉사자 1,300명 이상이 참여함.

○ 관련 행위자

- 자원봉사자(gleaner) 및 자원봉사자 그룹: 농장으로 이동해서 과일과 채소를 수확하고 먹거리 생산과 음식물쓰레기 예방 및 감소에 관해 배움.
- 농민: 자원봉사자들을 맞아들여서 수확하지 않았거나 팔지 못한 농산물을 자원봉사자들이 수확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함.
- 먹거리 재배분 자선기관: 수확된 먹거리를 집하저장재배분하여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게 함.

② 안전하고 영양 많은 먹거리를 회수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배분 - 파리(프랑스)

- 프랑스에서는 2012년 음식물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협약이 작성되어 2013년 6월 14일에 조인하고 2015년 기준 프랑스 내 32개 단체가 서명하였음. 이 협정으로, 2025년까지 프랑스 내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50% 줄인다는 목표하에 안전한 먹거리가 폐기되지 않도록 수거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분배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공공부문, 민간부문, 시민사회 대표자로 구성된 6개 이해관계자 그룹들이 조직되었음. 안전한 식품을 선별, 재분배하기 위해 시장상인들과의 협력도 추진하며 일요일마다 시장상인들이 기부한 과일, 채소를 모아 품질 검사 후 재배분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먹거리 발전을 위한 파리의 계획에는 다음 요소들이 포함됨.
 - 행동과 지표 정의에 대한 평가
 - 기술·물류 관련 수단
 - 인식, 훈련, 교육
 - 이해관계자 사이의 연결

- 기관급식
- 법·규제·계약 관련 수단
- 국가 차원의 협약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안전하고 영양 많은 먹거리의 회수와 재배분에 역점을 두서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일 것을 권고함.
-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의 비율은 프랑스 전체적으로 16%임. 이런 이유로 음식물쓰레기 감소가 지속가능한 먹거리 발전을 위한 파리지 계획에서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되었음. 음식물쓰레기 감소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과 더불어, 파리시는 안전하고 영양 많은 먹거리의 회수와 재배분을 추진하는 지역사회 프로젝트들도 지원함.
- 그런 사례 중 하나가 파리 19구 주앵빌(Joinville) 소재 시장들과의 협력임. 일요일마다 시장상인들이 기부한 500~1,200kg의 과일과 채소가 수집됨. 관련 협회인 “Gleaners’ tent”가 과일과 채소를 수집해서 품질을 검사한 다음 재배분함. 파리시는 협회에 물류와 조직 관련 지원을 제공함.
- 이 사업의 성공은 참여자들의 공동노력 덕분으로 주요 참여자는 다음과 같음.
- 지역 공공기관: 파리지
- 민간부문: 과일·채소 상인들
- 시민사회: NGO “La tente des glaneurs(Gleaners’ tent)”
- 초기 결과에 따르면 안전하고 영양 많은 먹거리를 회수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배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엄청난 것으로 밝혀졌음. 공공-민간-시민사회 간의 파트너십 덕분에 사회적·경제적·환경적으로 많은 편익이 발생함. 이 사업은 다른 상품과 사업장으로 확대될 수 있음. 식품안전 및 품질이 중요하므로 지자체, 시민사회,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식품안전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음.

③ 무료급식소(soup kitchen) - 토리노(이탈리아)

- 무료급식소는 푸드뱅크, 소매업체로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한 먹거리를 기부받

고 토리노시가 제공하는 먹거리를 지원받는 등 다양한 경로로 수집한 먹거리로 운영됨. 토리노시 내 15개의 무료급식소는 네트워크로 연대하고 있음. 운영방식의 변화로 무료급식소 모델은 진화하고 있으며, 수혜자들이 적극적인 참여자 역할을 함. Fa Bene(do good) 사업의 경우 도매시장에서 먹거리 회수 후 가정에 재배분하며, 먹거리를 받은 가정은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함.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와 비영리 협회들이 발휘하는 연대의 정신 덕분에 무료급식소들이 많이 설치되어 번성하고 있음.

- 지역 공공정책 역시 무료급식소들을 2가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 식재료와 음식 제공. 하지만 무료급식소 운영에 관한 재정지원이나 은퇴자 용 숙소에 대한 재정지원은 하지 않음.
 - 조직 관련 지원: 주간 무료급식소 및 야간 급식소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어느 때든 시내에 최소 한 군데 이상은 문을 연 무료급식소가 있도록 함.
- 무료급식소는 푸드뱅크, 소매업체(유통기간에 임박한 먹거리를 기부), 토리노시(협약과 과거 수요를 바탕으로 먹거리를 제공) 등 여러 곳에서 먹거리를 얻음.
- 토리노 시내에 약 15개의 무료급식소가 있으며, 그중 5개는 시와 협약을 체결함. 나머지 무료급식소들은 비영리조직이 운영함. 15개 무료급식소 모두 사회서비스 차원에서 하나의 네트워크로 조율됨.
- 무료급식소 모델은 진화하고 있으며, 수혜자들이 적극적인 참여자 역할도 함. 구체적인 사례 중 하나가 Fa Bene(do good) 프로젝트로, 이 프로젝트는 도매시장에서 먹거리를 회수하여 필요한 가정에 재배분함. 이렇게 먹거리를 제공받은 가정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공동체에 보답하도록 장려함. 이를 통해 수동적인 수혜자로 전락할 위험을 극복할 수 있음. 이런 식으로 이 서비스는 취약계층의 사회적·직업적 통합을 촉진함.
- 다른 사례는 Third Week/Terza Settimana 같은 비영리조직의 지원을 받는 연대시장 혹은 사회적 시장임.
- 무료급식소는 취약계층이 충분한 양의 적절하고 영양 많고 건강한 먹거리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토리노 사례는 이와 관련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방법(먹거리기부와 기타 협력)을 보여줌.

- 이 사업은 민간부문(슈퍼마켓, 기업가(유기식품점)), 푸드뱅크, 토리노 관공서, 시민사회 등 여러 주체가 협력한 결과임.

④ 식품안전 및 접근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 쿠리치바(브라질)

- 1991년 쿠리치바시 먹거리공급 담당관과 환경 담당관이 공동으로 “CÂMBIO VERDE”(녹색교환) 프로그램을 출범시켰음.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음.
 - 교육
 - 환경 보전
 - 지속가능발전
 - 굶주림빈곤과의 싸움
- 녹색교환 프로그램은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근교 지역에서 가족농이 생산한 신선한 과일과 채소로 교환해 줌. 재활용품 4kg을 주고 과일채소 1kg을 받을 수 있음.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기름을 가져와도 됨. 기름 2ℓ는 먹거리 1kg으로 교환됨. 이런 교환이 쿠리치바시 전역에 있는 101개 장소에서 15일마다 진행되고 교환날짜는 시의 두 담당관이 1년치를 미리 정함.
-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쓰레기가 도시를 오염시키거나 경관을 더럽히거나 물에 들어가서 물 범람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막고 가족들의 식비 감소, 지역 가족농 지원, 주민들의 영양패턴 향상 및 더 나은 식습관 장려에 있음.
- 관련 행위자는 쿠리치바시 먹거리공급 담당관, 민간부문, 시민사회 등임.
- 이 프로그램의 실행으로 큰 효과가 발생함.
 - 도시 근교 지역의 환경 보전 문화 발전: 특히 먹거리를 비롯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 지역사회에 역점을 두었음.
 - 쓰레기가 부적절한 장소로 가는 것을 줄임: 폐기물을 먹거리로 교환해줌으로써 쓰레기가 강변이나 보전지역에 버려지지 않게 함(지자체의 쓰레기 청

소 비용절감).

-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책 프레임워크 형성을 촉진하며, 가족들의 식습관 향상에도 기여함.
- 가족농으로부터 과일과 채소를 조달하여, 잉여 농산물의 추가 판로 제공
- 폐기물을 효과적·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먹거리영양 보장도 지원함.

⑤ 바젤대학교의 지속가능한 급식 - 바젤(스위스)

- 2012년 바젤대학교는 강의, 연구, 외부활동, 캠퍼스, 대학 운영에 지속가능성을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속가능성 사무소를 설립하였음. 지속가능성 발전 석사과정 등도 신설되었음. 2013년 지속가능한 급식이 대학 급식업체와 WWF 스위스 기후보호 프로그램의 협력으로 실행됨.
- 대학은 지식과 혁신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음. 또한 대학은 통합적인 접근법을 채택했으며, 캠퍼스를 학생과 교직원들이 지속가능성을 경험할 기회를 주는 살아있는 실험실(Living Lab)로 간주함. 캠퍼스 서비스와 시설은 물론이고, 지속가능성에 관한 과목들도 개설되었음. 지속가능 발전 석사과정이 대표적임.
- 이런 접근법의 실행을 위해 지속가능성 사무실은 몇 가지 활동을 진행함. 지속가능성 개념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활동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급식을 추진한 것임.
- 지속가능한 급식은 대학 급식업체, WWF 스위스가 실행하는 기후보호 프로그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13년 봄에 시작됨. 이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조달(제철지역산 먹거리, 항공운송 금지 등), 채식메뉴 증가, 정기적으로 완전채식(vegan) 메뉴 도입, 음식물쓰레기 감소 및 예방, 조리 중 에너지 사용 감소 등을 실천함.
- 대학교에서 지속가능한 행사를 조직하는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개발됨. 여기에는 지속가능한 급식에 관한 정보와 음식물쓰레기 감소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 이 가이드라인은 내부적으로 사용되지만, 지역공동체를 위한 행사에서도 사용됨. ‘과학의 밤(Night for Science)’이 대표적으로, 이 행사에서는 대학이 바젤 지역사회에 문호를 개방함. 이를 통해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경험할 기회도 제공함.
- 학생들의 참여는 다양한 수준에서 일어남.
 - BOOST: 대학을 더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를 학생들 스스로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영양, 쓰레기 감소 및 관리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음.
 - 음식물쓰레기와 종이컵 쓰레기 감소 및 예방: 종이컵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한 학생들은 나중에 Refiller라는 회사를 세움. 이 회사는 지속가능한 대안의 도입을 통해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줄이는 것과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함. 이들은 현재 foodwaste.ch에 참여하고 있음. 이 비영리조직은 음식물쓰레기 감소를 위해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행동들을 실행하고 있음. 증거에 기반한(evidence-based) 인식제고 활동, 민간부문과의 협력 등이 대표적임.
- 참여 행위자는 바젤대학교, 지역 관공서, 시민사회 등임.
- 바젤대학교 내에 지속가능성 사무실을 둔다는 전략적인 결정 덕분에 몇몇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었음.

3_2016년 밀라노 먹거리협약 어워드 도시별 특징

1) 최고 득점 수상도시 - 볼티모어 먹거리정책 이니셔티브(미국 볼티모어)

- 볼티모어 식품정책 이니셔티브는 다부문 기구들의 관점으로 식품체계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초기 시간제 식품정책국장 1인을 배치한 데서 나아가 이를 확대하여 5인의 상근 인력을 확충함. 또한 15개 도시의 기관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개발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음. 식품정책 거버넌스 구조와 이해주체들의 활동을 통해 식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 수준의 식품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기금(미화 2백만 달러(약 23억 5천만 원))을 확보함.
- 볼티모어 내의 식품 공급이 열악한 지역은 ‘식품 사막(food deserts)’이라고 지칭되며, 이러한 식품 취약지역과 지역 차원의 식품 문제를 제기하였음.
- 볼티모어 내 10개의 도시먹거리계획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였고, 14개의 도시·주·연방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활동, 기초 설계 작업, 캠페인을 전개함.
- 도시농업계획 개발을 지원하고, 도시농부를 위한 도시농업 세금 공제와 농지 대여 사업을 시행함.

2) 역경 속 실천 수상도시 - 지역사회 공동식당 사업(멕시코 멕시코시티)

-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가정폭력 피해 여성, 노인,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중점 대상으로 하여 영양이 충분한 식사를 안정된 가격(미화 0.52달러(10멕시코페소))에 섭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금융위기 상황으로 인해 10년간 세계 식품 가격 인상이 이루어짐에 따라 멕시코시티의 식품공급이 취약해진 문제를 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임.
- 공동식당은 취약지역 중에서도 취약지수를 고려하여 취약 정도가 심한 곳, 중간 정도 등으로 분류하여 배치하였음. 사업 초기 공동식당은 1일 8,063끼니를 제공하는 160개 식당에서 출발하였음.

- 이후 멕시코시티 내 16개 지역 204개 식당으로 증가하였고, 1일 33,500끼니를 제공하였음.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의 규모가 171% 확대됨으로써, 직접적인 기아 감소를 이룰 수 있었음.

3) 거버넌스 영역 특별상 - 밴쿠버 식품 전략(캐나다 밴쿠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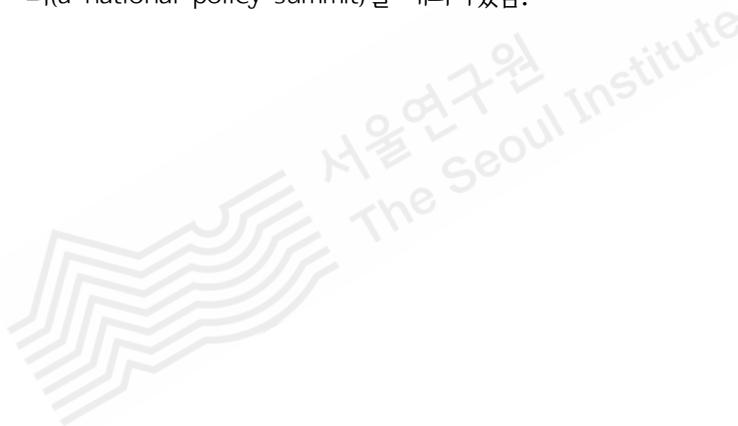
- 지역사회 텃밭 계획, 지역사회 과수원, 농부마켓, 지역사회 급식소 포함 도시의 식품 자산 수를 2010년 3,340개에서 2016년 4,612개로 증가시킴.
- 취약 지역사회에서 신선하고, 영양가 있고, 가격이 저렴한 식품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특히 초점을 맞추어 지역사회 식품마켓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음. 도시 전역에 식품을 제공하는 13개 지역사회 식품마켓을 설립함.
- 동네 수준에서의 식품정의(food justice)와 탄력성(resilience)에 초점을 맞추어 참여하는 사람들의 연대인 동네 식품네트워크(Neighborhood Food Networks)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 기금을 17만 달러(약 1억 9,900만 원)로 늘렸음. 2014년 기준 동네 식품네트워크에는 2천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함.
- 음식쓰레기/유기물(organics) 수거 쓰레기통(그린 빈) 수거를 시작하고, 모든 식품폐기물이 매립지에 묻히지 않도록 함. 그 결과, 매립지에 묻혀야 할 유기물 중 370,438톤을 매립지로 보내지 않았음.

4) 지속가능한 식생활과 영양 영역 특별수상(영국 버밍엄)

- 모든 학교와 지역주민센터(communitiy centres)가 농산물을 재배하고 지역사회에서 요리 교실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40만 파운드(약 5억 7,000만 원)의 기금을 확보함.
- 패스트푸드점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건강한 식품이 눈에 많이 띄게 하고, 가격 면에서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만큼 저렴하게 만들기 위하여 행동변화 단체인 '시프트 디자인(Shift Design)'에 의뢰하였음.
- 혁신적인 지역사회 기반의 건강과 웰빙 사업을 지원하고 기금을 공동사용(매

칭 펀드)하기 위하여 Crowdfunder에 의뢰함.

- 사업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인들에게 사업을 설명하였음.
- 건강하고 더 지속가능한 공공부문 조달이 이뤄지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 담당 Started work 관리들과 함께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여기에는 기준에 대한 국가 수준의 논의에 참여하는 것도 포함됨.
- Smart City Alliance와 파트너십을 이루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스마트 식생활 도시(Food Smart City) 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영국 내 채소 소비에 있어 공급 측면의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채소 더 많이 먹기(Eating more veg)’를 주제로 식품재단이 제안한 국가정책정상회의(a national policy summit)를 개최하였음.



4_서울시 먹거리정책의 영역별 세부 내용

1) 거버넌스

① 시민·전문가 참여 식품안전관리체계 운영

- 추진 목적: 식품안전 관련 주요시책 자문, 식품안전 관련 정보공유, 식품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의, 식품사고 조기대응을 위한 수도권 지자체 협력유지 등을 위해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함.
- 주요 내용: 서울시는 2008년 11월 서울시와 교수, 식품업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식품안전대책위원회와 서울시 및 식품 생산·유통·소비, 보육 등의 단체들로 구성된 식품안전협의체 관련 조례를 제정함. 또한 2010년 11월 수도권식품안전실무협의회를 통해 서울, 경기, 인천 간 협약을 체결함.

[부록 표 1] 시민전문가 참여 식품안전관리체계 사업내용

구분	내용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운영	• 근거: 서울시 식품안전 기본조례(제11조) • 구성: 서울시 및 교수·식품업계·시민단체 등 25명 • 운영: 위원회 및 3개 분과위(생산, 유통, 소비) • 회의: 정기회 연 1회, 임시회 필요시, 분과위 반기 1회 • 역할: 서울시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심의조정, 서울시 식품안전 관련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조정, 국내외 식품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 의견 제시 등
수도권 식품안전실무협의회	• 근거: 수도권식품안전협력을 위한 협약체결(2010.11.30) • 구성: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식품 관련 부서 실무위원 23명 • 운영: 3개 시·도 순회 개최(필요시 임시회 개최) • 회의: 정기회 연 2회 • 역할: 광역 식품사고 발생 시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시·도 간 합동점검 필요시 계획·조정·집행, 수도권 시·도 공동사업 제안 및 시행, 우수(실패)사례 식품정책 교류와 현안 문제 협의 등
식품안전협의체	• 구성: 서울시 및 식품 생산·유통·소비, 보육 등 18개 단체(협의체 산하에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 역할: 서울시 - 정책수립·지원, 생산·유통 - 안전·품질관리, 소비자 - 시책참여·홍보 등 • 사업내용: 식품안전 통합인증 추진 참여, 식품안전 커뮤니케이션 등 각종 사업 참여, 식품안전 정보 공유, 안전식품 공급협력, 식품안전사고 대응 등

출처: 서울시 식품안전과, 2015.12, 2016년 서울시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②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 食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 추진 목적: 푸드시스템의 패러다임 변화로 “시민의 먹거리 보장”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었으나 보편적 먹거리 복지에 대한 시민의 체감도가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조사 및 정책실행기반을 민·관 협의를 통해 만들어가고자 추진됨.
- 주요 내용: 서울 푸드플랜 食 거버넌스를 구성 및 운영하고 서울 먹거리 실태현황 조사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며, 지속가능한 먹거리 만들기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함.

[부록 표 2]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 食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사업 세부 추진계획

세부사업명	추진내용	역할분담 등 협치 방안
서울 푸드플랜 食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 민·관 협의체(食 거버넌스) 재구성 - 서울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분과별 민간 논의테이블 마련 및 시민단체 영역 확대 구성 - 민간 파트너 분과별 정례회의, 간담회 - 분과별 푸드플랜 수립 의제논의 및 정책제안 • 사업 계획 논의, 사전설계, 평가 수행 • 정책개선방안 도출	• 행정: 협의체 재구성, 보안, 위촉 관련 행정적 지원, 민·관의 협력파트너 행정조직 구축 및 소통창구 운영 • 민간: 협의체 재구성 및 운영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적극적 참여, 간담회, 정례회의 참여자 조직 운영지원, 민간의 자원(네트워크) 연계
서울 먹거리 실태현황 조사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한 정책 기반 마련	• 서울시민 먹거리실태 모니터링 • 먹거리 실태조사 사전설계 및 실태조사 방법 등 관련 추진계획, 평가, 전략도출 수행 • 서울시민 먹거리(소비, 외식 등) 실태조사 - 시민 영역별 먹거리 지원, 현황 실태파악 - 실태조사에 근거한 종합진단 및 전략수립 - 민관 협동으로 서울시민의 먹거리 시스템 기반분석 • 실태조사 및 현황파악을 위한 네트워크 확산	• 행정: 모니터링 및 기초조사 수행에 대한 기본예산 마련, 데이터 구축을 위한 행정 실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분석지원 • 민간: 소비자단체 및 시민영역별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인프라 연계, 데이터수집을 위한 실행 의제에 대한 시민사회 홍보 • 조사결과 분석 및 문제점 도출
지속가능한 먹거리 만들기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건강하고 바르게 먹기 대시민 홍보 - 서울 푸드플랜 중심의 건강한 식생활프로젝트, 생태순환 먹거리, 식품안전 등 관련 홍보 - “사랑의 푸드워크” 등 시민이 참여하는 먹거리 나눔 행사 등을 통한 캠페인 •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위한 시민 인식개선 공감 교육 - 소비자단체 중심의 인식개선 중점 교육 - 참여형 먹거리 나눔의 교육의 장 실천	• 행정: 시민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을 위한 행정실무, 서울시, 자치구 관계자 참여 • 민간: 소비자단체 등 민간 부문 관계자 참여 독려, 홍보, 공감대 형성 홍보, 캠페인을 위한 단체 네트워크 연계, 인프라 지원

출처: 서울시 식품안전과, 2016.12. 2017년 민관협력사업 계획 -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 食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

③ 시민 식품검사청구제

- 추진 목적: 먹거리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로서 시민고객의 안전한 식품을 먹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식품안전에 대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운영함.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시민고객 스스로 식품안전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주요 내용: 식품소비 현장에서 식품의 안전성, 위해 물질 함유 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위해성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시민 5인 이상 연서에 의해 대표자가 식품검사청구를 할 수 있음. 부적합한 식품은 회수·폐기 처분되며 행정처분, 사법처리가 이루어지고 이는 당사자는 물론 언론·시민에게 공개됨.

[부록 표 3] 시민 식품검사청구제 추진방법 및 절차

구분	내용
추진방법	• 청구요건: 서울시민 5인 이상 연서에 의하여 그 대표자가 신청. 학교, 어린이집,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의 경우 영양사 또는 시설장이 신청(단, 방학 등의 경우 서울시민 누구나 단독으로 신청 가능) • 청구대상: 시민이 식품소비 현장에서 식품의 안전성, 위해 물질 함유 등을 우려하는 제품으로 위해성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식품 • 청구심사: 「식품안전성검사 청구심의회」 구성·운영
처리절차	• 검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 공개
결과조치	• 부적합 식품 회수·폐기, 행정처분, 사법처리 의뢰 • 검사결과 청구 당사자 통보, 언론·시민공개(FSI)

출처: 서울시 식품안전과, 2015.12, 2016년 서울시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④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제도 활성화

- 추진 목적: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고 제도 활성화를 통해 위해식품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
- 주요 내용: 120다산콜센터, 1399 전화, 자치구별 홈페이지, 우편 등의 신고에 대하여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입력하여 통합 관리하고, 조사 결과 포상금지급 대상인 경우,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함.

⑤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 추진 목적: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조성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2009년 3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후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정·운영함(25개 자치구 지정 250명).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식품위생에 대한 지도·계몽 활동,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 판매 여부 확인, 위해 식품 및 정서 저해 식품·불량식품 판매 여부 등 확인 및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강화 역할을 담당함.

⑥ 식품 중 방사능 안전 모니터단 운영계획

- 추진 목적: 시민단체와의 협약으로 구성된 '식품 중 방사능 안전 모니터단'의 현장 운영으로 방사능 오염 우려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으로부터 방사능 식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식품 중 방사능 안전 모니터단은 차일드세이프 단체에서 4명, 환경연합에코생협 단체에서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2016년 8월 서울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됨. 인터넷,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및 짜라시(루머)에서의 방사능이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식품이 유통된 사례 및 방사능 오염식품으로 인한 피해 사례 등의 서면 작성·제출 등 모니터링, 시민단체와 서울시 합동 기획검사, 서울시 소재 시장·마트 등 유통점 및 기타 장소에서 시민단체(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정기적 협의에 의해 대상 식품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수거검사, 방사능 관련 시민의식 조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정기협의(월 1회), 식품의 방사능 안전 관련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2) 지속가능 식생활과 영양 영역의 서울시 먹거리정책

① 식품 중 방사능 검사 강화

- 추진 목적: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시민의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내 생산·유통 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추진함.
- 주요 내용: 2016년에 자치구별 어린이집 등의 급식재료와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방사능 오염검사 실시를 계획함.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검사자료를 축적하여 부적합한 농·수산물 등을 압류·폐기함. 방사능 검사 신청제를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방사능 오염을 우려하는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결과를 서울시 홈페이지와 식품안전정보(FSI)에 공개함.

[부록 표 4] 식품 중 방사능 검사 강화 사업내용

구분	내용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 국내 생산 다소비 식품 및 최근 4년간 방사능 검출 품목 및 소비자 우려품목 집중검사 • 학교 및 어린이집 등 영유아 집단급식 식재료 검사
시민 방사능 검사 신청제 실시	• 시민이 일상에서 방사능 오염을 우려하는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신청 • 서울시에서 해당식품 수거 및 결과 통보
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즉시 실시간 공개	• 서울시 홈페이지, FSI에 검사 후 즉시 공개로 시민 궁금증 해소
부적합 농수산물 압류·폐기	• 방사능 부적합 농수산물식품 확인 시 즉시 회수 조치하고 식약청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시민 불안 최소화

출처: 서울시 식품안전과, 2015.12, 2016년 서울시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② 식품안전 프로그램 확산 및 모니터링

- 추진 목적: 사전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정보 수집·분석의 일환으로 식품안전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함.
- 주요 내용: 인터넷, 신문, 방송 매체 등에서의 허위 과대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공개함. 또한 식품의 영양성분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건강식품 선택 방법 및 식품 구매에서 소비까지의 생활실천 권고안을 마련하여 제공함.

③ 서울식품안전뉴스(웹진) 발행 및 시민리포터 운영

- 추진 목적: 시민소통 확대 및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뉴스(웹진)를 발행하고 시민리포터를 운영함.
- 주요 내용: 서울식품안전뉴스(웹진)를 제작해 포털에 게시하고 대학생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시민리포터가 대상별 기획취재 및 서울시 식품안전 활동에 대한 현장 취재를 함. 또한 독자 모니터링 및 편집기획 회의를 통해 10대 식품안전뉴스를 선정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④ 식품안전 전문교육

- 추진 목적: 식품위생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식품사고 위기대처 능력 함양, 식품 관련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능력 증진, 식품사고 예방 및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한 먹거리 안전성 확보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식품위생법, 위생 기준, 이물관리 등 기본적 사항 및 식품(첨가물)공전 및 표시기준 등 실무 적용법에 대한 식품안전 전문교육을 실시함. 시장 상인, 소규모 제조업소, 중소형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업체 특성별 식품안전(위생)과 관련한 찾아가는 1:1 멘토링 교육을 실시함.

⑤ 공공시설 내 탄산음료 판매제한

- 추진 목적: 시민들이 탄산음료 과다섭취 시 발생할 수 있는 치아 부식, 골다공증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서울시(사업소, 출연기관 등)·자치구(구청, 보건소)·지하철 자판기의 탄산음료 접근성을 제한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하철 내 자판기 탄산음료 자진교체를 권고하고 진열비치율 하향조정도 권고함(20%→10%). 또한 탄산음료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등의 활동을 강화하고 공공시설 내 탄산음료 판매제한 관련 시민인식조사를 실시함.

⑥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 추진 목적: 식품접객업소 기존영업자 등에게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식품위생교육기관의 비용부담 경감 및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함.
- 주요 내용: 영업주의 위생교육 참여율 제고와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의 위생교육비를 지원함. 매년 위생교육을 실시하며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수칙, 길거리음식 위생관리수칙,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가이드북을 제작 및 배포함.

⑦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 추진 목적: 음식점 위생 수준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시민 선택권을 보장하고, 업소 간 자율경쟁 유도로서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영업장 및 조리장 등 위생 관련 4개 분야 44개 항목에 대하여 위생등급 평가를 실시함. 위생등급제 운영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계획 수립, 평가, 실시 및 결과 공개를 진행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재평가 업소 현황조사 및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수행기관 공모를 실시함.

⑧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점검

- 추진 목적: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민관합동 지도점검 및 홍보활동을 통해 식품으로 인한 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식중독 등 위해 요인의 사전예방으로 시민건강 보호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자치구 간 교차 지도·점검을 실시함. 검사는 음식점 종사자, 조리 기구, 식재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계절별, 사회적 이슈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획 점검을 실시함.

[부록 표 5]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점검 사업내용

구분	내용
검사 실시	- 음식점 종사자의 손, 조리 기구에 대한 ATP 간이검사 - 식재료 수거검사, 튀김용 식용유 간이 산가측정 병행 실시
기획 점검	계절별, 사회적 이슈사항 등을 감안한 기획 점검으로 시의성을 제고 2월, 9월: 명절 대비 기차역, 터미널 주변 음식점 점검 4월, 9월: 인터넷 자율점검 참여 업소 표본점검 5월, 8월: 횡집(일식집), 냉면·콩국수·팔빙수 등 취급업소를 점검 - 작수월: 야간에 유흥업소 밀집지역 및 주류전문 취급업소를 점검

출처: 서울시 식품안전과, 2015.12, 2016년 서울시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⑨ 식품위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

- 추진 목적: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 자율점검제 운영을 활성화 하여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인터넷을 활용하여 영업주가 스스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민간주도형 점검방식을 통해 출입점검으로 인한 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위생관리를 유도하고 영업주의 위생관리능력을 제고함. 또한 표본감시를 통해 불성실·허위 참여 업소는 행정처분 등을 조치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 내용: 100㎡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 가공업소, 기타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 기타 참여 희망업소 등을 대상으로 신고사항, 위생적 취급기준, 시설기준, 영업자준수사항, 원산지 표시, 개인위생, 주방안전, 원료사용, 공정관리 등의 점검기준에 따라 영업주가 자율점검 후 FSI에 결과를 입력함. 4회 연속 참여한 업소 중 식품위생법 등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성실업소로 지정하여 1년간 출입점검을 면제(외부에서 확인가능하도록 출입점검면제 스티커 부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

⑩ 음식점 원산지표시 홍보 및 교육

- 추진 목적: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이행을 제고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대상별 취지에 맞는 맞춤형 홍보로 지하철 게시판, 전광판, 비교 전시회, 언론보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

[부록 표 6]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16품목)

구분	내용
축산물(5품목)	•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농산물(2품목)	• 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수산물(9품목)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민물장어), 명태(건조물 제외), 고등어, 갈치

출처: 서울시 식품안전과, 2015.12, 2016년 서울시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⑪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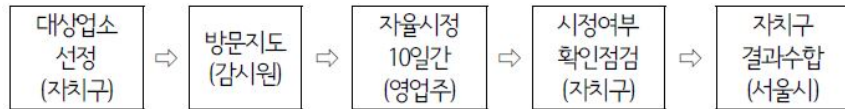
- 추진 목적: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민관이 함께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위생 분야 점검 시 원산지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영업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계절 및 이슈사항을 반영한 기획 점검을 실시함. 명절이 있는 2월과 9월에는 명절을 대비해 역, 터미널 주변 음식점을 점검하고 5월과 8월에는 횡집(일식집), 냉면·콩국수·팔빙수 등의 취급업소를 점검함. 짝수월에는 야간에 유흥업소 밀집지역 및 주류전문 취급업소 점검을, 4월과 10월에는 인터넷 자율점검 참여 업소 표본 점검을 실시함.

⑫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원산지 지도서비스

- 추진 목적: 영업주의 위생관리 인식도 개선 및 자율시정 유도로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이는 적발 위주의 감시가 아닌 민간인이 수행하는 컨설팅 형태의 맞춤형 지도서비스로 영업주의 심리적 부담감 완화 및 점검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일반음식점 중 연면적 50m² 이하의 소규모 식품접객업소를 방문하여 위생·원산지 지도서비스를 실시함.



출처: 서울시 식품안전과, 2015.12, 2016년 서울시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부록 그림 1]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원산지 지도서비스 점검절차

⑬ 길거리 식품 관리

- 추진 목적: 길거리 식품을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위생관리를 실시함.
- 주요 내용: 영업자의 위생의식 고취 및 위생향상 홍보·교육을 위해 위생관리 매뉴얼(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위생관리 표준 운영절차 및 위생수칙을 홍보함. 또한 일일점검표에 의한 자율점검 이행 여부 확인,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위생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하고 조리 및 판매식품에 대해 수거 안전성 검사를 실시함.

⑭ 축산물 밀집지역 집중관리

- 추진 목적: 축산물취급업소 밀집지역의 위생감시를 강화하여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서울시 반입 축산물운반차량에 대한 사도, 영업자, 상인회의 협조체계 강화로 유통과정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지육운반차량의 위생관리, 축산물 수거검사를 주된 내용으로 함.

[부록 표 7] 축산물 밀집지역 집중관리 사업내용

구분	내용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점검	평상시 위생점검(자치구): 1차 점검으로 사전 계도, 교육 강화(업소 자율준수 유도). 2차 점검으로 위반업소 적발 등 강력조치
지육운반차량 위생관리	- 위생점검: 도축검사증명서 휴대 여부, 지육 현수 후 운반 여부, 운반차량 냉장·냉동시설 가동운행 여부, 운반차량 세척소독 등 청결 상태 유지 여부 등 - 위생준수 협조체계 강화: 도축업 소재 시·도와 협조체계 강화(서울시 ⇄ 타 시·도), 지육 현수 위반 차량 지육 반출 도축장 위생준수 협조 요청(도축장),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령준수 협조공문 발송 및 영업주와의 유선면담 추진
축산물 수거검사	평상시 수거검사 및 특별 수거검사 실시

출처: 서울시 식품안전과, 2016년 축산물 밀집지역 안전관리 계획

⑮ 일반지역 축산물취급업소 합동관리

- 추진 목적: 유통 축산물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함.
- 주요 내용: 전통시장, 주택가 등 일반지역의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하여 단계별 점검을 실시함. 1단계는 안내문 등을 활용해 영업주가 자율점검하고, 2단계는 축산물 명예감시원(146명)을 통한 방문조사 및 계도를 실시하고, 3단계는 민관이 합동하여 취약업소를 집중점검함. 전통시장 미포장 닭고기 판매허용에 따른 위생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한우유전자, 미생물오염도 미스 테리쇼핑 검사 후 위반업소는 특별점검을 실시함.

⑯ 축산물 냉장유통체계(Cold Chain System) 관리 강화

- 추진 목적: 축산물에 대한 도축·운반·가공 포장·유통과정의 위생점검을 실시하기 위함.
- 주요 내용: 유통과정에서의 냉장유통체계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과정 단계별로 관리를 강화함. 1단계는 도축장 관리로 전국 시도 도축장 현지에서 지육 현수, 냉장·냉동시설 가동 후 출발하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함(전국 시도와 협조체계 강화). 2단계는 지육 운반차량 관리로 축산물 밀집지역을

불시점검하여 위반업체에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해당 업체 영업주와 직접 대면 또는 유선면담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유도함. 3단계는 포장가공 후 유통과정 관리로 학교급식시설, 식육판매업소 등에 차량의 냉장유지를 식육검수와 병행하도록 교육함.

⑰ 식육판매점 위생관리능력 향상지원

- 추진 목적: 식육판매업소의 위생관리 수준 및 시민 보건 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식품안전과 및 자치구와 협의하여 대상업소를 선정해 식육판매업소의 식육 및 취급 도구(칼, 도마, 장갑 등) 등에 대한 미생물 오염도 검사와 과학적 위해요소 진단으로 유통 식육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진단 컨설팅을 제공함.

⑱ 축산물 내 유해 잔류물질 검사

- 추진 목적: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항생항균제, 농약 및 중금속, 신종 유해물질 등) 검사 강화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유통 축산물(식육, 포장육, 식용란)의 잔류물질 검사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 등 유통 축산물의 비의도적 유해 오염도 조사를 실시함.

⑲ 축산물 성분·규격 및 품질검사

- 추진 목적: 유통 축산물과 소규모 축산물 가공업소의 생산제품에 대한 성분 규격 및 가공기준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의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서울시 및 자치구 의뢰 축산물이나 위탁검사계약을 체결한 축산물가공업소 또는 일반 업소에서 의뢰한 수입 및 국내 생산 유통 축산물의

품목별(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규격기준 및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함.

㉔ 시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축산물 미생물 시험·검사

- 추진 목적: 축산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미생물 시험·검사 실시로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안심 먹거리를 공급하고자 실시함.
- 주요 내용: 식육,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을 대상으로 미생물 시험·검사(유산균 수, 세균 수, 대장균 수, 대장균군 수 및 식중독균 등)를 실시함. 추진절차는 민원, 관원의 시료접수 → 미생물 시험·검사 → 검사결과를 의뢰기관에 알림 → 관할 기관의 행정처분 및 행정조치 순으로 진행됨.

㉕ 대형유통업체 축산코너 목장갑 치우기 프로젝트

- 추진 목적: 대형유통업체와 협력해 축산코너의 목장갑을 라텍스 등 위생장갑으로 개선하는 등 강화된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시민건강의 위해요소를 사전방지하고 선도적인 먹거리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유통업체의 미생물 모니터링 추진결과 설명회 및 간담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미생물 검사 등 과학적인 데이터 구축으로 법령개정 건의를 추진함.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 담당자 긴급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식육판매업소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생관리 아이디어 도출, 문제 해결 협의, 위생관리 방안에 대한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함.

㉖ 축산물 이동판매(직거래) 차량 지도·점검계획

- 추진 목적: 국내산 축산물의 판매촉진과 가격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축산물 이동판매(직거래) 차량'에 대해 위생 및 원산지 점검을 추진함으로써 위생이 취약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겨울철 식중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산지에 식육판매업 영업장을 둔 축산물 이동판매(직거래) 차량을

시민감시원이 참여하여 민·관이 합동으로 지도·점검함. 점검사항은 원산지, 식육의 종류, 유통기한 둔갑판매 및 변조 여부, 냉장·냉동제품의 적정보관·진열·판매 여부, 기타 축산물취급자 개인위생 관리상태 적정 여부 등임.

㉓ 축산물 이력제

- 추진 목적: 축산물 이력제를 통해 소의 사육에서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 안전문제 발생 시 이동 경로를 추적하여 회수폐기 등 신속히 대처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함. 소 사육농가에서 송아지 출생 시 서울축협에서 농장을 방문하여 개체별 귀표를 부착(개체식별번호 부여)하고 부착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㉔ 한우 유전자 판별 및 축산물 이력제 검사

- 추진 목적: 한우고기 취급업소에 대한 한우유전자 판별 검사 및 축산물 이력추적제 검사로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실시함.
- 주요 내용: 한우고기 취급업소에서 판매 중인 한우쇠고기와 음식점, 식육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학교급식소 등의 유통 쇠고기를 대상으로 MS법(Microsatellites, 초위성체마커이용법)을 사용하여 검사함. 검사는 검체 샘플링(시, 자치구) → 검사의뢰(연구원) → 검사결과 의뢰기관에 통보(연구원) → 부적합 업소 과태료 등 행정처분(시, 자치구)의 순서로 진행됨.

㉕ 축산물가공품 사용원료 유전자 판별 검사

- 추진 목적: 축산물가공품의 사용원료에 대한 표시사항과 다른 종의 식육혼입 판별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 불량 축산물 유통근절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분쇄가공육제품, 햄류, 소시지류 등 식육가공품을 대상으로 PCR을 이용한 유전자분석법을 사용하여 소, 돼지, 닭, 오리의 유전자를 검사함.

②⑥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컨설팅 지원사업

- 추진 목적: HACCP 인증을 원하는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하여 컨설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축산물취급업소의 자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 지원으로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식품을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축산물 취급업소의 위생시설 및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축산물 HACCP 제도 도입에 따라 2010년도부터 지원사업이 시행됨. 축산물취급업소(가공·포장·판매업소) 5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HACCP 지정 필수요건인 시설개선, 영업자 및 종업원 위생교육, 훈련, 자체위생관리 기준서 작성, 운영방법 등의 컨설팅을 제공함.

②⑦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안전관리

- 추진 목적: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서울시 도매시장에 반입하는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함.
- 주요 내용: 도매시장의 반입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한 농산물은 회수폐기하고 관련법에 의거하여 출하 제한 조치를 취함.

②⑧ 유통 농수산물 안전관리

- 추진 목적: 유통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함.
- 주요 내용: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과 식약공용한약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함. 계절별로 위해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문제

가 되는 농수산물은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학교급식에 유통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함. 부적합 판명 시 제품을 폐기하고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에 즉시 통보하고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

㉑ 농수산물 원산지 관리계획

- 추진 목적: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식품 수입 확대 및 식품에 대한 시민들의 원산지 표시강화 요구에 맞추어 농식품(농수산물) 등 식재료에 대한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를 실시함.
- 주요 내용: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통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미표시 행위 근절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식재료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재료 원산지 정보를 제공함. 또한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음식점 영업주, 시장 상인 등에게 원산지표시 제도 홍보물 및 교육 책자를 제작·배부함. 뿐만 아니라 생업에 바쁜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상인 및 종사자의 영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원산지표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전통시장 농수산물 판매업소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율 실태조사를 실시함.

㉒ 농산물 중금속 관리 강화

- 추진 목적: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함.
- 주요 내용: 서울지역 유통 농산물의 중금속(납, 카드뮴) 검사, 명절 성수식품·봄나물 및 도시농업 농산물 중금속(납, 카드뮴) 검사, 은행 등 가로수 유실수 열매 중금속(납, 카드뮴) 검사, 식약공용한약재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수은) 검사를 실시함.

㉓ 식품안전 기획·기동감시

- 추진 목적: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 확보로 시민 보건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계절, 명절, 개학, 행락철 등 시기·계기별 식품안전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제조·조리·판매·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일상적 지도·점검을 실시함. 위해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 회수 및 유통차단과 기동감시반 운영(서울시, 자치구별 1개 반), 소비자위생감시원 참여를 주요 내용으로 함.

[부록 표 8] 2016년 식품안전 기획·기동감시 추진일정

구분	내용
홀수달	자치구 직원 교차 단속(계절·테마별 집중점검)
짝수달	민원 사항 및 사회적 이슈식품 기획 점검 • 1, 2월: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 점검 • 3, 4월: 어린이기호식품, 도시락제조업소 점검 • 5, 6월: 행락지 식품판매업소, 즉석섭취식품 점검 • 7, 8월: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판매업소 점검 • 9, 10월: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소, 김장 원재료판매업소 점검 • 11, 12월: 김장철 성수식품, 용기포장지 제조업소

출처: 서울시 식품안전과, 2015.12, 2016년 서울시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㉔ 건강기능식품 관리

- 추진 목적: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등 사후관리 강화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시민 건강 보호를 주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 백수오 제품의 부적정 원료사용으로 인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관리 강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유통 건강기능식품의 수거검사를 확대 실시함. 건강기능식품 관리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업소 위생관리를 위한 지도·점검과 유통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를 실시함.

㉕ 유해물질 위해예방 선행조사

- 추진 목적: 위해식품 사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선행조사를 실시함.

- 주요 내용: 위해 우려 요소, 신종유해물질 등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영양성분 함량 조사 및 정보공개로 시민 공감형 안심 식품정보를 제공함.

㉔ 건강한 시민을 위한 식생활교육 추진

- 추진 목적: 바른 먹거리를 확보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식생활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서울시 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제2기 식생활교육계획(2015~2019)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올바른 식문화 정착으로 시민의 녹색식생활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식품선택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제2차 서울시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추진,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지정사업인 바른 식생활 체험학교 및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시범학교 운영, 서울시 식생활교육 실태조사, 올바른 식생활실천 캠페인, 시민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및 소비자단체와 연계 운영을 통한 농식품 스마트소비 아카데미 운영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함.

㉕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 추진 목적: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관리 지원을 위함.
- 주요 내용: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영업자 자율점검제 실시, 전담 관리원 지정·운영(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불량식품 단속 및 식품안전 지도 계몽, 표지판 관리(오손(汚損), 파손 확인 및 정비) 등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함.

㉖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및 관리

- 추진 목적: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관리 지원을 위함.
- 주요 내용: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

소를 지정관리하는 것으로 우수판매업소에 대해 식품진흥기금 용자(시설개선자금) 알선, 지정업소 홍보 및 표지판 부착 등을 지원함. 또한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금지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함.

㉔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 추진 목적: 서울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식품안전 영양교육을 실시함.
- 주요 내용: 서울시민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후 교육 또는 체험활동 등을 지원함. 이 사업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활용하여 모집하고 선정 및 운영함. 교육 및 활동의 주된 내용은 식품 영양표시 확인 및 식품첨가물 분석실험, 올바른 식품선택방법 등의 교육과 농산물 생산~소비 과정, 농어촌 체험, 바른 식생활 체험학교, 바른 먹거리 조리교실, 저염조리법, 올바른 식생활 실천방안 등임.

㉕ 식중독 신속대응 및 예방 홍보

- 추진 목적: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정확한 보고를 통해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이행하고 선제적인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소규모 급식소 등 식중독 취약시설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함. 구체적으로는 비상연락망 정비, 식중독 보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1830 손 씻기 운동」이나 식중독 예방 시민실천 요령 방송, 지하철 내부 모서리 광고 등의 홍보를 강화하며 집단급식소 조리종사자, 자치구 등에 식중독 지수를 문자로 전송함.

㉖ 식중독 예방 및 원인균 검사

- 추진 목적: 식품안전종합대책(08.7.11)의 일환으로 식중독 발생 원인을 추적할 수 있는 식중독균 추적관리시스템 사업을 추진하여 식중독 발생을 저

감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식중독 발생 우려 식품 식중독균 검사 및 분리·확인시험, 집단식 중독 발생 관련 식중독 원인균 검사, 지하수 및 식품의 노로바이러스 감염 상시 감시체계 확립, 중독균 추적관리에 따른 분리균주 PFGE 검사를 주된 내용으로 함.

④⑩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등 안전관리 강화

- 추진 목적: GMO 식품 표시제도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통해 유전자변형 표시 적정관리를 유도하고 소비자 신뢰 및 알 권리를 증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두부, 콩나물, 떡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GMO 식품 표시대상 및 방법에 대해 지도하고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함. 구체적으로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에 대해 지도·점검하고 유통식품은 정성검사 후 양성에 대해 정량검사를 실시하고,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 완제품과 사용 원료를 동시에 수거검사함.

④⑪ 채식하기 좋은 환경만들기

- 추진 목적: 균형 있는 식단실천을 위해 채식 늘리기 사업으로 급식과 외식에 서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산업체 급식소에서 ‘채식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고 채식 건강식단 책자·배너 등을 제작, 배부함. 또한 ‘채식전문음식점’ 등을 지정·운영하고 채식 메뉴를 표시하도록 유도하며 홍보물, 시티맵, 어플 등을 활용하여 홍보함. 그밖에 ‘채식 식단 활성화’를 위해 건강 관련 캠페인에서 ‘채식 실천 요령’ 배포, 채식 건강식단 “채식, 맛이 보인다!” 책자 배부 등의 홍보활동을 함. 2015년 12월 기준 채식의 날을 운영하는 급식소는 310개, 채식전문 음식점은 25개소, 채식 메뉴가 있는 음식점은 362개소임.

④② 식품제조가공업체 안전관리 강화

- 추진 목적: 제조업체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출입·검사를 차등 관리하여 위생관리 및 제조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자율관리업체, 일반관리업체, 중점 관리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등급을 구분함. 영업개시 1년 이상 경과업체에 대하여 신규평가가 이루어지며, 신규평가 후 2년마다 정기평가하고 사유 발생 시 재평가를 실시함. 자율관리업체는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관리개선 용자 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

④③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위생용품 위해물질 검사 강화

- 추진 목적: 유통 중인 식품용 기구, 용기 포장의 원료 유해성분 검사 및 합성수지제 등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에 따른 안전성 검사로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 내용: 합성수지제, 목재류, 종이제 및 1회용 위생용품, 세척제 등 품질 및 위해물질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항목은 납, 프탈레이트,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황, 메탄올 등임.

④④ 유통식품 안전성 수거검사

- 추진 목적: 시민이 안심하고 가공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관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시민 다소비 식품 및 부적합 이력이 높은 품목을 특별 관리대상 식품으로 지정해 반복 검사를 실시함. 대형마트·백화점 등보다는 취약지역인 도매시장·전통시장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함.

④⑤ 위해식품 회수관리

- 추진 목적: 식품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유

통판매 차단과 영업자의 회수를 통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수거검사 및 단속 결과 부적합식품을 강제회수하고 자가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식품에 대한 영업자 자진회수를 실시함. 회수 영업자에게 당해 식품에 대해 회수를 명하고 공표하며 영업자의 회수 진행사항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함. 회수결과를 검정하고 회수제품을 압류·봉인 및 폐기함. 회수 대상 식품은 식품이 판매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회수 이력 품목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함.

④⑥ 허위·과대광고 식품 단속

- 추진 목적: 유통·소비단계의 안전관리를 위해 허위·과대광고 식품을 단속함.
- 주요 내용: 인터넷, 방송, 신문, 잡지, 인쇄물 등 광고매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모니터링 요원을 지정 운영함. 또한 실버보안관 감시단을 구성하여 ‘뺏다방’ 과대광고 행위의 감시활동을 강화함.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하고 피해예방 및 홍보 교육을 실시함.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을 공개함.

④⑦ 전통시장 식품안전 관리

- 추진 목적: 유통·소비단계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전통시장의 식품안전을 도모함.
- 주요 내용: 상인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식품안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자치구별로 참여 의지가 높은 골목형 모범 전통시장을 선정하여 중점관리함. 또한 자율점검표 및 식품정보표지판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여 영업주의 의식을 개선함. 시장상인회의 추천을 받아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는 위생복 등을 지원함.

④⑧ 건강기능식품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 추진 목적: 유통·소비단계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 등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함.
- 주요 내용: 한글 표시사항 등 식품표시기준 적정 여부, 불법 수입 가공식품 유통판매 여부 등 수입식품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함. 민·관 합동으로 인터넷 등 안전 사각지대의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한 수입식품은 위해식품회수지침에 따라 회수, 압류·폐기 조치함.

④⑨ 나트륨 저감화 실천 및 환경조성

- 추진 목적: 서울시민의 영양 불균형 등 영양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영양관리와 식생활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건강 수준 및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어린이를 대상으로 미각에 대한 이론 및 체험교육을 하는 ‘어린이 미각교육 프로그램’, 나트륨 관련 지식과 저감화를 위한 실천방법 등을 배우는 ‘싱겁게 먹는 식생활 배움터’, 저염실천 음식점 지정 및 지원, 영양친화기업 인증, 나트륨 줄이기 실천 캠페인으로 싱겁게 먹기 공개강좌·저염식단 전시·‘짬순이, 짬돌이’ 페이스북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함.

[부록 표 9] 나트륨 저감화 실천 및 환경조성 사업내용

사업명	내용
어린이 미각교육 프로그램	• 미각에 대한 이론 및 체험교육 실시: 단비영양사가 방문교육 • 급식 염도 측정: 프로그램 참여 전·후 급식의 국/찌개/김치 염도 측정
싱겁게 먹는 식생활 배움터	• 식생활 배움터, 밥상클리닉, 염도 측정 코너, 쿠킹클래스 등 • 나트륨관련 지식과 저감화 노력 경험 등 시민의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저염참여 음식점 지원	• 웹프로그램 등록 관리(http://www.seoulna2.kr/main.aspx) • 모니터링 실시: 구별 전담감시원 2명 위촉, 월 1회 업소 방문 • 염도계 지원, 홍보물 배부(포스터 등)
저염실천 음식점 지정	• 대상업소 선정 후 평가(감시원 활용해 염도 측정) • 위생등급 평가 A 이상: 서울시 지정 및 2015년 신규 평가 유도 • 저염메뉴의 염도관리 대상 업소 선정: 웹관리시스템 활용 • 표지판 배부, 커뮤니티 맵핑(지도검색서비스) 및 리플릿 홍보 지원
영양친화기업 인증	• 건강친화기업 지정기관 모니터링 및 사례별(대상) 운영 매뉴얼 제작 배부 • 홍보: 서울시 사례 언론 보도, 우수모델 홍보, 인증현판 제공, 이미지 광고 등
나트륨 줄이기 실천 캠페인	• 서울시 손가락 젓가락 데이 캠페인: 싱겁게 먹기 공개강좌, 저염식단 전시 등 • '짬순이 짬돌이' 페이스북 운영(www.facebook.com/lownsatrium) • 식생활사람도서관 '음식남녀'를 통한 저염식 실천 정보 공유(위탁운영) • 시민참여 이벤트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라' 추진: 저염메뉴 할인쿠폰

출처: 서울시 건강증진과, 2016, 2016년 서울시 영양사업 추진계획

⑤① 식생활교육 현장체험교실 운영

- 추진 목적: 지역·현장 중심의 합리적 소비, 바른 식생활 실천 및 농업·농촌 가치 확산을 위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고자 함. 또한 농가체험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하여 농식품 생산현장 참여 및 제조과정 체험을 통해 전통음식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하고 서울시-진안군, 서울시-거창군 우호 교류협력 활성화로 도농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2016년 식생활 교육 현장체험교실은 전북 진안군, 경남 거창군에 지역별 80명씩 각 1회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만들기 및 생활용품 만들기 체험, 지역 명소 탐방 체험을 계획함.

⑤① 식품안전정보(FSI)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 추진 목적: FSI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기능개선을 통해 고품질의 대시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급변하는 IT 환경과 업무변화에 대응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의 신속한 반영을 통해 만족도 및 공감도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식품안전관련 시설물 등에 대한 커뮤니티 맵핑 관리를 실시하고 식품안전관련 행정정보시스템의 현황화, 기능개선 및 운영 지원 그리고 홈페이지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모니터링 및 콘텐츠 관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함.

⑤②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확대 보급

- 추진 목적: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식품안전에 취약한 중소 식품 유통업체 및 식품마트의 위해식품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적합 식품정보를 실시간 수신하여 매장 계산대에서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 도입으로 위해 식품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 대상업소를 자치구별로 선정, 설치하고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위해식품 판매차단 처리절차는 ① 위해식품정보 ⇒ 중소마트에 제공, ② 마트 POS에서 위해식품 스캔 시 경고 표출, ③ 판매차단(계산대에서 계산 중지) 순으로 진행됨.

⑤③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운영

- 추진 목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식품안전(위생) 지도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통해 위생감시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고 결과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격려 및 새로운 지식의 습득 및 정보 교환의 기회를 마련함.
- 주요 내용: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은 식품위해요소 사전예방 및 지도·점검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식품안전(위생)을 감시하는 역할임(음식

점 등 민·관 합동점검, 식품안전 모니터링, 수거·검사 지원 등). 이들을 위한 교육으로 연간 신규교육 1회 및 실무교육 4회를 실시하고 식품안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협의회」를 개최함(연 4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직무교육, 동영상 관람, 지식습득 및 정보 교환 등을 위한 실무연구회를 개최함.

⑤4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 추진 목적: 자치구의 식품안전, 식생활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제고로 대 시민서비스 개선 및 자치구별 특수사업 및 우수사례 발굴, 전파를 통해 행정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 내용: 25개 자치구 위생분야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식품안전 인프라 등 10개 분야 35개 지표를 통해 종합평가를 실시함. 자치구 평가를 통해 우수 구에는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급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함.

⑤5 영양 식생활 실천 캠페인

- 추진 목적: 서울시민의 적절한 영양관리와 식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영양사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함.
- 주요 내용: ‘어린이 식생활안전주간’에서는 과일공모전 수상작품을 전시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며 식생활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식품모형 전시, 음식철학에 대한 강의 등을 하는 ‘음식관련 사람책과의 만남’, 소풍도시락 만들기 체험으로 ‘달려라 쿠킹버스’, 먹거리 체험부엌 등을 운영함.

⑤6 건강체중 333 프로젝트

- 추진 목적: 서울시민의 적절한 영양관리와 식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영양사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캠페인을 실시함.

- 주요 내용: 건강체중 3(개월 동안) · 3(kg 감량) · 3(개월 유지) 프로젝트란, 시민이 자신의 건강체중을 알고 이에 도전하기 위해 체중감량, 유지전략을 스스로 세우고 지켜 3개월 동안 참여자들과 함께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체중감량분에 대해 기부활동도 함께 하는 프로젝트임.

[부록 표 10] 2016년 건강체중 333 프로젝트 추진계획

사업명	내용
건강체중 인식을 향상 건강체중 333 캠페인, 건강체중 동아리 활성화	• 비만도 측정 및 상담: 25개 보건소, 체력 100센터 활용 등 • 편의점, 동주민센터, 도서관 등에 비만도 측정기 배치 • 캠페인: 스크린 타임 2시간 이하, 나만의 건강체중 방법 공유 등 • 걷기동아리 가입 정보 제공, 매월 11일 워킹데이 등 • 건강데이트: 둘레길 걷기, 건강도시락 먹기, 운동화 신고 출근하기 등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정보공유 플랫폼 운영	사람도서관(음식남네) • 식생활관련 사람책 만남: 음식중독, 음식명상, 식욕버리기 등 • 건강해지기 위한 요리교실: 가볍게 즐기는 식사와 간식 등 • 서울시 및 유관기관의 홈페이지 및 SNS에 식생활 정보 게재 • 개인 식생활 평가 관리 프로그램(D-HRA) 연계 등

출처: 서울시 건강증진과, 2016, 2016년 서울시 영양사업 추진계획

⑤7 아동 및 청소년 식생활 교육사업

- 추진 목적: 서울시민의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의 일환으로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식생활 교육을 실시함.
- 주요 내용: 교사 및 영양(교)사 대상 식생활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을 추진함. 또한 식생활교육기관 및 체험관 지원, 농식품 스마트 소비 아카데미와 식생활 시민 프로그램, 식생활 사람도서관 등을 운영하고 식생활교육 실태조사 및 캠페인을 진행함.

[부록 표 11] 2016년 아동 및 청소년 식생활교육사업 추진계획

사업명	내용
식생활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및 활성화	• 식생활교육 관련기관 네트워크 형성 및 DB 구축 • 식생활교육기관(체험관), 사람도서관, 강사, 시민행사 등
서울시 농수산물식품공사 연계사업 공동운영	• 음식관련 사람책과의 만남을 식문화 전문도서관과 연계추진 • 취약계층 쿠킹클래스 운영, 주제별 공동캠페인 기획 및 운영 등
시민 체험형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 식생활 개선 홍보캠페인 및 홍보물 상설전시·체험관 운영

출처: 서울시 건강증진과, 2016, 2016년 서울시 영양사업 추진계획

㉞ 성인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 추진 목적: 25개 자치구의 대사증후군전문관리센터 운영(검진 및 등록관리) 지원과 대사증후군관리 사업지원단 및 통합 DB시스템 운영, 모바일 서비스 용 웹(앱) 개발, 인지도 및 참여율 제고를 위한 대시민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자 함.
- 주요 내용: 2016년 추진계획에 따르면, 서비스 확대를 위해 국가건강검진과 연계하여 사후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 프로세스 및 DB 시스템 운영 기능을 개선함. 또한 대시민 홍보를 활성화하고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7 과정 이상 실시하도록 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 활성화를 위해 개인 식생활 평가 관리 프로그램, 영양친화기업 사업 등과 연계하도록 함.

㉞ 다문화 가정 영양 및 식생활 관리사업 체계화

- 추진 목적: 서울시민의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의 일환으로 다문화 가정 대상의 식생활 관리사업을 체계화하고자 함.
- 주요 내용: 다문화 가정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을 권역별로 실시하여 4개 권역의 통역을 지원하고 다문화 식생활 이해 교육과정을 필수 교육으로 지정함. 다양한 언어로 교육자료를 번역하여 배포하고 다문화 관

련 비영리단체, 기관, 대사관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식생활 프로그램을 체계화함.

⑥⑩ 영양 및 식생활 통계 구축사업

- 추진 목적: 서울시민의 적절한 영양관리와 식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자료의 전산을 통계화하고자 추진함.
- 주요 내용: 지역사회건강조사 및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수행지원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의 열린데이터 광장에 영양관련 DB를 보급하도록 함. 또한 통계자료 및 자치구 사업추진실적 자료 등을 포함하여 영양정책 성과평가에 활용하도록 간단한 보고서로 작성하여 배포하도록 함.

[부록 표 12] 2016년 영양 및 식생활 통계 구축사업 추진계획

사업명	내용
지역사회건강조사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수행지원	• 지역사회건강조사: 만 19세 이상 성인 총 23,000명(1개구당 950여 명) - 건강행태(흡연, 음주, 운동, 신체활동 등), 이환, 의료이용, 삶의 질 등 - 조사원이 노트북에 전자조사표 탑재하고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조사대상자에게 1:1 면접조사 실시(조사요원 1개구당 4~6명) • 국민건강영양조사: 760가구 - 검진조사(소변, 혈액, 신체계측), 건강설문조사, 영양조사 등 - 조사원과 조사차량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검진실시
서울시 홈페이지의 열린데이터 광장에 게시하여 영양DB 보급	•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각 부서에서 실시한 영양관련 실태조사 DB 수집 • 시민이 영양DB를 활용한 사례 공유 마당 운영(논문, 보고서 등)
영양정책 성과평가에 활용	• 통계자료 및 자치구 사업추진실적 자료 등도 포함하여 분석 작성

출처: 서울시 건강증진과, 2016, 2016년 서울시 영양사업 추진계획

⑥1 영양 및 식생활 자료실 운영

- 추진 목적: 서울시민의 적절한 영양관리와 식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국내외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자료를 대여·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내용: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및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도서관과 연계하여 서울시 등이 개발·보급하는 영양교육자료 공유를 위한 자료실을 운영하고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보건소, 복지관 등에 영양교구 대여서비스, 영양사업 지침, 영양정책 보고서, 영양관련 홍보책자 등의 열람실을 운영함.

⑥2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추진 목적: 서울시민의 적절한 영양관리와 식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위생 강화, 실무자 교육 등을 실시함.
- 주요 내용: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의 영양 및 위생관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실시함. 이를 위해 소규모 어린이급식소 위생 수준에 따른 등급제를 도입하여 집중관리 어린이 급식시설을 순회방문해 지도하고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보급 및 표준 레시피 제공, 위생안전·위생관리 지도 및 시설 방문을 통한 컨설팅, 위생안전관리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함.

3) 사회경제적 형평성 영역의 서울시 먹거리정책

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 추진 목적: 경제적·지리적 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 농업인에게 고교생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함.
- 주요 내용: 농지소유면적 합계가 50,000㎡ 미만 및 농어업 외 소득이 4,000

만 원 미만인 농업인 중 교육부장관이나 시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대상으로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단, 수업료의 경우 분기당 50만 원 한도)을 지원함.

② 서울역 실내급식장 운영

- 추진 목적: 거리노숙인 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역 실내급식장 ‘따스한 채움터’를 운영함.
- 주요 내용: 거리노숙인 보호사업이란 상담원들이 거리노숙인 밀집/취약지역을 순찰·상담하여 위기노숙인을 조기 발견해 치료와 시설입소를 추진하고,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 운영을 통해 거리노숙인에 대한 의식주 지원, 노숙인 복지시설입소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것임. 이 사업의 일환으로 노숙인을 위한 실내급식장 ‘따스한 채움터’를 2010년 5월 4일 개소함.

③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

- 추진 목적: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여 결식방지로 어르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특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이를 통해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부록 표 13] 2016년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

구분	내용
사업내용	• 경로식당 무료급식: 주 6회 2,800원, 11,514명 지원 • 식사배달 지원: 365일 2,800원, 4,556명 지원 • 밀반찬배달 지원: 주 2회 3,500원, 6,389명 • 특식지원: 설, 추석,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복날, 노인의 날, 성탄절
추진계획	• 찾아가는 동복지서비스로 무료급식인원 수혜자 증원 • 서울시 퇴직자를 이용한 모니터링 실시 • 무료급식 단가 인상으로 급식 질 제고

출처: 서울시 건강증진과, 2016, 2016년 서울시 영양사업 추진계획

④ 푸드뱅크·마켓 운영(One-Stop 먹거리 긴급지원 시스템 구축)

- 추진 목적: 기부물품의 효율적 관리와 균형 배분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함.
- 주요 내용: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기부식품 지원시설인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푸드나눔카페는 기업이나 개인 등 기부자로부터 식품을 비롯한 물품을 기부받아 어려운 복지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대상, 차상위계층 등)에 전달함.

⑤ 학교 우유급식 지원

- 추진 목적: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학교우유 급식비 지원을 통해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낙농산업의 발전을 위해 학교 우유급식비를 국·시비로 지원하게 됨.
- 주요 내용: 저소득층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학교 우유급식을 지원함.

⑥ 학교급식 축산물 특별관리

- 추진 목적: 학교급식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급식소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업체 100여 곳에 대해 집중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함.

- 주요 내용: 축산물 공급업체와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서울시 관내 업체를 방문하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식육·포장육 수거검사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배송차량의 학교 도착지에서 불시에 위생점검 및 수거를 실시함. 검사항목은 한우유전자, DNA 동일성 검사, 잔류항생물질 등임.

⑦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

- 추진 목적: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구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2016년에 공립초등학교, 국공·사립중학교, 초등과정 인가 대안학교(941개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함. 친환경 학교급식의 체계적인 지원, 식재료 안전성 관리 및 공급체계 구축, 시민인식 제고를 위한 친환경급식 교육·홍보 강화의 큰 축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함.

[부록 표 14] 2016년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내용

전략과제	세부 추진과제	내용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민·관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 거버넌스 - 친환경급식 주요 분야별 TF(정책, 사업제안) - 친환경 유관기관 실무협의회(사업실행 검토) - 서울시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심의·자문) - 안심식재료 지킴이단(식재료 안전관리 모니터링) - 학부모 참소리단(교육지원사업 학교현장의 목소리) ※ 시민·전문가 토론 및 의견 수렴(예, 친환경급식 포럼 등) ※ 학교급식 소위원회(학교 급식사업 활성화 추진 - 교육청 협력)
	친환경 학교급식의 안정적·체계적 지원	• 친환경 학교급식의 안정적 지원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 연차적 확대 지원 •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확대 등 안전성이 강화된 식재료 공급 • 친환경 학교급식 정책 효과성 측정을 위한 만족도 조사 실시
	저소득층 고등학생 자녀 학교급식 지원 확대	• 친환경 학교급식 비대상 학생(고등학교) 중 저소득층 자녀 대상으로 학교급식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집행 및 회계점검	• 학교급식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대시민 신뢰도 제고 및 급식비리 근절 초석 마련 • 학교급식 합동점검 정례화 및 대상학교 연차적 확대를 통한 투명성 제고 • 예산집행 점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점검항목 수 확대 및 점검내용 다각화

[부록 표 14 계속] 2016년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내용

전략과제	세부 추진과제	내용
식재료 안전성 관리 및 공급체계 구축	생산에서 소비까지 친환경급식 각 단계별 안전성 강화	• 협업에 의한 학교급식 단계별 안전성 강화 • 학부모 참여를 통한 안전성 관리 강화
	우수 식재료사용 지원사업	• 직영급식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중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우수 식재료 구매에 따른 일반 식재료의 차액보조
	자치구 학교급식지원사업 활성화 지원	• 공동구매 교육체험 홍보 등 우수 친환경급식 지원사업 확산전파 • 식생활교육 강사 인력풀 제공 및 급식관계자 교육을 자치구까지 확대 • 학교급식지원사업 활성화(제도 및 조직 개선 권고 등) 추진 • (가칭)서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협의회 구성 준비
시민인식 제고를 위한 친환경급식 교육·홍보 ·소통 강화	친환경급식 대시민 홍보·소통 강화	• 친환경급식 정책적 가치 대시민 홍보·소통 추진 • 『행복한 급식 이야기』 모바일 뉴스 발행 • 친환경급식 한마당 행사를 통한 대시민 홍보·소통 활성화 • 친환경학교급식 레시피 공모전 개최 • 학부모 대상 친환경학교급식 학교현장 순회 청책토론회 개최
	급식먹거리정책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로 '오피니언 리더'층 형성	• 식생활교육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리더 형성 위해 관련기관 대표자들과 정례모임
	친환경급식 확대발전을 위한 교육사업 활성화	• 친환경 식생활교육 학교지원사업 • 친환경 식생활교육 학부모 강사양성 확대 추진 • 영양(교)사, 조리사, 행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급식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지원 추진 • 친환경급식 홍보를 위한 친환경산지 체험교육 추진

출처: 서울시 친환경급식담당관, 2016.2, 2016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

⑧ 영유아 및 임산부 영양플러스사업

- 추진 목적: 서울시민의 적절한 영양관리와 식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생애주기 영양관리의 일환으로 영유아 및 임산부를 위한 건강관리를 지원함.
- 주요 내용: 중위소득 80% 미만의 임산부 및 5세 이하 영유아 중 영양 위험군(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영양 위험 요인 한 가지 이상 보유한 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영양평가, 개인 영양 상담, 대상별 영양교육 등 영양관리를 실시함. 대상자별 6종 식품패키지(쌀, 감자,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채소류 및 과일류, 조제분유 등 원물(66,800원 내외))

를 공급하며 가정방문을 통해 식품보관 상태 확인, 조리지도 등 식생활관리를 실시함.

[부록 표 15] 2016년 영유아 및 임신부 영양플러스사업 추진계획

구분	내용
국비·시비 보조형 사업 지속추진	- 국비 보조형: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영양사업 중 영양플러스사업 - 시비 보조형: 만성대기자 해소 및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원
식품패키지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운영체계 강화	- 서울시농수산물공사와 식품공급 구축체계(수·발주~정산처리) 유지 - 식품업체: 입찰계약에 관한 법규 및 예규에 의거하여 공개경쟁입찰 - 민원발생 현황, 처리결과 등 자치구-공급업체 간 전산시스템 정보공유 - 식품 수·발주 전산시스템 사용방법 및 검수 매뉴얼 개발 - 식품검수 효율성 증대 및 교차점검을 위하여 자치구 순번제로 배정하여 검수 - 영양플러스사업 협의체 운영: 식품분과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 운영 - 농산물 작황상황을 고려하여 매월 발주 품목 자치구와 협의 조정 -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보관법, 조리방법 등 안내문을 대상자에게 발송 - 지침에 의거 식품 추가 계약: 보리쌀, 멸치, 두부, 닭가슴살 진공팩 등
최신 영양이슈에 따른 영양 및 식생활교육 자료개발	- 보충식품에 대한 정보(요리방법 카드 등) 제공 및 요리교실 개설 등 공유 - 영양교육 자료개발 지원: 맛과학, 음식윤리, 영유아 식행동, 식품알레르기, 소아변비, 저체중아동, 산모의 식생활, 산후 체중관리 등 - 유관기관별 개발된 영양교육자료 공유: 식생활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대상자별(영아, 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모유수유부) 교육자료 보완
다문화 가정의 식문화 특성을 고려한 영양·식생활교육 권역별 개설 지원	- 배우자(보호자) 대상 다문화 식생활 이해 교육과정 개발 및 필수교육 지정 - 한국말이 능통하고 요리교육 등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발하여 강사로 활용 - 다양한 언어로 영양교육자료를 번역하여 배포, 기존자료 발굴 연계 등 - 통역 또는 국적별 한국어 능통 시민과 함께 4개 권역별 모임 교육 실시
사업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체험형 및 실습형 교육 실시	- 매월 새로운 이슈별 역량 강화 교육 실시(2회로 분할 운영) - 농부와의 만남, 산지 현장교육 등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최신 영양정보에 대한 단체·소그룹 형태의 역량 강화 교육 연계(유·무료) - 식품패키지 보관 및 섭취 등 식품안전에 관한 교육 실시 - 새롭게 발생하는 영양의학적 문제 자료 수집 및 해결방안 제안 - 매월 자치구별 최신 영양관련 이슈 및 영양교육자료 및 상담사례 공유
실적보고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사업과정 모니터링 체계 강화	- 월별 사업 실적보고 방법 역설작성 → 전산시스템 구축하여 입력 통계산출 - 자치구 방문 현장 모니터링 실시: 영양교육, 대상자 선정, 가정방문 등 - 자치구 문제점 분석 및 보완 피드백 등 심층 기술지원(협력기관과 연동)

출처: 서울시 건강증진과, 2016, 2016년 서울시 영양사업 추진계획

⑨ 아동급식 지원사업

- 추진 목적: 서울시민의 적절한 영양관리와 식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생애주기 영양관리의 일환으로 중위소득 52% 이하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식비를 지원함.
-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중 조식식과 방학 중 중식을 지원하고 교육청은 학기 중 중식 지원(급식), 지역별·아동별 여건 및 본인 희망에 따라 급식형태를 선택 지원함. 식비는 끼니당 4,000~5,000원을 지원함. 식비지원 뿐만 아니라 아동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아동센터 급식 위생관리 등을 지원함.

[부록 표 16] 2016년 아동급식 지원사업 추진계획

구분	내용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소 집행기준 신설	• 1개월간 소요된 급식비용 집행기준 - 실제 단체급식소를 이용한 아동의 급식 수만큼 지급 - 단체급식소 이용 아동의 급식 수가 전월 1개월간 이용 아동급식 수의 90% 이상일 경우 정상 지급 • 급식조리·사전준비 비용 및 편의점 내 아동급식 제한품목 선정
편의점 내 아동급식 품목제한 규정	• (가능 품목)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즉석밥, 세트메뉴 등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식사 종류(다만, 식사 시 섭취할 목적으로 우유·음료·과일·어묵·컵라면 등을 도시락 등 식사종류와 함께 구매할 경우 가능) • (제한 품목) 커피·과자·사탕·주류 등 기호식품, 생활용품

출처: 서울시 건강증진과, 2016, 2016년 서울시 영양사업 추진계획

⑩ 어르신 방문건강 관리사업: 허약노인 영양관리서비스

- 추진 목적: 서울시민의 적절한 영양관리와 식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생애주기 영양관리의 일환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위험 허약노인에 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주요 내용: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에 대해 허약노인 판정평가(4~12점 해당자), 허약노인 중재프로그램, 구강기능 향상 프로그램(입체조: 저작, 연하, 발음, 타액분비 등), 보건소 치매검진의 치매측정도구 연계를 통한 치매조기 선별검사, 폭염·혹한 등 계절별 건강관리교육, 취미·종교 활동 등 사회적

참여 지지 및 독려, 가정 내·외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등의 생활 교육 실시,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 지지 등을 제공함.

[부록 표 17] 2016년 하약노인 영양관리서비스 추진계획

구분	내용
하약노인 영양서비스 실태조사 및 프로그램 체계화	25개 자치구 실태조사: 지원식품(영양제 포함), 영양교육 및 상담내용 등 - 방문영양사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노인 영양관리 프로그램 구축 및 확산
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 강사 연계 및 노인기 영양관리 자료 공유 등	- 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에 노인영양분야 강사 연계 및 교육지원 등 - 국내외 최신 노인 영양 및 식생활 관리 자료 공유

출처: 서울시 건강증진과, 2016, 2016년 서울시 영양사업 추진계획

⑪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 추진 목적: 서울시민의 적절한 영양관리와 식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생애주기 영양관리의 일환으로 임신부 및 만 2세까지의 영유아 대상의 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주요 내용: 건강관리(혈액검사, 초음파 등 산전검사 지원), 영양제 지원(엽산 제, 철분제), 영양·운동·태교·부모교육 등 임신부 교실, 전문간호사의 가정 방문 건강관리,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지원단, 전문인력 기본 및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함.

[부록 표 18] 2016년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추진계획

구분	내용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확대	12개 구 → 19개 구 - 찾동사업 우리아이 복지플래너와 상호 연계협력 추진
임산부 식사관리 온라인 서비스 연계	- 서비스 콘텐츠 확대: 고위험군 임신부 → 일반 임신부 - 고위험군 임신성 당뇨 산모의 체중증가에 따른 식사처방 연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자료 공유, 전문인력 교육과정 강사 연계 등	- 영양플러스사업 연계, 최신 임신부 및 영유아 영양이슈 자료 공유 - 전문인력 교육과정의 영양분야 강사 연결 및 최신정보 추가교육 지원 등

출처: 서울시 건강증진과, 2016, 2016년 서울시 영양사업 추진계획

⑫ 아동청소년 애들아 과일먹자 사업

- 추진 목적: 서울시민의 적절한 영양관리와 식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생애주기 영양관리의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센터 포함) 아동 대상으로 영양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주요 내용: 주 2회 아동 1인당 200g의 제철과일 제공, 월 1~2회(총 10회)의 영양교육, 영양평가(사업 전·후 영양지식, 식행동, 식품섭취 등 변화 조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함.

[부록 표 19] 2016년 아동청소년 애들아 과일먹자 사업 추진계획

구분	내용
영양교육에 개발한 맛과학 프로그램 보급	• '15년 3회 → '16년 9회 • 월 1회 이상 보건소에서 전문 영양교육 강사를 파견하여 실시 • 필수교육 9개(반드시 시행), 선택교육(자율적 시행)
과일공급 (제철과채류 주 2회)	• 자치구가 매월 발주, 과일공급업체가 아동보호기관에 배송 • 과일공급은 원형 통과일로 제공 → 기관이 1회 분량으로 소분하여 배식 • 과일 품목 선정 기준: 원산지 표시가 되는 농산물 • 과일 입고 시 기관 담당자가 검수, 보건소 담당자 모니터링 실시
사업효과 평가항목 보완 및 사업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대상: 아동, 종사자, 아동 보호자, 자치구 담당자, 영양교육 강사 등 • 사전 평가는 과일공급 시작 전, 사후 평가는 영양교육 완료 후 실시 •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실시

출처: 서울시 건강증진과, 2016, 2016년 서울시 영양사업 추진계획

⑬ 음식으로 소통하기

- 추진 목적: 음식으로 이웃과 소통하고 사랑을 나누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음식 관련 기관과 함께 따뜻한 먹거리를 나누고 푸드컴나무 양성 등 다양한 음식 나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요리전문기관, 학교, 양로원이 협약하여 양로원 어르신에게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고 공연봉사를 실시함. 또한 요리전문기관과 학교 학생이 연계하여 먹거리 관련 직업 정보 제공, 멘토 근무지 견학, SNS 상담 등의 1:1 멘토링을 실시함. 2015년에는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사랑의 푸드워크 행사를 실시하여 음식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수익금은 양로원에 기부함.

[부록 표 20] 음식으로 소통하기 사업내용

구분	내용
음식나눔 및 공연봉사	• 2015년 4월 요리전문기관 4곳과 신정여자상업고등학교, 시립양로원 2개소와 협약 체결 • 2015년 4월~12월 총 12회 음식 나눔(1,200명의 어르신에게 식사와 간식 제공) 및 공연봉사(댄스, 노래, 편지읽기, 스트레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1:1 자원봉사 멘토링	• 요리 전문기관(대학 조리학과 교수, 호텔셰프, 음식연구원, 제과·조리기능장 등)이 신정여자상업고등학교 조리학과 학생 39명을 대상으로 먹거리 관련 직업 정보 제공, 이론 및 현장체험 기회 제공. 각종 요리경연대회 참석 안내·지도, 멘토 근무지 견학, 각종 요리교실과 SNS를 통한 수시 진학·진로·고민 상담 등 실시
사랑의 푸드윅	• 2015년 9월 5일~6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사랑의 푸드윅 행사 실시: 시민 대상으로 음식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한식의 우수성을 알림. 음식 천 원의 나눔기부 코너에서 쿠키, 양갱, 빵, 식혜 등의 판매 수익금 1,686천 원을 시립양로원에 기부함. • 2016년 8월 20일~21일 제2회 사랑의 푸드윅 행사 실시

출처: 서울시 식품안전과 2015.11.30(월) 보도자료

4) 먹거리 생산 영역의 서울시 먹거리정책

① 서울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

- 5대 분야 51개 사업, 4년간 총 50,917백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 진행
 - 서울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2015~2018년)은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농업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도시농업의 대표적인 유형은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주거생활권 주변 도시텃밭임. 도시농업은 공동체문화 활성화와 힐링, 수익창출을 함께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민관커뮤니티와 사용자 맵핑 방식으로 텃밭을 조성하고자 함.

[부록 표 21] 2015년~2016년 서울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 주요 사업

5대 사업	사업명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보	도심 “자투리(틈새)텃밭” 조성
	사회복지시설 “싱싱텃밭” 조성: 공약사항
	생태 학습의 장 “학교농장” 조성: 공약사항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 옥상텃밭 조성
	이야기가 있는 상자(주머니)텃밭 보급
	도시공원 속 텃밭 조성
	텃밭조성 기능부지 실태조사 및 커뮤니티맵핑
미래 도시농업과 일자리 창출	주말농장 및 체험학습장 운영
	은평서울혁신파크도시농업 ZONE 조성
	고부가가치 옥상농원 시범단지 조성
	민간단체 공모사업
	주민참여 예산사업
	민간 중간지원기구 설립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
도시재생과 자원순환	도시양봉산업 지원
	도시농업전문가 활용 및 일자리 창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빗물자원화 사업
사회·문화적 역할증대	자원순환형 도시텃밭 모델 조성
	서울 도시농업박람회 업그레이드
	농사절기 “도시농업 축제한마당” 운영지원
	도시농업 워크숍 개최
	텃밭농산물 법상나눔 프로그램 운영
	도시농업 교육 활성화
	도시농업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농부의 시장 확대 및 운영 내실화
	도농상생 농촌체험 및 일손돕기
	도시텃밭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시민소통 확대	도시농업 온라인 플랫폼 구축
	대시민 캠페인 전개
	도시농업 우수 사례 포상 및 투어코스 개발

서울시, 2015.4, 서울아~농사짓자! 서울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

가.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보사업

[부록 표 22] 2016년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보사업 내용

세부사업	내용
도심 “자투리(틈새)텃밭” 조성	• 도심 속 틈새(자투리)텃밭 조성으로 주거지에서 텃밭까지의 거리를 줄이고 도시환경 개선 • 단체 중심의 텃밭분양으로 공동체문화 기반 마련 • 미활용 공공부지, 폐부지(환경개선 대상지) 등을 대상으로 연간 125개소 자투리(틈새)텃밭 조성
사회복지시설 “싱싱텃밭” 조성	• 싱싱텃밭 조성 후 원예치료사 및 도시농업전문가를 활용한 치유프로그램 운영으로 복지정책 지원 • 자투리땅, 옥상공간을 이용하여 “싱싱텃밭” 조성
생태 학습의장 “학교농장” 조성	• 농업활동을 통한 정서함양, 올바른 식생활, 생태교육, 교유관계 향상 등 추구 • 서울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텃밭학습장 조성 및 텃밭 관련 농자재(퇴비·비료·모종 등) 일체 지원, 닭, 토끼 등 가축사육장 설치를 병행토록 검토 후 추진 • 교육프로그램: 학교별로 학부모단체, 도시농업시민단체, 도시농업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배움텃밭 프로그램 운영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 옥상텃밭 조성	•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옥상텃밭 조성 • 수직·취미·치유형 등 다양한 유형의 옥상텃밭 조성으로 도시농업 홍보 강화 • 도시농업 문화공동체의 활동거점지로 활용하며, 수확행사, 텃밭음식 나눔행사, 텃밭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도시농업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 강구
이야기가 있는 상자(주머니) 텃밭 보급	• 주택가 골목을 활용한 “상자텃밭 길” 조성으로 지역주민 간 화합의 장소 마련 • 상자텃밭 보급으로 생활(주거)공간에서 누구나 실천 가능한 도시농업 기반 마련
도시공원 속 텃밭 조성	• 근린공원을 활용한 공원텃밭 조성으로 근거리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보 • 단체 중심의 텃밭분양으로 공동체문화 기반 마련
텃밭조성 가능부지 실태조사 및 커뮤니티맵핑	• 도심 유휴지(시유지 등) 및 폐부지 실태조사 후 텃밭 조성 가능지를 민간단체와 연결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농업 실천의 지속적 확보 도모 • 도심텃밭 조성 가능지 실태조사: 서울시 도시텃밭 현황 및 조성 가능지 조사, 자치구별 텃밭 운영이 가능한 도시농업단체 조사
주말농장 및 체험학습장 운영	• 도시농업 실천을 위한 “희망서울 친환경농장” 운영 • 다양한 유형의 “테마가 있는 농장” 운영 • 민영 주말농장 지원사업 • 도시농업 체험학습장 운영

나. 미래 도시농업과 일자리 창출 사업

[부록 표 23] 2016년 미래 도시농업과 일자리 창출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용
은평서울혁신파크 도시농업 ZONE 조성	- 서울혁신파크 부지 내 다양한 농업체험과 미래 도시농업 견학이 가능한 도시농업의 상징적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이 즐겨찾는 도시농업 명소로 육성 - 수직농장 조성 - 도시농업체험장(힐링팜, 에듀팜, 공동체텃밭, 토종종자 시범재배) 조성 - 옥상농원 조성
고부가가치 옥상농원 시범단지 조성	- 고부가가치 작물을 식재한 수익형 옥상농원 시범단지 조성으로 도시농업 산업 모델 창출 - 마을기업형 도시농업,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육성
민간단체 공모사업	- 도시농업 단체 육성지원으로 민·관거버넌스 구축 및 도시농업 저변 확산 - 민간단체의 창의적인 사업제안과 추진으로 도시농업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가능성 모색
주민참여 예산사업	-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추진 및 일자리 창출 - 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마을이 중심이 되는 도시농업 실천으로 공동체 회복
민간 중간지원기구 설립	2016년 중간지원기구 설립 연구용역 실시: 지원기구 개념 및 위상, 역할정립, 추진방식, 지원체계, 재정자립방안, 법적·행정적 과제, 설립 비용 및 설립 타당성 등 연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	- 민영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 및 사업지원을 통해 지역별 도시농업활성화 거점지 마련 - 지역별 도시농업 현장지도, 교육, 농자재 보급, 로컬푸드 매장 설치 등 도시농업 사업지원
도시양봉산업 지원	- 도시 속 농산물 재배환경 마련 및 자연친화적 도시 조성 - 서울시내 양봉사업 민간단체 및 장애인 도시양봉단 대상으로 서울양봉 꿀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홍보 및 판로지원(도시농업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재활지원)
도시농업전문가 활용 및 일자리 창출	- 여가취미활동을 넘어 일자리와 수익창출이 가능한 도시농업 육성 - 관 주도형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도시농업 일자리 창출 지원

다. 도시재생과 자원순환 사업

[부록 표 24] 2016년 도시재생과 자원순환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용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 가락시장, 공동주택 등 농산물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 • 음식쓰레기 퇴비화 교육 자재(퇴비제조기, 지렁이 상자 등) 학교농장 보급 • 도시농업농장 보급용 음식물쓰레기 퇴비통 연구개발 • 음식물쓰레기 퇴비제조 시 가로수 펠릿 이용
빗물 자원화 사업	• 빗물이용시설 지원으로 버려지는 빗물의 효율적 활용과 수자원 확보, 도시 농업 용수 절약 • 빗물 이용이 가능한 옥상 텃밭 환경 마련으로 집중호우 시 도시의 홍수 예방 및 지연
자원순환형 도시 텃밭 모델 조성	• 자연에너지와 버려진 도시자원을 재활용한 자원순환형 도시 텃밭 모델 조성으로 미래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방안 제시 • 폐자원의 에너지화와 생태계 순환구조 재현으로 시민들의 생태체험장 및 녹색 생활 실천교육장으로 활용

라. 사회·문화적 역할증대 사업

[부록 표 25] 2016년 사회·문화적 역할증대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용
서울 도시농업박람회 업그라운드	• 매년 도시농업박람회 정기 개최로 도시농업의 가치 확산 및 대시민 홍보 • 총 감독제 도입으로 수준 높은 행사 진행 • 국제관 유치로 세계도시농업의 트렌드 및 비전 제시
농사 절기 “도시농업 축제 한마당” 운영지원	• 도시농부와 시민이 함께 즐기는 절기별 도시농업 축제 한마당 개최로 도시농업문화 확산 • 축제를 통한 도시농업공동체의 결속과 정보교류 • 계절별, 지역별 특징을 고려하여 행사프로그램 구성계획: 모내기행사, 추수 행사, 텃밭 요리경연대회, 서울농산물 품평회, 김장 축제 등
도시농업 워크숍 개최	• 도시농업 관련 시민단체 및 연구자, 공무원 등 민·관 합동세미나로 다양한 의견수렴 •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로 도시농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도시농업 정보 공유
텃밭농산물 밥상 나눔 프로그램 운영	• 도시농업을 활용한 밥상 나눔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올바른 식생활 교육 • 1인 가구, 어르신, 주부 및 어린이들의 심신치유와 소통의 장으로 활용

[부록 표 25 계속] 2016년 사회·문화적 역할증대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용
도시농업 교육 활성화	- 도시전문가 양성교육 실시 - 도시농업 대중화를 위한 “도시농부학교” 운영 “서울농업체험” 그린투어
도시농업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 서울시, 자치구 도시농업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 실시 - 도시농업의 가치와 기능, 관련 법규, 선진국의 도시농업 사례 등 교육 - 생활 속 실천 가능한 다양한 도시농업 현장실습 - 서울도시농업 선진농가 사례조사 등
농부의 시장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시 주도의 도시농업 서울장터를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개최하여 규모확대와 시너지 효과 제고 - 도시농업과 연계해 문화·예술 활동 및 공동체 커뮤니티 조성
도농상생 농촌체험 및 일손돕기	- 도농상생 농촌체험 캠핑 프로그램 운영(농촌체류·휴가형) - 부모와 함께하는 “도시가족 주말 농부” 체험하기
도시 텃밭농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 정기적인 농산물 안전성 검사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도시농산물의 이미지 개선 및 홍보 - 도시 텃밭 재배 농산물 및 토양 안전성 검사(농산물 잔류농약 및 중금속(납, 카드뮴), 토양 중금속 및 양분검사)

마. 시민소통 확대 사업

[부록 표 26] 2016년 시민소통 확대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용		
도시농업 온라인 플랫폼 구축	- 텃밭 정보, 축제 및 각종 행사·교육·공모사업·도시농산물장터 등 도시농업에 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포털사이트 구축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교환 및 정보 공유로 도시농업인 모임의 장 마련 - 콘텐츠 기획항목: 도시농업공간 정보 제공, 축제 및 행사프로그램 정보, 도시농업 전문가·단체 및 도시농업 교육 안내, 도시농업 커뮤니티 형성, 창의 도시농업인·우수 도시 텃밭·명품 도시농산물 등 도시농업 소식		
대시민 캠페인 전개	- 도시농업에 대한 가치 확산과 대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캠페인 전개와 이를 통한 단시간 내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와 홍보 효과 기대 <table border="1"> <tr> <td> - 방송(TV) 및 신문 기획기사 보도 - 도시농업 사진 콘테스트 개최 - 옥상 텃밭 작은콘서트 - 홍보 리플릿, 동영상 제작 배포 </td><td> - 도시농업 홍보용 기념 소품 제작 배포 - SNS 홍보(페이스북, 카카오톡스토리) - 찾아가는 도시농업 버스농장 운영 - 도시농업 이미지 벽면래핑(옥외광고) </td></tr> </table>	- 방송(TV) 및 신문 기획기사 보도 - 도시농업 사진 콘테스트 개최 - 옥상 텃밭 작은콘서트 - 홍보 리플릿, 동영상 제작 배포	- 도시농업 홍보용 기념 소품 제작 배포 - SNS 홍보(페이스북, 카카오톡스토리) - 찾아가는 도시농업 버스농장 운영 - 도시농업 이미지 벽면래핑(옥외광고)
- 방송(TV) 및 신문 기획기사 보도 - 도시농업 사진 콘테스트 개최 - 옥상 텃밭 작은콘서트 - 홍보 리플릿, 동영상 제작 배포	- 도시농업 홍보용 기념 소품 제작 배포 - SNS 홍보(페이스북, 카카오톡스토리) - 찾아가는 도시농업 버스농장 운영 - 도시농업 이미지 벽면래핑(옥외광고)		
도시농업 우수사례 포상 및 투어코스 개발	- 선의를 경쟁 유도로 자치구 간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도시농업 사업 유도 - 포상을 통해 도시농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도시농업 투어코스로 개발		

② 토양개량제 공급

- 추진 목적: 산성토양 및 유효 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석회, 규산)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및 지력 유지보존을 통한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 내용: 농가의 신청으로 규산, 석회질 비료 구입 및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

③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

- 추진 목적: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함.
- 주요 내용: 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 인증농가로서 1천~5만²m 농지를 경작하는 자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저농약) 인증을 받고 '15년도에 친환경 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의 일부를 지원함.

④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 운영비 지원

- 추진 목적: 쌀 소득 직불사업 추진에 있어 쌀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 등 자치구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행정비를 지원함.
- 주요 내용: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심사위원회 운영비, 사업대상자 신청 등록 시 사용하는 제반 행정서식의 구입비 및 전산입력을 위한 전산 보조인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⑤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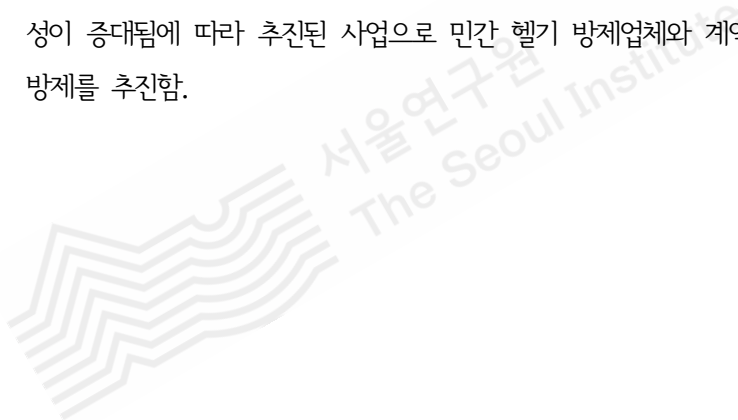
- 추진 목적: 농업소득이 높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

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함.

- 주요 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밭농업 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함.

⑥ 벼 병해충 항공 방제지원

- 추진 목적: 개별 방제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노동력 부족문제 등을 해소하여 병해충 방제 효과를 높이고자 벼 집단 재배지역에 대한 항공방제를 시행함.
- 주요 내용: 농업인의 고령화와 농가 개별 방제장비 부족으로 공동방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 민간 헬기 방제업체와 계약하여 공동방제를 추진함.



[부록 표 27] 2016년 벼 병해충 항공 방제지원 사업 추진계획

구분	내용
벼 병해충 항공방제 협의회 개최	강서구 주관으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강서구청, 강서농협, 지역농업인대표와 함께 세부 방제일정 및 소요약제 등 결정
농약살포	- 방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살균제 + 살충제 + 전착제 혼용 살포 - 농업기술센터, 자치구, 지역농협은 담당 직원을 배치하여 방제작업 추진 - 농약희석배수 및 농약주입 등은 농업기술센터 전담 지도사 입회하에 실시 - 하천 및 수로에 접근 살포 및 횡단 살포 절대 금지 - 항공방제에 필요한 용수공급 협조(강서구)
헬리콥터 이·착륙장 설치	개화·과해지역 2개소 선정(강서구)
지도 작성 활용	항공방제 지역별로 방제구역, 헬리콥터 이·착륙장 위치, 주택, 학교, 고압선, 친환경재배지역 등을 표시하여 비행 시 활용하도록 조치
안전대책 수립	- 구 소식지, 통·반장회의 등을 통하여 항공방제 실시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항공방제로 피해 우려가 있는 식수, 장독, 양봉, 양식장 등과 시설작물에 농약피해가 없도록 사전대책 강구 - 작업장에는 필요한 사람 외에는 접근을 금지하고 농약 살포 시 방제지역 내에는 사람·가축 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 - 사용 약제의 독성과 잔류독성 정도에 따라 채소 등의 채취를 일정 기간 동안 금지토록 조치 - 관·배수로를 일정 기간 차단하여 농약 성분의 하천 및 수로 유입을 억제 - 하천을 횡단하여 항공방제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사용한 빈 농약병은 농협에서 전량 수집하여 처리
기타	기상여건과 헬리콥터 사정으로 농약살포 지연이 예상될 경우 방제협의회 등을 통해 보완방제 실시

출처: 서울시 도시농업과, 2016.6. 2016년 벼 병해충 항공방제 추진 계획

⑦ 유기질비료 지원

- 추진 목적: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 및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의 생산을 유도함.
- 주요 내용: 12개 자치구의 농가에서 지역농협을 통해 구입하는 유기질비료
 - 부산물비료 구입비의 일부를 정액지원 형태로 보조함.

⑧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기본계획

- 추진 목적: 친환경 안전농산물 공급 확산으로 시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농약잔류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업환경 보전과 친환경 농가 확대로 도시환경보전과 친환경생태도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친환경농산물인증(GAP 포함) 농업인 및 인증희망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농자재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유도함.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적합한 토양개량 및 병해충방제용 자재를 지원하고 친환경 농업 참여 농가 확대를 위한 친환경 농업 기술교육을 확대 지원하고 생태 도시 조성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및 GAP 인증농가를 육성함.

5) 먹거리 공급과 유통 영역의 서울시 먹거리정책

①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 추진 목적: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도매시장의 고비용저효율 농수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시설안전 및 이용자 편의의 제고, 혼잡한 물류동선 개선 및 저장시설의 대폭 확충을 통해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형 친환경 도매시장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내용: 2010년~2018년에 걸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송파구의 가락시장 노후시설을 재건축하여 농식품 체험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 확충으로 시민에게 다양한 농식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연간 550억 원의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어민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친환경, 안전, 안심시장으로 전환하여 소비자들이 안전한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

② 정부 양곡관리

- 추진 목적: 정부 양곡의 안정적 관리로 국민식량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안정 및 효율적인 양곡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사업내용: 유사시를 대비해 비축양곡을 확보하고 평시에는 사회복지용, 학교급식용, 가공용, 군관수용 등의 용도로 정부양곡 지정소비처에 양곡을 공급하는 수급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군관수, 학교급식, 무료급식소, 가공업체 등에 양곡을 판매하고 양곡 보관창고를 관리하며 가공용 쌀 공급업체 지도·점검 및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업무 처리 등을 담당함.

③ 정부양곡 할인지원

- 추진 목적: 반값의 할인된 정부양곡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2002년 시작된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함.

④ 추석절 농수산물 서울장터 운영

- 추진 목적: 서울시민에게 서울의 우수농산물을 홍보하여 서울농산물에 대한 인식제고와 서울 농업인의 농산물판매 촉진으로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서울 도시농업 홍보관 운영으로 도시농업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내용: 2016년의 추석절 농수산물 서울장터는 9월 7일~11일 5일간 서울광장, 태평로, 무교로에서 진행되었으며 12개 시도 129개 시군(1,200여 농수특산물)이 개막행사, 농수특산물 전시, 홍보·판매, 문화행사에 참여함.

⑤ 도시가족 주말농부 체험

- 추진 목적: 도시가족 주말농부 체험을 통해 농작물이 음식이 되는 과정을 통해 먹거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명이 있는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알림. 또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우리 농산물 직거래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됨.

- 주요 내용: 서울시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식생활 문화 개선을 위해 가족 단위의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 2015년에는 총 20회의 체험에 총 575가족 1,913명이 참여했으며 연천, 여주, 양주 등에서 계절별 농산물 수확과 제철 농산물 요리실습 및 농촌체험을 진행함.

6) 먹거리 폐기 영역의 서울시 먹거리정책

① 음식문화 개선사업

- 추진 목적: 오랜 식습관에 기인한 허례허식적이며 푸짐한 상차림 선호에 따라 과도하게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 감소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을 통한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편중·과잉 영양 섭취에 따른 비만, 고혈압 등 만성질환 예방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외식 증가 등 식생활 패턴 변화와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음식 문화를 바꾸기 위해 음식 제공량 다양화 및 ‘먹을 만큼 적당하게’ 주문하는 실천 분위기를 조성함. 건강을 고려한 균형 있는 식단 조성을 위해 채식하기 좋은 환경 조성, 음식 나눔 등 바람직한 음식 문화를 조성함.

[부록 표 28] 2016년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계획

추진기간	사업 추진절차	추진 세부내용
01~03월	'15년 사업결과 검토 및 '16년 기본계획 작성	사업평가, 사업비 정산
01~03월	음식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TV 다큐 제작 방영	KBS 다큐 공감 공동 제작 추진
02~08월	채식메뉴 레시피 공모 제작·홍보	공모한 채식메뉴 레시피를 제작하여 캠페인 등 추진 시 배부
04~12월	음식문화개선 우수사업 추진단체 및 기관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및 사회가치사업 연계 협력추진
04~06월	자치구 음식문화개선사업 공모 및 지원	특화되고 집중적인 사업추진으로 사업추진의 효과성 제고
05~12월	음식문화개선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운동 전개
04~12월	채식하기 좋은 환경만들기 업소 지원	채식의 날 운영 급식소에 배너 제작배부
02~12월	먹거리종합마스터플랜 추진	먹거리종합마스터플랜 신규사업 추진
01~12월	따뜻한 먹거리 나눔	먹거리나눔, 푸드꿈나무멘토링, 푸드워크 추진
01~12월	궁중음식과 전통발효식품의 재발견 사업 추진	궁중음식과 전통발효식품의 재발견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② 음식폐기물 원천 감량화 사업

- 추진 목적: 음식폐기물 종량제 정착과 감량을 위한 시민 실천운동 및 홍보 강화로 종량제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와 감량 확대를 지속 추진하여 서울을 지속가능하고 자원이 순환되는 세계적인 환경도시로 조성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15% 추진을 목표로 시민과 함께 홍보를 추진함.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음식업중앙회, 환경운동연합,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음식폐기물 위탁·분리배출 적정 여부, 음식폐기물 감량방법 준수 여부 등 다량배출사업장 종량제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함. 또한 25개 자치구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경진대회를 지원하고 음식물생쓰레기 분리수거·퇴비화 시범사업을 추진함.

③ 청소혁신(음식물쓰레기 처리 인프라 구축 및 감량화 사업)

- 추진 목적: 음식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시민불편이 없도록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종량제 실시('13년 6월 전면 시행)에 따른 감량사업 추진으로 예산 절감을 도모함.
- 주요 내용: 2013~2018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처리시설을 강서, 중랑, 강동, 도봉 4개소에 확충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RFID)를 설치함. RFID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시민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활동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

④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추진계획

- 추진 목적: 사·종로구시민 합동으로 음식점과 유동인구가 많은 통인시장과 주변 도로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시행해 시민 감량 실천 문화를 조성함.
- 주요 내용: 2016년 8월 27일 11:00~13:00에 종로구 통인전통시장 및 주변 도로에서 통인전통시장, 금천시장 및 시장 주변 가두 캠페인을 진행함. 캠페인의 주된 내용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들 알아맞히기, 생쓰레기 퇴비화 감량 방법 시연, EM 발효액을 이용한 퇴비화 감량 방법 시연, 음식물쓰레기(수박껍질)을 활용한 요리 시연, RFID 종량기·미생물발효식 감량기·수동 탈수기 등 전시 및 안내 등임.

서울연 2016-PR-47

‘밀라노먹거리협약’과 서울시 먹거리정책

발행인 _ 김수현

발행일 _ 2017년 1월 31일

발행처 _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